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은국동 로타리(조계사 옆) 종로구 수송동5번지 동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회장:노대행/발행인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722-4162 FAX 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2월 1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61 호

人蔘의 약효!
원비-디®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4일 오후 북한산 입구 쓰레기장. 머리가 희끗희끗한 5명의 중년 보살들이 양손에 무거운 오물 봉투를 들고 산에서 내려 오고 있다. 등산복 차림에 '경불련 환경모임'이란 글씨가 등에 선명한 녹색 조끼를 입고 집게를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얼굴과 옷에는 땀과 오물이 흠뻑 묻어 있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있다.

임순자(65) 공부자(56) 이정옥(54) 소용매(54) 김영숙(44) 보살은 3년동안 매주 수요일 북한산 도봉산 등 서울 근교 명산의 등산로와 계곡에서 쓰레기를 주어 왔다. 구청 직원은 아니지만 IMF사태 이후 더욱 늘어난(?) 단골 등산객들에게는 이미 낯이 익었다.

이들 5명의 보살은 환경탐론이 무르익던 지난 95년 5월 조계종의 청정국토한마당 행사를 앞두고 결성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환경소모임에서 인연을 맺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골로 산행을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매주 한번도 거르지 않게 되었다.

쓰레기 줍는 보살들



작은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한 환경운동이 이제는 수행의 큰 방편이 되었다. 도봉산 입구에서 원통사까지, 북한산 소귀천길에서 대동문(또는 도선사)까지의 구간을 비닐봉지와 집게를 들고 수없이 오르내리며 같은 일을 반복해 왔다. 한번에 가져오는 쓰레기 양은 1인당 10Kg짜리 비닐봉투 두 개 정도. 이들의 원력 탓인지 처음 활동을 시작하던 때보다는 오물이 상당히 줄었다고 한다.

5인의 보살은 때로 경기 인근의 산사와 기도처를 오른다. 자주 찾는 곳은 경기 남양주시 운길산에 위치한 수종사와 오대산 봉정암. 가까운 수종사는 소풍을 겸한 환경정화를 위해 격월마다, 봉정암은 나태해진 불심을 다지고 정진력을 키우기 위해 1년에 두 · 세차례 찾는다.

날씨가 쌀쌀한 요즘에는 오물줍기 보다 새 모이 주기에 열심이다. 환경오염과 날씨 탓에 새들의 먹이가 부족하다는 공원 관리인들의 걱정때문이다. 산행과 환경정화, 수행 이외에 방생이라는 또 하나의 덕목이 추가되어 1석4조(一石四鳥)의 효과를 보고 있다.

〈김재경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직장법회 IMF화두 푼다"

기도정진 · 발우공양 · 이웃돕기 · 절약운동 등 적극동참

'IMF 화두' 불심으로 푼다.

법회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직장생활을 해 온 불자 직장인들이 절약운동 수련회 성지순례 기도정진 등을 통해 불심을 재점검하면서 IMF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일체개고 제행무상(一切皆苦 諸行無常)'의 가르침을 되뇌이며 '무소유(無所有)의 삶'을 지향해 온 직장법회 회원들에게는 IMF시련이 그리 큰 괴로움이 아닌듯 하다.

경남 거제 대우중공업 소속 불자모임인 대우불교청년회(회장 이봉녕)는 이달부터 △재활용품 사용하기 △식수 · 화장지 아껴쓰기 △전기 · 유류 절약하기 등 IMF절약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거제불교회관 설법전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1080배정진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백여 정회원의 50% 법회참석과 50명 신규회원 확보를 의미하는 '50-50운동'도 펼친다.

서울 지하철법우회(회장 신철호)는 10일 잠실법당에서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화합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금강석 같은 불심을 다지기 위해 경전공부 및 기초교리강좌도 개설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불교회(회장 조화제)는 14~15일 광릉 봉선사에서 수련회 및 수계식을 갖고 IMF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신심을 다진다. 좌선과 발우공양, 108참회 등을 실시하며 15일 오전에는 수계식을 거행해 불자로서의 발심을 새롭게 한다.

부산불교실업인회(상임부회장 서춘석)는 1월16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박수복 감사(대륙금속 대표)의 'IMF극복 경제강연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는 8일 범어사 보제루 정기법회에서 4백여 회원들이 1천만원의 성금을 모아 자금난에 처한 백봉도회장(신화공업사 대표)에게 전달해 힘을 보태는 훈훈한 불심을 코였다.

15개 은행 불교회로 구성된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하용이)는 매달 각 은행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법회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국은행불교회 백남석 지도법사는 "IMF사태 이후 뒤숭숭한 분위기에 업무량도 많아져 법회시간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보다 더욱 발심해서 불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경 기자〉



불암사 '자비의 쉼터'

경제한파로 인해 IMF 쉼터가 잇달아 생기는 가운데 경기 남양주 불암사(주지 일면)가 '자비의 쉼터'를 개원했다. 회원제로 운영될 쉼터는 불암사 동축당에 300여평 규모로 마련됐다. 책상, 전화, 컴퓨터 등을 갖추고 신문 및 취업관련 서적 등이 준비돼 있다. 또 '참선교실' '용맹정진기도' '사경과 발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불암사 법일스님이 상주하며 지도한다. IMF쉼터는 전국 200여곳에 설치됐다. 〈관련기사 20면〉

불교교과서 일반중학교에 보급

서울시교육청 인가

중학교 종교(불교)교과서를 일반학교에도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불교교육연합회(회장 송석구 동국대총장)가 권찬한 종교(불교)교과서가 1월23일 서울시 교육청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12일 완성본이 제출되는대로 대원정사에서 간행하는 종교(불교)교과서는 일반학교의 요청에 따라 정식교과서로 채택된다.

종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할 수 있는 90년도 교육조치에 따라 96년 불교고등학교 종교과목이 승인됐으며, 현재 기독교 중등과목에 이어 종교로는 2번째 이뤄진 것이다.

"조계종 종단개혁 긍정적" 42%

본말사주지 664명 설문

'깨 · 사 운동' 57% 찬성

조계종 본말사 주지스님들은 종단개혁불사에 대해 42.1%가 '공감한다'는 견해를 보, 38.1%와 14.2%가 각각 '보통'과 '비관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승가교육체계에 대해 64.7%가 만족한다고 평가했으며, 반대한다는 견해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이 지난해 6월 열린 본 · 말사 주지연수회에 참석한 주지스님 6백54명에 대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드러난 것.

설문에 답한 스님들은 총무원의 주지인사행정에 대해 23.4%가 만족, 22.6%는 불만을 표해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담금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33.1%)는 응답이 '공정하다'(25.6%)보다 높았다. 개혁종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대해서는 56.8%가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행자교육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는 견해가 77.2%였고, 기본교육기관 이수 의무화에 대해서는 8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교육원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84.9%나 됐다. 그러나 출가자 배출은 '양보다 질이 우선돼야 한다'(88.5%)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규모 강원을 정비해야 한다는 견해도 62.4%나 됐다. 〈관련기사 3면〉

경제난 극복 기원법회

새연등회 · 자민련 불자회

20일 불교방송 대법당서

국민회의 의원불자모임 연등회(회장 박상규)와 자민련불자회(회장 박철언)는 20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문화재관리 지자체이관 '없던일로'

관리국업무 현행대로…인원 10%감축 예정

문화체육부가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문화부로 개편되는 가운데 문화재관리국의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인력은 10%정도 감축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일부 문화재관련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안을 백지화하고 문화재관리국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의 인원 10%감축을 위한 직원현황파악을 내부 조율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학예직 보다는 일반행정직 종사자가 감축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문화재관리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위원회는 내무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체부 조직개편과 관련 종교관련 부서의 인원감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문화 체험학교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본사가 주최한 불교문화 테마여행은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차, 목각, 도예, 불교의식, 좌선 등 불교문화를 이론과 현장교육을 통해 배울수 있는 불교문화 체험학교를 엽니다. 불교유적답사와 함께 불교문화의 산 교육장이 될 불교문화 체험학교에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월별 계획

3월: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스님 유적지 방문-천안 독립기념관 유품유물전, 선산 모례원, 도리사, 서울 대각사

4월(2회 개최): △세계적 성보 팔만대장경 장대불사 동참-해인사 △ 수덕사, 개심사, 서산 마애삼존불

5월: △다선일미의 세계-쌍계사, 쑥 축제, 제다현장

6월(2회 개최): △보훈의 달, 6.25 격전지를 방문하며 통일 발원-도피안사, 철원 노동당사, 땅굴 △칠장사, 석남사

7월(2회 개최): △윤5월 예수재 동참-등명낙가사, 메밀꽃 필 무렵의 산실 이효석생가 △참사람 결사 동참-장성 백양사

8월: △연꽃으로 피어난 물심…연꽃제 참가-아산 인취사

9월(2회 개최): △목불상 제작 시연-신륵사, 고달사지, 목아박물관 △은해사 거조암 운문사

10월: △책의 날 기념 팔만대장경 판각성지-선원사지, 전등사, 무애원(설봉스님 도예실 견학)

11월(2회 개최): △고인쇄박물관 탐방-법주사, 흥덕사지 △ 만해정신 살피기-백담사

12월: △부모은중경관 참배하며 한해 마무리-용주사, 수원화성

▲접 수 처: 현대불교신문사 (02) 722-4162
혜초여행사 (02) 733-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 (선정호)

※3월 불교문화 체험학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보살 52계위 포살참회법 2·14면
불교 초전지 성역화 한다 23면
대장경 이체자전 올내 발간 9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 · 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 · 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이지,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때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 · 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석탄비누는 미용필수물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주)씨 · 티 · 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사 설

IMF시대의 방생

올해 안으로 실직자가 120만명을 돌파할 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실직자 1인당 부양가족을 1.7인으로 잡으면 320여만 국민이 생계의 위협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예상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최악의 경우 서너집 건너 한집씩은 실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결론이다.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이고, 그러하기에 고통분담이라는 대명제 아래 우선은 참고 견뎌나가야 한다고 서로 다짐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실직을 당한 당사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제 3자의 입장에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실직을 당한 이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나라 경제 성장의 최일선에서 피땀흘렸던 역군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다시 이들에게 가혹한 고통분담의 논리가 쉽게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진정한 고통분담이라면 공업(共業)의 사상에 비추어, 우리 공업의 희생양이 되어있는 그들의 고통을 모두가 함께 나눠 져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에게 그들이 겪는 고통이 자신의 업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기 보다는, 우리의 업을 그들이 지고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 불교계의 일각에서도 '실직자 위안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등 다각도로 실직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절을 내일의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계기로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무척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실직자들에게 단지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소극적인 선에서 머무르지 말고 경제적 현실적 구제의 길을 여는데까지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원공동체나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여러 시설들에 실직자들을 봉사요원으로 활용하면서, 기본적인 생계의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화합대중의 공동체인 승가의 이념을 확대하여, 불자들 개개인의 조그만 힘들을 모아 벼랑에 몰린 실직자들과 그 가족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신적인 위안을 위한 상담기구나 실질적인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기구를 교계의 힘을 모아 확대 설치하여, 실직자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움직임이 하루 빨리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직자들이 가족들에게서 조차 소외되어, 가족공동체의 파괴까지 이어지는 가장 비극적인 사태를 막는 구체적인 강령을 교단 차원에서 마련하고 각 사찰 등의 법회를 통해 널리 펴 나가야 한다.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들의 잘못 보다는 위정자와 경제 상층부의 지도력 부족 때문임을 인식시켜, 그들이 패배감 속에 좌절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한국 불교가 '보살불교'라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때는 실직자를 남편으로 둔 모든 '청신녀'들에게 그들 남편을 더욱 받들고 힘을 북돋우어 내일의 도약을 이룩하게 하는 가르침을 펼 좋은 바탕이 될 수도 있지 아니한가?

실직의 고통과 실직에 대한 불안으로 점복가의 문전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바로 이런 때 일수록 종교의 큰 힘이 발휘되어야 할 때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마침 11일은 정월보름, 방생을 많이 하는 때이다. 기존에 불교계에서 많이 해 왔던 물고기방생을 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간방생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보살 52계위' 수행정례화

조계종 포교원 '포살참회문'으로 제정 배포
화엄 이타행 강조…신도 일상생활 수행 연계

불자들은 왜 수행해야 하며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밝힌 지침서가 나온다. 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효종)은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문'(이하 52계위)을 23일 펴내 전국 사찰에 배포, 신도포살법회에서 활용 하기로 했다.

'52계위'는 불자들이 처음 보리심을 일으켜서부터 수행의 공덕을 쌓아 깨달음을 이루기까지의 단계인 '보살계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정기적인 포살법회에서 불자들의 일상생활과 수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서원을 다지도록 포살참회문으로 꾸며 자연스럽게 수행과 일상생활을 연결하도록 했다.

또 〈범망경〉을 위주로 하는 지금까지의 포살이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달리 52위 수행포살법은 대승불교의 적극적인 이타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살계위란 〈화엄경〉에서 52위설로 그 명의가 정비된 것으로 초발심부터 십신(十信), 십행(十行), 십회향(十回向), 십지(十地), 등각(等覺), 묘각(妙覺)에 이르기까지의 계위를 말한다. 포교연구실은 화엄경을 비롯 십지경 보살영락본업경 점찰선악업보경 등 각종 경전의 근거를 일일이 찾아 각 계위가 뜻하는 내용과 현대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52계위 14면>

이에따라 신도포살법회의 정착과 기복중심의 한국불교 신행풍토를 '부처되기'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교원 사무국장 법성스님은 "지금까지 한국불교는 종단내외의 사정으로 체계적인 대승보살 수행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대승보살도의 사상과 실천만이 오늘의 우리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적 종교적 신념이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한국의 대인지뢰 협약가입을 촉구하는 윌리암스초청 간담회가 4일 열렸다.

"대인지뢰협약 한국가입" 촉구

노벨평화상 윌리암스 교계초청 간담회서

9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디 윌리엄스(48세 여·국제대인지뢰대책회의 대표)씨 일행은 4일 서울 한일관에서 열린 불교계 인사 조찬간담회에 참석, "한국이 대인지뢰협약 가입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군축에 나서도록 불교계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윌리엄스씨는 한국 정부가 협약 가입을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가 대인지뢰 예외지역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 운동이 한반도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한정부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윌리엄스씨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미 코헨 국방장관의 한반도의 무기구매 요구와 대인지뢰 지속의견 피력은 미국군수산업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는 미국에서 태어나 존스 홉킨스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91년부터 대인지뢰금지운동을 국제적으로 펼쳐왔으며 대인지뢰금지 국제협약을 이끌어낸 공로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능관스님(조계종 사회부장) 법륜스님(한국불교환경교육원장) 법현스님(前 태고종 총무부장) 혜진스님(나눔의집 원장)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남북 불교지도자 5월쯤 美 LA서 '상봉'

평불협-조불련대표 26일 북경서 일정 논의

91년 이후 처음으로 남북불교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올 5월경 미국 LA에서 열릴전망이다.

조국통일평화불교협회(회장 법타스님)는 26일 중국 북경에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과 접촉을 갖고 제2차 '남북불교지도자 합동기원법회'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이를위해 평불협은 대북접촉 신청서를 통일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베이징 회담에는 법타스님과 지현정사를 비롯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월10일 박태호 위원장이 법타스님에게 남북불교지도자 합동법회 논의를 위해 북경에서 만날 것을 제의해 옴으로써 이뤄졌다.

특히 이번회담은 91년 미국 LA관음사에서 남북불교지도자가 함께 '조국통일기원 불교도 합동법회'를 개최한 이후 7년만에 다시 남북불교지도자 접촉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남북불교지도자 합동법회'는 91년 10월29일 해방후 처음으로 남북불교지도자가 미국에서 만나 4박5일간 남북 불교대표자회의를 개최한데서 시작됐으나 당시 회의가 서로의 의견차이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결렬됨으로써 단절됐다. 따라서 오는 5월 제2차 남북불교지도자 합동법회가 성사될 경우 남북불교교류 재기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0년 문화예산 GNP대비 '1%'

김대중당선자 밝혀

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 1월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1백여명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2000년까지 문화예산을 국민총생산(GNP)대비 1%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문화교류에 대해서도 김당선자는 "차기정부는 북한의 반대가 없는 한 남북간의 교류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국민이나 정부가 걱정하는 교류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민족문화유산 조사·발굴협력 추진

대통령직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일 민족문화유산 공동조사 발굴 등 남북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힘에 따라 북한 불교문화재 조사발굴의 전망이 더욱 밝아졌다. 또 인수위는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간의 사회문화 분야 교류가 절실함을 감안하며 종교 언론 보건 의료분야 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인수위는 65세 이상 이산가족의 방북을 전면허용 및 국제우편을 통한 남북한 우편물 교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교계의 북한지역 사지발굴 및 문화재 복원관련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신규포교사 연수교육

조계종, 22일까지 지역별

조계종포교원은 신규포교사 연수 및 포교사 자격 품수식을 서울을 비롯 5개 지역별로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제3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402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포교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한다.

지역별 연수일정은 다음과 같다.(지단장 일시 장소, 서울지역은 지단장 없음).

△서울 경기 인천 강원-8일 오후2시 총무원1층 불교회관 △대전·충남북(지단장 철웅 마곡사 주지)-8일 마곡사 설법전 △부산·경남(성오 범어사 주지)-15일 범어사 보제루 △전주·전북(도영 금산사 주지)-15일 전북불교회관 △대구·경북(무공 동화사 주지)-22일 동화사 설법전 △광주·전남(천운 대둔사 주지)-22일 광주 향림사.

전법도량 7곳 순회법회 연다

조계종 전법의해조직위 27일 봉은사서 시작

전법도량 현판식 및 순회법회가 27일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를 비롯 전법거점도량으로 지정돼 개원하는 목포불교대학 등 6월 7일까지 전국 7개 전법도량에서 실시된다.

전법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월주, 집행위원장 성타)는 5일 전법도량 순회법회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순회법회 기획안에 따르면, 현판식과 함께 대법회를 유도하여 전법분위기를 성숙시키기 위해 종단의 최고 수장인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이 동시에 참석하여 전법이 종단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부각시켜 전법분위기를 고조시키기로 했다.

또 전법도량이 속한 해당 교구 본·말사스님 간담회와 지역 기관장 신행단체장 종립학교장 초청간담회, 지역불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방문도 함께 진행해 사찰의 포교활동을 격려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을 적극 표명키로 했다.

집행위원회는 또 올해 거점 1곳, 시범 4곳 등 신규 전법도량 5곳을 지정하고 순회법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순회법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전법도량, 일시, 법사) △봉은사, 27일 11시30분, 성타 포교원장 △거창포교당(주지 주현), 3월 7~8일, 암도 교육원장 △목포불교대학(학장 지승), 3월 21~22일, 이하 미정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 4월 5일 △경북상주 남장사(주지 성웅), 4월 24~25일 △광주 향림사(주지 천운), 5월 9~10일 △전북불교회관(관장 희일), 6월 6~7일.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어렵지만 힘을 냅시다"

금강불교대학 2542(1998)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교는 불교적 신심과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천태종 종립교육기관으로서 불기 2542(1998)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구분 및 인원

서울·부산 1) 불교학과 120명 2) 교법사과정 : 50명

● 교 육 년 한

가. 불교학과 : 2년 나. 교법사과정 : 1년(야간)

● 교수진 소개

이재창교수 김영태교수 원의범교수 리영자교수 권기종교수 서운길교수 조용길교수
김상현교수 정병조교수 김용환교수 강동균교수 곽만연교수 최봉수교수 심재열교수
이 만교수 이봉춘교수 권탄준교수 박경준교수 김용표교수 권오민교수 이기선교수
허경구교수 지창규교수 장희옥교수 차차석교수 정승석교수

● 전 형 방 법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

● 원 서 접 수

1)기 간 : 불기 2541(1997)년 12월 23일(화)~불기 2542(1998)년 2월 10일(화) 오후 5시까지
2)접수처 : ① 서울 : 교무과(서울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內)
② 부산 : 교무과(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산131번지 삼광사 內)

● 특 전

가. 재학중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면제
나. 본 종단 신도가 아니라도 불교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음
다. 교법사과정 수료후 본종단 교법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 기타 상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02) 576-6401~2 또는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051) 808-0730, 808-711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훌륭한 교수진, 가장 알찬교육과정 운영, 가장 철저한 교육

불기 2541년 12월

대 한 불 교 천 태 종 금 강 불 교 대 학 장

개혁틀 '공감' …성과는 '절반'

조계종 스님들이 보는 '조계종 현주소'

교육원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결과는 조계종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설문이 개혁종단이 펼쳐 온 각종 사업에 대한 일선 주지스님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종단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94년 개혁불사에 대해 '보통'(38.1%)과 '비관'(17.6%)적인 견해가 '공감'(42.1%)한다는 쪽보다 많다는 것은 그동안 진행돼 온 개혁사업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면서도 확실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관심을 끈다. 종단현안과 관련한 질문 대부분에 대해 '보통'이라는 견해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긍정쪽으로 기울 수도 있으나, 일반 정서상 '보통'이라는 의미가 '그저 그렇다'는 쪽에 가까운 것임을 감안하면 결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유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총무원의 주지인사 행정과 분담금 공정성 여부, 사찰운영 및 신도 교화 부분에 대한 설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분담금의 경우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공정하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이나, 총무원의 주지인사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만족한다는 견해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난 것이 그 예다. 또 종단이 추진해온 신도 종단등록사업이 시행 2년이 지나도록 17.2%나 되는 공찰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스님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승려 노후복지대책'이나 '신도교육과 조직화'를 꼽은 것도 일선 스님들의 욕구와 시대에 맞는 종책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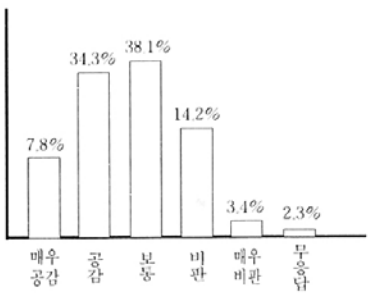
반면 승가교육체계 평가에서 불만족도가 4.8%에 불과한 것은 종단교육체계가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출가자 배출이 양보다 질에 우선돼야 한다는 것과, 소규모 강원의 발전적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은 결국 양질의 교육을 통한 승려의 자질향상이 필요하다는 요구여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규모 강원 정리에 대한 높은 찬성률은 지난해 교육원이 주요강원 집중육성방침을 추진하다 일선 강원의 반발로 유보되고 있음을 비춰볼 때 의외다. 출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89%), 행자교육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며, 행자교육원을 상설화해야 한다(84.9%)는 목소리가 높은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종단의 가장 시급한 현안 제1위로 '승려노후복지대책'이 꼽힌 것은 노후복지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주지직 분쟁과 주지 전횡, 삼보정재의 사유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심하고 수행과 교화에 전념할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만 승가의 청정성과 화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화두를 제시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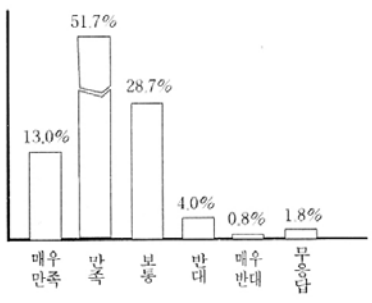
종단미래에 대한 전망은 '희망적'(49.2%)이라는 견해가 많았으나 '보통'(26.8%)과 '비관적'(18.2)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상당수 스님이 시대변화에 대처하는 종단의 능력과 노력에 신뢰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명우 기자

◇94년 종단 개혁불사에 대한 평가



◇현행 승가교육체계에 대한 평가



승려 노후복지·신도교육 '과제'
"출가기준 엄격해야" 89%
강원정비 의외로 찬성많아


◇고은시인


◇김순권박사

◇성일스님

올 '만해상' 수상자 발표

문학상 - 고은시인
평화상 - 김순권박사
포교상 - 성일스님

만해 한용운스님의 불교사상, 평화사상, 예술혼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회장 명호근)가 제정한 제2회 만해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만해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수성)는 3일 △문학상-고은시인(본지 논설고문) △평화상-김순권박사(경북대 석좌교수) △포교상-성일스님(화성 신흥사주지) 등 3개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장 및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28일 세종문화회관.

심사에는 도후(신흥사 주지) 정휴(불교신문사장)스님과 김재흥(경희대) 정병조(동국대)교수가 참여했다.

지난해 인물로 본 한국현대서사시 〈만인보〉 15권을 펴내는 등 왕성한 작품활동을 한 고은시인은 생명존중사상, 자유·평등사상을 시세계에 구현, 만해정신을 계승한 인물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고은시인은 "늘 만해스님을 생각하며 문학을 해온탓에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 만해스님의 치열한 삶과 시세계를 비판적으로 수용, 계승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옥수수박사 김순권교수는 17년간 아프리카에서 기아난민 구제에 헌신, 노벨상 후보로 4번이나 선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 최근에는 북한을 방문 평양과 평안남도 일대의 협동 농장을 둘러보고 북한에서 재배하는 옥수수 6종의 씨앗을 가져왔다.

25여년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점이 인정돼 수상하게 된 성일스님은 "부처님 제자로서 응당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힘쓰겠다"는 포부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윤기석 기자

수상자 약력

고은시인
△1933년 전북 군산 출생 △58년〈현대문학〉에 '폐결핵' 등이 추천돼 등단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민족예술인총연합 의장 역임 △주요저서-시집〈피안감성〉(60), 〈문의마을에서서〉(74), 〈만인보〉(86~97), 소설〈화엄경〉(91), 〈나 고은〉(93) 등

김순권박사
△1945년 경남 울주 출생 △미 하와이대 박사 △나이지리아 옥수수협회 부회장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방제네트워크 지도위원 △국제열대농업연구소 국제협의회장 △스웨덴 국제과학재단 자문위원 △아프리카 국제환경운동 자문위원

성일스님
△1944년 경북 영양 출생 △63년 해인사에서 출가 △73년 어린이·청소년 포교 시작 △신흥사 청소년수련원 원장 △94년 포교대상 제정 △주요저서-〈법을 설하여 주옵소서〉Ⅰ·Ⅱ(82), 〈어린이불교학교지침서〉(94), 〈신도포교지침서〉上(96)

목어

'영적 건강'

입춘이 지났다. 계절은 어김없이 봄을 준비하는데, IMF 한파는 언제쯤 봄을 감지할까.

"발명왕 에디슨은 67세때 집에 불이나 잿더미가 됐어요. 순식간에 모든것을 다 잃었죠. 그러나 그는 3주만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은 것이 원동력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신바람 건강법'을 외치는 황수관 교수(연세대)는 IMF한파를 넘을 수 있는 신바람을 역설한다.

"좋은 시절엔 신바람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힘든 요즘 신바람나는 일은 없지만 위기에 닥쳤을 때 신바람을 일으켜야 해요. 이 난관의 저편에 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지 않겠어요. 'IMF 스트레스'보다 더 무서운것은 '절망'입니다."

신바람이 밝음이고 건강이라면 절망은 어둠이고 질병이다. 우리는 늘 건강해야 한다. 특히 IMF 파고를 넘으려면 전 국민이 건강해야 한다.

"건강이란 단순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안녕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영적안녕'과 역동적인 개념을 건강의 정의에 포함시킨 헌장개정안을 집행이사회에서 통과시키고 1월24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영적안녕'이란 곧 마음의 평화이다. 불교의 마음다스리기는 더없는 '영적건강' 관리법이다. WHO가 불교의 가르침을 건강개념으로 공인한 셈이다.

"삼계의 모든 것은 오직 일심의 나타남이다"〈화엄경〉

"一心이 청정하면 多心이 청정하다"〈유마경〉

'심청정, 국토청정'은 신체적 영적 사회적건강은 물론 깨달음의 세계다.

불교는 이미 8만4천법문과 108배, 참선 등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해왔다. 자칫 좌절하거나 절망하기 쉬운 IMF시대에 사찰쉼터·시민선방등이 늘고있고, 불안한 마음을 씻으러 오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국민건강 처방으로 활용된다면 우리사회에 희망의 에너지가 분출돼 IMF파고를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6월 열렸던 중앙신도회 제1차 운영회의. 송재건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신도회 앞길 심상찮다"

송재건회장 비공식 사퇴의사 거듭표명
창립 1년도 못돼 운영한계 표면화

"1년 동안만 맡겠다"며 공사석에서 몇차례 사퇴의사를 밝힌 조계종 중앙신도회 송재건회장이 창립 1주년을 맞는 3월 이전에 사퇴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다. 송회장은 지난주에도 한 사석에서 사퇴 얘기를 또 꺼냈다.

송회장이 공식적인 사퇴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해 10월 화성 신흥사에서 열렸던 전국신행단체대표자 수련회에서 였다. "임기의 절반인 1년만 채우고 그만두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1월에는 새해인사차 월주 총무원장을 만나 사퇴의사를 전했다. 물론 월주스님은 임기(2년)를 채워줄 것을 권유했다.

송회장은 이와 함께 신도회 관계자에게 마땅한 회장 적임자를 찾아보라는 지시도 했다. 이 관계자는 5일 "지난해 12월 이같은 지시에 따라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해 송회장이 사퇴의사를 굳혔음을 시사했다.

송회장이 거듭 사퇴의사를 밝히는 것은 신도교무금 적립금 일부의 중앙신도회 운영비로 지원, 수익사업을 위한 여행사 설립 등을 포함한 총무원장과의 모종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총무원의 지원 한푼없이 지난해 송회장이 중앙신도회 운영비로 4억여원을 내놨으나 임원회비는 3천만원에 머물러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할 것이냐는 회의도 사퇴 쪽으로 기우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송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기자회견에서 "총무원과 공동으로 신도회를 운영한다는 약속을 받고 회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중앙신도회 관할부서장인 총무부장 혜창스님은 송재건회장의 사퇴의사 표명과 관련 "사석에서 한 얘기를 문제삼지 말아달라"고 전제하고 "지금 송회장이 사퇴하면 중앙신도회가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에 사퇴한다면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만약에 송회장이 사퇴하면 대행체제가 오히려 낫다"고 말해 사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월주 총무원장 출범 이후 2년여의 산고 끝에 탄생한 중앙신도회가 다시 좌초하느냐, 아니면 잠시의 장애물을 만난 것인지의 관단은 이르다. 그러나 중앙신도회와 총무원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성운 기자

현대대중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 과정)

동산불교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 집

1. 동산불교의식교육원 개설 취지

종교의 생명은 의식에 있습니다. 불교의식처럼 다양하면서도 장엄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구성된 불교의식은 장중·엄숙하기는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제 한글화한 불교의식의 숙달로 생활 속에서, 특히 경조사에서 불교의식 집전은 불교대중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산불교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글불교의식교육 5기생을 모집합니다.

2.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8년 3월 7일 (토) 오후 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외 1인	
한글불교의식 Ⅰ (상반기)	한글불교의식 Ⅱ (하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장례의식 (2) …… 입종·매장·화장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장소
• 정규반 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판 사진 3장	98년 2월 14일(토) ~3월 6일(금)	매주토요일 오후 2시~3시 (동산법당)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교육원 사무국 (☎732-1206~8 / FAX 732-1207)

6.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자격 수여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포교현장의 전법사양성

능엄경, 아함경 대강좌!

능엄경 : 송찬우 교수(승가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 楞嚴十義 ◈

①色 (일곱 군데에서 마음이 있다고 집술함)
(여덟 가지 돌려보내는 예를 통하여 견을 밝힘)
②受 (근원으로 돌아가 한가지로 쉼)
(세계와 인간을 분석하여 설명함)
③想 (여섯가지가 풀리면 곧 하나마저도 없어짐)
(즈명이 그들의 원통을 저마다 선택하여 피력함)
④行 (능엄주의 持誦과 모용을 설함)
(보살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단계들을 설함)
⑤識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장애는 모두 오음에 의한 망상임)
(그 망상을 세밀하게 31가지로 나누어 설함)

● 출기수행자뿐 아니라 재가수행자들도 한번쯤은 꼭 독파해야 할 경전 능엄경!
지행합일의 실천수행의 경전, 선학·교학·밀교를 융합시킨 경전!

아함경 : 최봉수 교수(동국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1) 장니카야 - 남방의 장아함
2) 중니카야 - 남방의 증아함
3) 상응니카야 - 남방의 잡아함
4) 중지니카야 - 남방의 증일아함
5) 소니카야 - 남방의 잡장
6) 율장개설

● 2600년전 고타마 붓다의 원음을 필요한 원전에서 적정한 양으로 선별강의!
● 불교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은 불교가 어려운것이 아니라, 불교가 해결하려는 우리 인생문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1. 지도교수·법사
: 무진장스님외 교수·스님 14인 강의

2.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모집인원	지원자격
정규반 (30명)	1 불교대학(정규)이수자
	2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통신반 (30명)	3 포교사취득자
	4 과목별 이수 희망자

3. 개강일시 98년 3월 2일(월)

4. 입 학 금 일십만원

5. 졸업자격 11과목 이상 이수자에게 연구원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교육원 사무국(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갤러리 4층)
· 문의전화 : 732-1206~3
FAX 732-1207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원 장 무진장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이사장 김재일



소식지 '삶과 생명…' 창간



법장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스님은 최근 소식지 〈삶과 생명나누기〉를 창간했다. 이 소식지는 4×6판 32면 격월간으로 발행된다.

범어사 승가대 졸업식



성오 부산 범어사 주지는 11일 보제루에서 제28회 승가대학 졸업식을 봉행한다. 이에앞서 범어사는 6일 순천 송광사에서 방생법회를 가졌다.

극락전 개원기념 천도재

영담 석왕사주지는 1월 25일 경내 육화전에서 장례의례종합법당 〈왕생극락전〉 개원과 백팔상조회 창립 1백일 기념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

日 교토대서 박사학위 받아



도업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스님은 13일 일본 교토불교대학에서 '화엄경사상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불교TV 종합조정실 국장에



남현 한일문제연구소장 스님은 불교TV에서 경영기획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조정실 국장에 5일 임명됐다.

나라사랑 금모으기 동참

심산 통도사 부산포교원장스님은 1~3일 포교원 법당에서 나라사랑 금모으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1백여 불자들이 동참, 1천2백2십돈쭝이 접수됐다.

새해맞이 촛불재·만등불사



혜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스님은 1~3일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마음을 밝히는 새해맞이 촛불재 및 만등불사를 봉행했다.

구정발전 기여 표창장 받아



혜인 삼화불교대학장 스님은 1월 22일 구정발전 및 지역주민 정서함양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권문용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유럽지역 고대식물 조사



시연 대구여래한방병원장스님은 1월 20일~2월 5일 그리스 터키 불가리아 독일 등을 방문하여 고대자연열매와 식초학술자료를 열람했다. 스님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한방과의 접목을 시도할 계획이다.

'東西 회합기원' 방생법회



원각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교사암연합회장스님은 16일 고창 선운사 도솔암에서 '국가부흥 나라사랑 동서 영호남발전기원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여주에 사찰음식 연구실



선재스님(전통사찰음식연구가)이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에 사찰음식연구실 등을 갖춘 보리사를 개원했다. (0337)84-8597

대전서 한국화 작품전

정지원 공주 법성선원장 스님은 13일까지 대전광역시민회관에서 한국화 작품전을 갖는다.

네팔 의료봉사 위해 출국



이근후 이화여대 교수는 '98 네팔-이화의료봉사단' 단장으로 봉사단원 13명과 함께 네팔 무의촌 벽지에서 의료봉사를 펼치기위해 1월 31일 출국했다.

美 발전기금 연찬회 참석



송석구 동국대총장은 동국대 미주동서지역 총동창회(회장 이태근) 초청으로 동창회 총회 및 동국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연찬회에 참석키 위해 5일 미국으로 출국, 11일 귀국한다.

불학연구소 연구원에

김인수 前대한불교 편집국장은 1일자로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연구원에 위촉됐다.

日 티벳지원회의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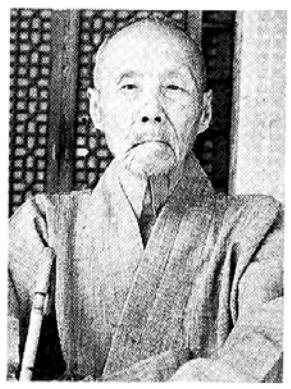
최일산 티벳지원그룹 한국대표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국제 티벳지원그룹 아시아지역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키 위해 12일 출국한다.

귀국 플루트 독주회 가져

김학모씨(플루티스트)가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최근 귀국, 8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귀국 플루트독주회를 가졌다.

수행·예술 겸비한 '傑僧'

단청장 혜각스님 입적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일옹당(一翁堂) 혜각(慧覺)스님이 지난달 30일 입적했다.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3일 영축총림장으로 통도사 사명암에서 엄수됐다. 세수 94세 법랍 78세.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1905년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난 스님은 1920년 이화응스님의 문하에 들어 단청붓을 잡으며 단청장으로서의 수행이력을 시작했다. 스님께 단청기법을 사사한 화응스님은 단청은 물론 범패에도 능했던 금강산 유점사의 걸승(傑僧)이었다.

평생 지계·보시실천 일관 수덕사등 곳곳 작품 남겨

70여년간 단청만을 화두로 정진해 온 혜각스님은 전국 유명사찰에 걸출한 유작을 남겼고 현재 활동중인 대부분의 단청장들이 스님께 사사받았다. 스님의 생애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두가지. 하나는 단청장으로서의 투철한 예술혼이고 또하나는 수행자로서의 지계청정과 보시정신의 실천이다. 스님은 단청작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끝마무리 시간까지 다른 일은 전혀 돌보지 않고 오직 단청만을 화두삼아 작업에 매진했다는 것이 후학들의 전언이다. 특히 함께 일하는 후학이 선하나만 잘못 그어도 전체를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만치 깐깐한 면을 보였다는 것. 화엄사 각황전, 수덕사 대웅전, 귀주사 대웅전, 통도사 천왕문과 사천왕, 봉은사 천왕문 등 스님의 체취가 배인 유작단청들은 선풍마저 감도는 단아함으로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스님은 오신채가 들었다는 이유로 평생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을만치 계율을 철저히 지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후학 김익홍(불교미술가)씨는 "스님은 여자의 빨래가 걸려 있는 빨래줄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일화를 들며 스님의 지계정신을 설명했다. 함께 일하는 사람중에 어쩌다 술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나요"란 황해도 사투리 한마디로 붓을 빼앗고 집으로 보내 버렸다. 계율못지 않게 스님은 평생 보시하는 삶도 지켰다. 일을 해서 돈이 모아지면 재정이 넉넉지 못한 절의 단청을 무상으로 해주기도 했고 퇴락한 사찰의 중건에 가진것을 모두 내놓기도 했다.

임연태 기자

"중국인 禪수행 생활화에 감동"

중국 선불교 유적 답사한 지묵스님



"선(禪)은 마음뿐 아니라 건강과 밀접한 수행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선수행이 국민보건체조 식으로 생활 곳곳에 널리 보급돼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월20일까지 서해를 건너 뱃길로 중국선불교 순례를 하고 귀국한 지묵스님(송광사). 위해(威海)-영성(榮成)-척산(斥山) 등 산동반도 일대에서 수행과 함께 연대(煙臺)대학에서 어학코스를 수학했다. 스님은 "단기출가 3박4일 형식의 수련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고 감동을 전하며 선수행관련 교재와 백화문 경전 70여권을 확보했다. 스님은 앞으로 대혜(大慧) 고봉(高峰) 육상(六相)스님의 행적지 조사와 관음 문수 지장 보현도량 등 4대성지를 답사연구할 계획이다. 〈위〉



Focus

"봄이 왔으니 삶도 희망 있겠지…"

"남누리 북누리에 따뜻한 봄기운 드소서"

IMF 한파 속에서도 봄소식은 들린다. 늘어나는 실직자와 오르기만 하는 물가. 우리 사회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먼발치서 들려오는 봄의 소리는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이다. 음지의 눈이 녹고 얼었던 개울이 풀리듯 우리 삶의 고통도 스르르 풀리길 염원하는 마음은 입춘을 맞아 더욱 간절하다.

4일 입춘을 맞아 절을 찾은 신도들은 가정의 행복과 국가 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그리고 집집마다 어느해 보다 간절한 염원으로 대문에 '입춘대길'을 써 붙였다. 각 사찰과 교계의 신행단체들도 사무실 입구에 봄을 맞는 각오와 희망을 담아 '입춘대길'을 써 붙이고 황량하기만 했던 지난 겨울을 떠나 보냈다.

조국통일평화협회의 한 직원은 사무실 출입문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란 글을 써 붙이고 남누리와 북누리에 따뜻한 봄기운이 스미어 좋은일만 생기길 기원했다.

고영배 기자

"학술상 제정 정토신앙 알릴터"

한국정토학회장 재선 정태혁 교수



"한국정토학회는 정토불교의 교리를 연구하고 대중의 수행을 진작시키기 위해 학회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3일 한국정토학회 회장으로 재선출된 정태혁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지난 88년 창립된 한국정토학회는 당시 정토학자들이 부족해 정상적인 학회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정회장은 "10여년이 지난 지금 정토불교를 연구해 학위를 받은 불교학자들이 3백여명에 이른다"며 "정토학술상을 만들어 정토불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를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할 것"이라며 계획을 설명했다. 또 "정토학회는 타력신앙을 강조한 정토불교를 연구하는 학회인 만큼 연구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신행회원으로 받아들여 불자들의 신행도 북돋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부회장에 홍윤식(동국대)교수, 부회장 강동권(동아대)교수, 감사 세민(수안사주지)스님 총무 보광(동국대교수)스님이 임원을 맡았다. 〈욱〉

"아버지 모델…민족화합 염원담아"

가극 '눈물의 여왕' 원작자 차길진 법사



빨치산 토벌대장 차일혁과 백조가극단 단장 전옥, 차일혁이 사랑한 빨치산 여인 신정하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 '눈물의 여왕'이 무대에 오른다.

'눈물의 여왕'의 남주인공인 차일혁총경의 아들 차길진법사(51·후암정사)는 "예전에 TV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의 주인공 최대치와 장하림은 모두 아버님을 모델로 한 겁니다. 18~9세 때에는 금강산 신계사에서 절일을 도와주며 머무르셨던 독실한 불자였어요. 토벌대에 있을 때 화엄사 등을 태우라는 명령도 당신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태우지 않으셨던 겁니다"라고 부친에 대해 회고했다.

'눈물의 여왕'은 배우 전옥이 본 빨치산과 토벌대 간의 이데올로기 갈등을 담은 작품. 차법사가 쓴 소설 〈애정산맥〉을 토대로 작년 6월경부터 삼성영상사업단에서 준비해온 가극 '눈물의 여왕'은 3월26일부터 4월12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다.

강지연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124차 깨달음의 장 모임 320,000원 △손수일 30,000원 △이애련 20,000원 △황정우 20,000원 △최광규 20,000원 △배영희 20,000원 △나선이 55,000원 △조유덕 30,000원 △이은선 20,000원 △김용주 40,000원 △성낙준 20,000원 △이은화 32,000원 △김경영 150,000원 △성일수 20,000원 △이성렬 51,720원 △남영아 20,000원 △현병호 20,000원 외 △한 주 한 끼굶기 1,298,500원 〈2월4일 현재 총 905,466,220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인 모집 요강**

본 학교는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연면히 이어온 어산(범패) 작법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에 어산, 작법과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 전수할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어산과 : ○○명
습의과 : ○○명

■ 교육내용
어산과 : 전통의식(범패, 바라무, 착복무)
신중작법, 시련, 대령, 관욕, 시식, 상주권공
습의과 : 불전의식(일용의식, 상용의식, 제반의식)
일용의식 - 도량식, 종송, 축원, 예경
상용의식 - 신중작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제반의식 - 대령, 관욕, 시다림, 점안, 방생 등
⊙ 특강 : 불교의식사, 의식과 불교사상(경전), 불교와 문화예술, 비교종교의식, 장엄 한글의식, 명절의례, 평생의례 등

■ 교육기간
어산과(범패, 작법) : 2년(4학기)
습의과(불전 의식) : 1년(2학기)
⊙ 본 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인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수여함.

■ 교육시간표

'98학년도 1학기 시간표			
요일·과정	어산(魚山)과정(범패,작법)	요일·과정	습의(習儀)과정(불전의식)
월	18:00~19:30(학교강의실)	화	18:00~19:30(학교강의실)
금	18:00~19:30(학교강의실)	목	18:00~19:30(학교강의실)

■ 응시자격
○ 종헌, 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비구(니), 사미(니)로서
○ 은사스님이나 각 본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습의과정(불전의식)은 재가불자도 수강이 가능함

■ 전형방법 : 서류전형과 면접

■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1통
2) 승적증명서 1통
3) 추천서(은사스님, 또는 본사의 추천)
4) 반명함판 사진 5매

■ 접수일자 : 1998년 2월 20일까지(우편접수도 가능함)
■ 면접일자 : 1998년 2월 23일(월) 오후 2시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개강일자 : 1998년 3월 2일(월)
■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번지 **중앙승가대학교 내**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교학처 (☎921-3425)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1998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1969년에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보존회로 지정이 되어 불교 교역자의 의전의 전문성과 정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1) 1학년 상주권공 신입생 00명 (교수 : 조인각 스님)
(2) 2학년 각배 편입생 00명 (교수 : 한동회 스님)
(3) 3학년 영산 편입생 00명 (교수 : 박송암 큰스님)
(4) 연구과(안차비) 신입생 00명 (교수 : 박송암 큰스님)
※ 이론 특별강의 (교수 : 심만춘 스님)

2. 응시자격 승려, 교역자, 특별히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이력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4) 증명사진 3매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2월 5일 ~ 3월 2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 수 처 **범음대학 교무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02) 392-3007, 3008

6. 합 격 자 발 표 1998년 3월 4일 발표 - 개별 통지

7. 특 전 졸업생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 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 및 전수생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전화 : 393-3007,3008 FAX : 393-9450

탐방 법륜불자교수회



◇법륜불자교수회의 제 17차 불국사 동계 수련대회.

불법탐구에 신심 '새록새록'

교수세계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권위를 인정받으나 다소 융화가 어려운 집단이다. 이런 곳에 모임을 형성, 10년째 신행활동과 지역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수불자회가 있다.

1988년 10월 직지사 조실 관응스님과 故이기영박사를 고문으로 창립된 법륜불자교수회(회장 정희돈 영남대교수). 이 모임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18개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부산·경남의 2개대학 등에서 1백50여명의 교수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다.

88년 창립 교수회원 150명 '산사의 음악회' 열어 호응 저술·특강 통한 포교 활발

법륜회는 매월 가족성지순례를 해오다 지난해부터는 경전강좌로 방향을 바꿨다. 첫 경전은 〈금강경〉으로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스님이 맡았으나 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회원중에는 불교철학에 조예가 깊은 권위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법륜회는 지금까지 2차례의 합동수계식과 21차례의 동하계 수련대회를 성만했으며 작년 7월에는 운문사 만세루에서 영남대 오케스트라의 협연하에 '산사의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신행활동을 펼쳐왔다.

가르치고 연구하는 업(業)을 타고난 회원들은 종종 다른 모임에 법사로 초빙되며 불교관련 저술에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매년 봄가을 2차례씩 통권 12호를 발행한 회보를 통해 서로간의 소식을 공유하고 있는 법륜회의 당면과제는 젊은 회원 확보와 자체 선방 마련의 두가지.

회원들은 또 불교와 전공학문간의 연계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지난 93년 〈세간과 출세간의 만남〉이란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불립문자의 심리언어학적 이해' '유교와 불교' '불교의 원리와 법철학' 등 불교와 전공을 심도있게 접목한 논문 13편과 큰스님의 법문 9편이 수록되어 있다.

정희돈회장은 "전공을 응용한 흥미있는 강연 등을 통해 불자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053)810-2942

대구=이윤호 기자

봉선사 직장법회 수행도량 '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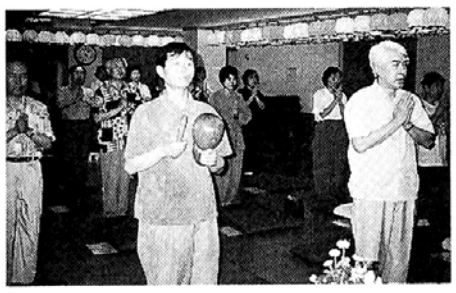
서울근교 풍광좋은 고찰 '이점' 각종 수련대회·수계식 잇달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선사(주지 밀운)가 직장·직능·학생법회의 인기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월 7~8일 구리·남양주시 불교유치원교사 수련회에 이어 이달에만 해도 금융결제원불교회의 수련회 및 수계식이 14~15일, 광동고등학교학생회의 수계식이 22일, 동국대 불교대학학생회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이 21~22일에 각각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는 서울지하철법우회 한국통신불자회 서울대교직원불이회 서초반야회 등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직장법회들이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수련대회나 사찰순례법회, 수계식 등을 개최해 왔다.

이밖에도 봉선사와 인연이 깊은 직장법회가 적지 않다. 문화방송불교연구회는 96년 7월, '좋은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난해 4월에 봉선사에서 각각 창립됐다. 국회보좌진법우회는 97년 5월 봉선사 조실 운경스님을 증명법사로 창립법회를 봉행했으며, 지난해 11월 창립한 경기도청불자회는 주지 밀운스님을 고문에 위촉했다. 또 지하철법우회는 봉선사 총무국장 화암스님이 지도법사를 맡아 매월 법회에서 법문하고 있다.



◇한국불교연구원의 지난해 봉선사 여름수련회 장면.

이처럼 봉선사가 서울·경기지역의 수련도량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봉선사가 유서 깊은 교종본찰인데다 수계법사 등 법사스님이 많은 점 때문이다. 또한 서울 근교라는 지리적인 이점과 훌륭한 경치도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장점으로 꼽힌다. 〈재〉

"자비심엔 종교벽 없어요"

부산 자비사 천주교 영아시설에 위문품

부산 자비사(주지 삼중) 신도들로 구성된 신행모임인 동심회(회장 천재숙)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영아수용시설을 위문, 종파를 초월한 자비의 손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동심회 회원 20명은 2일 오후 장애아 수용시설인 부산 감만1동 소화영아재활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영아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회원들은 이날 1백만원 상당의 아동용 의류와 각종 물품 50만원 어치, 성금 50만원 등 모두 2백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장애아들과 게임을 하는등 '1일 부모'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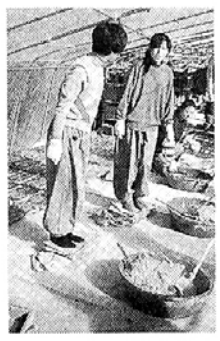
장애아들은 회원들과 1시간 30여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해 회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회원들은 앞으로도 소화영아재활원을 자주 찾아 빨래를 해 주는등 친 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펼치기로 약속했다. 지난 96년말 결성된 동심회는 재소자 위문사업 등을 펼쳐왔다.

'종교연합' 가능성 진단

붓다클럽 '붓다 2호' 발간

붓다제주중앙클럽(총회장 홍재만)은 기관지인 〈붓다지〉 2호를 발간했다. 기획특집으로 '제주의 얼과 전통문화', '종교연합 가능한가' 두 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타종교의 이해를 위해 기획된 특집 '종교연합 가능한가'에서는 △관효스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하여' △임문철신부의 '종교의 폭력성과 극복' △김상근목사의 '자비와 사랑의 실천운동은 함께 할 수 없는가?' △장덕훈 원불교교무의 '원불교 안내' △한창영교수의 '금강경과의 인연' 등이 실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를 안팎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064)48-0108

"「금강경 메주」 사세요"



금강경독송회 시판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경주 법당 불사금 마련을 위해 정성이 가득 담긴 '금강경 클래식 메주' 불사를 펼치고 있다〈사진〉. 포항 금강정사 수좌들이 만든 이 전통 메주는 수자들이 〈금강경〉을 읽고 '미륵존여래불'을 정진하는 가운데 새벽 3시부터 가마솥에 콩을 삶아 나무틀에서 손과 발로 직접 빚은 것. 흙집에서 띄우고 태양 아래서 말려 천연 황국균이 풍부. 한 말에 4만5천원. (02)742-0172



부산BBS 개국3주년 기념법회

불교부산방송(지사장 류진수)은 1일 방송국에서 개국 3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류진수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더욱 발심해서 불법을 바르게 전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불교대구방송 이사장 설조, 불교대구방송 사장 법타스님과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 직원 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



스리랑카 독립 50주년 기념식

스리랑카대사관(대사 세레비나)은 4일 스리랑카 독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원융종 송보인 총무원장, 조동종 윤송정 총무원장, 주한 말레이시아 압둘 오마르딘 대사, M.K 인터내셔널 정해정사장 등 5백여명의 내·외 축하객이 참여했다.



위안부 강덕경할머니 1주기 추모

나눔의집(원장 혜진스님)은 2일 故 강덕경할머니 1주기 추도식 및 추모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위안부 출신 할머니 20여명과 신문로포럼 유광언이사장,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회 박정기회장, 박종진 광주군수, 변용주감독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혜진스님은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국가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

현대불교신문(사장 김광삼)은 지난달 24일 녹수청산에서 제3회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을 가졌다.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자원스님(종단협 사무총장) 진흥원 최명준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매림·이태순씨가 대상(유마상)을 수상했다. 한편 전·현 수상자들은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 '신수회(가칭)'를 28일 오후5시 녹수청산에서 결성키로 했다.

우리 모임에션

거사림정법회 선방 개설

대구 거사림정법회(회장 이병수)는 지난 1월1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6~10시 거사림회관에서 '법산스님의 시민선방'을 개설. 〈해탈도·舊 중도선〉의 저자인 법산스님은 남방불교의 수행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위빠사나명상을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지도하고 있어 지역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프로그램은 법문 30분, 좌선 45분, 행선 30분 등 이론과 실수행으로 짜여져 있으며, 매번 단계별 과제도 부여된다. 참가비는 1회 1만원. (053)423-8626

청정회 전국 수련대회

서울·부산·대구·대전청정회(서울회장 강희병)는 2월 11일~15일 4박5일간 부산 청정선원에서 전국 수련대회를 갖는다. 강정진 지도법사의 법문과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 수련, 관법·염법·의심법에 대한 수련지도 등으로 진행된다. 청정회는 당초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직장인을 포함한 회원들이 늘어 모두 4백여명에 이른다. (02)880-8627

'좋은모임' 참선교실 개강

'좋은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사장 월운스님)은 4일부터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의정부시 의정부1동 법당에서 요가·참선교실을 개강.

요가는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인도 마드라스大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변순미씨가, 참선은 광명사 주지 의선스님과 나영채법사가 각각 지도한다. 수강료는 무료. (0351)848-6114

성불회 재소자에 차례법회

안양교도소성불회(회장 변즐연)는 1월28일 음력 설을 맞아 24명의 종교위원회 불교분과(위원장 현성스님) 소속 스님의 도움으로 전체 재소자 3천5백명에게 떡국을 제공했다.

또한 29일 오전에는 마하사 주지 종월스님의 집전으로 부모님이 작고한 불자재소자 110명에게 차례법회를 봉행토록 해 못다한 효도를 하게 했다. 40명의 성불회 회원들은 매월 자체법회를 열면서 5백여 재소자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하고 있다. (0343)52-2181

'부처님마을' 수계식

PC통신 '나우누리 부처님마을'(회장 박춘동) 회원 50명은 2월 7~8일 논산 안심정사(주지 법안)대웅전에서 수련대회및 수계식을 갖었다. 법안스님으로부터 입재식, 불교강좌, 참선 등을 지도받고 아침까지 근기에 맞게 1080배, 3천배 철야정진을 마친 후 한탑스님(지도법사)을 계사로 수계식을 가졌다. (051)722-6484

대불련 천리안에 모임마당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는 최근 전국 23개 지부 180개 지회의 정보교환을 위해 천리안에 '대불련 모임마당'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상하 조직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회원 상호간의 친교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사이버공간에서의 포교에도 적극 나설 계획. 'GO FAITH19'로 접속.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과 정	지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4년	·주간 ·야간 ·통신 ·통신	·고등학교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승려 포교사(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 추천자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 ·야간		
중국어과	2년	·주간 ·야간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 (禪畵)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2. 학 교 연 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 · 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배출
96. 11 본교학생 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 2급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98. 2 제7회 졸업생 배출 예정
98.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 예정 (위탁교육 수료후)
98 2 동양화 (禪畵)과, 동양풍소과 개설

3. 특 전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자격고시를 거쳐)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8년 2월23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접수 및 문의처

본교 교학과 : ☎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511-2026~8, 511-1080)

불기 2542년 2월 일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FAX : 511-1080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대 원 불 교 대 학
학 생 모 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강의시간
출강 / 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2월 28일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 원 불 교 대 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법회안내

금강정사 (02)893-2700



◇주지 벽암스님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호법인등법회 매월 첫째 수요일 오전10시30분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학업성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거사법회 매월 첫째 수요일 오후8시
청년법회 토요일 오후7시
학생법회 토요일 오후4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대구 은적사 (053)653-1572



◇주지 법민스님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일요일 오전10시30분

호국 안국사 (0551)96-8440

신교대법회 매주일요일 오전9시30분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자녀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7시30분
수요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7시30분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인천 보명사 (032)815-6610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부산불교교육대는 2월16일 본 대학 강당에서 손끝으로 표현되는 색다른 언어세계인 수화발표회를 갖는다. 사진은 97년 5월 조계사문화관에서 열렸던 원심회 수화발표회.

신행수첩

IMF 불안감 잊으세요

광륵사 무등쉼터 마련

경제한파로 인해 마음의 의지처를 찾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 요즘, 광주 무등산 광륵사(주지법사 능인)는 16일부터 편히 쉬며 불교공부도 할 수 있는 '무등 쉼터 교실'을 마련한다.

매일 2시간씩 열리는 이번 강좌는 △선체조 △단전호흡 △수식관 △향공 △건강요법 △교리문답 △신행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광륵사 혜민 지도법사가 진행한다. (062)222-7801

참선 배우면 극락이 보여

무진법장사 주민선방 열어

신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바른 참선법과 부처님 수행법의 묘미를 느껴보자.

서울 중계동 무진법장사(주지 법장)는 11일부터 매주 월~수 새벽5시부터 6시까지 주민선방을 열고 참선수행법 강의 및 선실 수 시간을 마련한다.

선·명상·단전호흡 등을 배우게 될 이번 주민선방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다.

법장스님의 10분 참선 기초강좌를 듣고 난 후 참가자들은 참선 단전호흡 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선으로 고요하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02)932-3222

선원사 출토유물 한눈에

하이텔 답사회 강화도순례

전등사, 정수사 등 고려이래 지속돼온 한국불교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강화도. 하이텔고적답사동호회(회장 간춘헌)는 15일 고려불교의 성지 강화도로 제30차 정기답사를 떠난다.

최근 발굴된 선원사지 출토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강화역사박물관 관람을 시작으로 강화 최대의 사찰 전등사에서는 대웅전 귀공포의 나녀상(裸女像)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대웅보전 꽃문살이 유명한 정수사에서 사찰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하루답사를 마치게 된다. 출발은 8시 신촌역 광장. 011-448-8885.

장애인 마음 만나보자

부산교육대 수화발표회

부처님은 꽃을 들고 가섭은 미소를 짓고 이렇게 염화시중의 미소로 말없이 통했던 진리. 그 마음으로 하나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2월16일 부산불교교육대 강당에서 열리는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이학우) 수화반 졸업생들의 수화발표회가 그것.

3개월간 강주수선생(수화통역사)의 지도로 익혀온 수화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해탈의 기쁨' '삼귀의' 등 찬불가를 공연하며 법음의 향기를 전달하게 된다.

또한 강주수 지도강사의 불교수화 10여가지가 새로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듯하다. (051)818-8659

참선·교리등 배울 기회

대구BBS 불교교양대학

올 한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맞아 마음의 한기를 이길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참선 명상 교리 사찰예절 등 초발심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불교교양강좌가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불교대구방송(지사장 법타스님)은 칠곡교양대학을 열고 불교교리반 불교명상반 불교생활반 강좌를 2월17일부터 6개월간 매주 화·수요일에 실시한다. 불교교리반에는 불교기초교리·사찰예절(재범스님) 경전공부(장적스님)의 세 강좌가 개설되고, 불교명상반에는 위빠사나명상법·참선(홍승스님) 강좌가, 불교생활반에는 전통사찰요리(홍승스님) 강좌가 마련된다.

불법의 바다에서 부처님의 참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 (053)321-3600

예술로 가꾸는 푸른불심

원각사 청소년문화 한마당

선산 원각사(주지 대혜)는 조계종 제 8교구 본·말사 '청소년 불교문화한마당'을 22일 오전 10시 선산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겨울방학동안 잔뜩 웅크렸던 어깨를 펴고 봄맞이와 함께 다가오는 새학기를 준비해야 할 청소년들. 간혹 밀린 공부를 하느라 바쁜 방학을 보내야 했던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법음과 법향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될듯. 찬불가 합창을 비롯 연극, 풍물공연 등이 열린다. (0546)481-2362

나의 수행일기



윤수현

〈칭원대교수·'교불' 주간〉

'교불' 창간 청소년 인성교육 활용
교원불자 수련법회 20여년 동참

이 산하 온 누리에 백설이 덮여 무구한 순백의 세계를 연출하는 겨울도 깊어 삭풍의 끝자락에 새 봄기운을 실어 무인년 새해가 열렸다.

어제의 선업과보는 오늘의 웃음이 되고, 오늘의 자비행에서 내일의 복덕이 잉태함을 상기할 때 삶의 긴 여정에서 어떤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느냐하는 문제는 하루하루의 알찬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관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나는 지적편력이 왕성했던 청년시절에 불교전문서적을 접한 덕분에 오묘한 불교사상에 심취하여 감화를 받으면서 점차 불교적 세계관이 확립되었다. 물론 불심이 돈독한 할머님,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불연의 소중한 씨앗이었다. 60년대 중반 고3시절 가야산자락 청암사에서 대입준비차 한 여름을 지낸 연고로 내면적 불심이 움터 자라고 있었기에 불교에 접근하는 속도는 비교적 빨랐다.

이 땅에 불법이 전래된 1600여년 장구한 세월속에 불교는 명실공히 우리 민족문화 창달의 근간이 되었고, 이 겨레 정신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불교계가 당면한 과제중 하나가 사부대중이 불법을 바르게 이해하여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에 입각한 보살도를 생활속에 실천하는 수행관의 확립이라 하겠다.



교육계의 재가불자로서 오래 전부터 상구보리하며 하화중생하는 길은 불교사상과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며 청소년 심성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 확신해 왔다.

평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터에 인연이 닿아 20여년 전부터 깊은 불연을 맺은 구인사에서 개최하는 전국유치원 초·중등 교원불자 수련법회에 1회부터 참여하였다. 여기서 불교기본교리, 불교문화, 학생지도·교화문제에 관한 특강과 토론회 진행을 맡고 있다. 지식층 중에도 많은 불자들이 불교사상이나 교의는 무시한채 보시금 지참하고 부처님전에 참배만 하면 소원 성취하고 복받는다는 종래의 기복신앙 형태를 답습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직 교원인 불자들에게 우리 불교문화의 바른 이해는 필수 사항이다. 교과학습지도에 다양한 활용은 물론 수학여행시 고찰을 탐방할 때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는 소양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연전 부처님전에 교원불자 개개인의 불심증득과 청소년 교화활동에 한몸 사루는 촛불이 되길 서원하였기에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즈음에 천태종단 지원금으로 계간 〈교불〉(전국교원불자연합회 刊)지를 창간하여 회원은 물론 전국 각급학교, 불교관련 단체에 무료 배포하고 있다. 우선 교원인 불자가 불법을 바르게 알고 수행하며, 교육현장에서 어린이·청소년들 인성교육에 활용하고 아울러 청소년 교화·포교활동에 이바지 하자는 취지에서 이다.

불법이 아무리 수승할 지라도 대중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전법, 포교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설법, 시론, 불교교리, 경전강의, 불교문화, 사찰순례, 학생교화활동, 독자문단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열악한 여건에서 종교활동 전문지를 발간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보시의 차원이자 교육·포교활동의 일환이라 확신하고, 항시 부처님전에 기도정진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불교방송 새벽예불 시각에 합장으로 시작한 하루는 '자등명, 법등명'하는 겸허한 자세로 충실한 삶을 추구한다. 가끔 번뇌망상에 빠질때 나를 경책하는 어귀는 '일심상청정 처처연화개(一心常淸淨, 處處蓮華開)'란 법어이다.

지명(知命) 나이에 받은 수계, 법명의 의미를 되새기며 불법을 홍포하여 요익중생케 하는 일이 성불의 길임을 깨닫고 있다.

오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우주 삼라만상에 충만할 뿐이다!

게 시 판

♣ 인사

불교TV △방송본부장=이태행 △사업국장=강정기

♣ 강좌

△'생명과학불교'=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11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생명과학과 불교'란 주제로 제82회 다보문화 강좌를 갖는다. 연사는 김용정(前 동국대 철학과 교수)박사. (02)703-0108

△한글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1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우리글 연구반(한글교실)을 개설한다. 대상은 한글 해독이 어려운 성인. 모집인원은 1백명. 수강료는 무료. (02)852-0525

△수심결 영어독해=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은 3월4일부터 5월2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보조 지눌의 〈수심결〉을 교재로 '불교영어 독해강좌'를 실시한다. 강사는 김종명 동국대 교수. 수강료는 7만원(교재비 별도). (02)3411-6167

△불교사회교육=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스님)은 17~19일 '불교사회교육 열린강좌'를 마련한다. 이번 강좌는 불교와 우리전통음식 등의 내용으로 광주민학회 박선홍회장과 장두석 자연건강연구회장 등이 각각 강의한다. (062)228-9098

△불교학 개론=부산불교연구원(원장 고순호)은 매주 월요일 오후7시부터 부산 초량동회관에서 불교학개론을 교재로 교리배우기 강좌를 진행한다. (051)462-3427

♣ 모집

△불일교양대학 수강생=법련사 불일교양대학(학장 현호스님)은 2월28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기초경전반, 어록선정반, 좌선건강반. (02)733-5322

△한국불교교육대학 신입생=한국불교교육대학(학장 김공철)은 2월28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포교사과, 대학과정, 대학원과정, 삼장법사과 등이다. (02)821-0541

△원각경 연수생=조계사(주지 현근) 경전연구강원은 28일까지 〈원각경〉을 공부할 연수생을 기다린다. 강사는 송찬우 중앙승가대교수. (02)720-1390

△방송모니터 상근간사=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14일까지 함께 일할 상근간사 1명을 찾고 있다. 자격은 4년제 대졸 또는 언론계 경력 3년 이상인 PC 유능한 30세이하의 남녀. (02)712-5812

♣ 답사

△감은사지, 대왕암=터사랑(대표 전숙희)은 14~15일 무박 2일동안 '동해일출과 감은사지'란 주제로 답사기행을 떠난다. 회비는 5만원. (02)725-1284

♣ 이전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1일 서초구 방배동 877-13 용전빌딩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새 전화 (02)3477-0366, 팩스 (02)3477-0368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는 지난 7일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조계사 경내(구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실)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8-3386

△유마선원(원장 이제열)은 2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29-3 축협건물 2층으로 이전했다. 새 전화 (0344)967-9122

♣ 화촉

△이한득 대구불교산악회 사무국장은 김순옥씨를 신부로 맞아 21일 낮12시 대구 늘봄예식장 2층 라일락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양성 교육기관

부산불교교육대학

포교사과정 · 경전연구과정 · 교리반 · 수화반

● 98학년도 신입생 모집 ●

1982년 설립된 본 대학은 교계의 대덕스님, 법사, 교수님을 모시고 분야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법도생에 앞장설 포교사 631명(금학년도 교계 최다 합격 97명)을 배출시킨데 이어 98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학안내

부 분	1.제8기 포교사과정	2. 제1기 경전연구과정	3.제11기 교리반	4.제3기 수화반
1.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남·여	본대학포교사과정 수료자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불교를 바르게 알고싶은 남·녀	수화를 바르게 알고싶은 남·녀
2.교육기간	1년(1998년3월~1999년2월)	2년(1998년3월~2000년2월)	6개월(1998년3월~8월)	3개월(1998년3월~5월)
3.교육일시	매주 목·금요일 오후7시~9시	매주 수요일 오후7시~9시	매주 목·금요일 오후2시~4시	매주 목·금요일 오후7시~9시
4.원서접수	1998년 1월 10일~2월 28일			
5.구비서류	입학원서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1매			
6.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		서류전형	
7.원서접수비	5,000원			
8.입 학 식	1998년3월5일(목) 오후7시	1998년3월11일(수) 오후7시	1998년3월5일(목) 오후2시	1998년3월12일(목) 오후7시
9.등 록 금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40,000원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20,000원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30,000원	입학금 2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10,000원
10.특 전	수료생은 포교사고시등 거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로 품수됨	본대학 학칙에 따라 지법사 자격증 수여	수료자는 포교사 과정에 우선 입학할 수 있음	수화 통역사 자격시험에 추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 교무실(☎ 051-818-8659, 807-7351)로 문의 바랍니다.

교과목개요

1. 제8기 포교사 과정
근본불교사상, 불교문화사, 대승경전, 포교론, 불교미술 불교사회복지, 불교의식 등 전문분야별로 쉽게 강의함. 특강 아외법회, 수련및 수계식 등은 별도 학사일정에 의거 실시함.

2. 제1기 경전연구과정
대한불교조계종승가대학원 교수로 종단의 대강백인 각성스님을 모시고 육조단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화엄경 등의 원전 강의로 불타의 심오한 사상을 습득케 함.

3. 제11기 교리반
부처님생애, 불교학개론, 불교문화사, 불교의식, 참선수행, 생활불교 특강을 개설하여 교계의 대덕스님, 교수, 법사님이 쉽고 체계적으로 강의함.

4. 제3기 수화반
동서대학 수화강사인 강주수 선생님이 수화 기초를 쉽고 체계적으로 강의함.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8/2) 성원서면주차빌딩2층 화엄회관(부산진구청 뒤)
☎ (051) 818-8659, 807-7351

한국불교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 본 대 학 특 징 ●

1) 직장인 가정주부들에게 불교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종교사회교육대학임.
2) 15년간 배출된 졸업생은 사찰, 군법회, 교도소등 각분야포교, 각종단에 출가 활동중.
3) 희망에 따라 고시를 통해 조계종포교사자격을 취득함.
4)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진학을 추천함.
5) 일요일 서울, 부산 본대학 캠퍼스에서 특강과 가정학습통신교재로 교육함.
6) 별도 수강료는 없으며 1학기(6개월) 12만원 교제대만 받음.

● 모집과정과 입학자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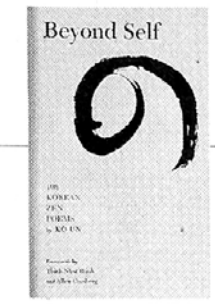
포 교 사 과	1년코스	고졸이상 실력자와 초발심자 조계종포교사고시 집중지도
대 학 과 정	2년코스	고졸이상 실력자 또는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대학원과정	2년코스	불교교육기관에서 2년이상 수학한자
삼장법사과	3년코스	불교교육기관에서 4년이상 수학한자

● 입 학 절 차 ●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사진3매첨부(원서대 5천원신청), 주민등록등본1통, 1998년 2월 5일부터 2월말일까지 본대학 또는 부산분교에 전화, 우편으로 신청, 서류 심사후 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에 직접 전화로 문의 하기 바람.

한 국 불 교 교 육 대 학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66-146
전화 02) 821-0541, 821-0542, FAX 821-0543
■ 부산분교 : 부산시 금정구 부곡1동 704 석림정사
전화 051) 581-4111, 582-4110
학 장 철학박사 김 공 철



고은 영역시집 '자아를 넘어' 美서 애독

'만인보' '화엄경' '선'도 외국어 번역

108편의 선시를 모은 고은시인의 두 번째 영역시집 〈Beyond Self · 자아를 넘어〉(Parallax Press 刊)가 미국에서 출간된지 한달반만에 외국시집으로는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 영역시집은 80년대에 출간된 선시집 〈뭐냐〉와 〈작가세계〉에 실렸던 선시들을 선별 수록한 것. 이 〈Beyond Self〉의 인기에 힘입어 첫번째 영역시집 〈The Sonuds of My Waves · 나의 파도소리〉도 최근 재판을 출간했고, 미국 인디애나대학등 두 개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Beyond Self〉도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새학기부터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연작시 〈만인보〉도 현재 영어 스페인어로 번역 중에 있고, 〈Beyond Self〉는 곧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으로도 선보이게 된다. 베스트셀러였던 소설 〈화엄경〉은 영역이 끝나 출판사 섭외가 끝나는대로 미국에서 출간된다. 소설 〈禪 · 선〉도 조만간 영역에 들어갈 예정. 고은 작품의 영역화 작업은 김영무교수(서울대) 안소니 티그교수(안선재 · 서강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과 멕시코로 순회 시낭송회도 가졌던 고은시인은 "시낭송회 당시 미국 청중들의 반응이 무척 호의적이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시와 소설의 영역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0년대 초반 창작과 비평사 주최로 미국 원로시인 알렌 긴즈버그와 함께 가진 시낭송회에서 긴즈버그는 시인 게리 스나이더를 꼭 만나보라고 권했다고 한다. 스나이더에게도 똑같은 당부의 말을 했던 긴즈버그는 지난해 말 타계했고 그의 타계 후 가진 순회 시낭송회에서 스나이더를 만난 고은시인은 "죽은 시인이 살아있는 두 시인을 만나게 해 준 것"이라며 "이런 인연은 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시인들의 활발한 국제교류는 우리 문학의 해외시장 진출과 문학적 완성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지연 기자

'우리들의 손길이 닿는 문화유산'

문화유산답사회 탁본전 22일까지 학고재화랑



◇하남 선법사 암벽에 새겨진 마애약사불의 탁본. 그 자체가 한폭의 불화를 연상시킨다.

최고의 조각을 자랑하는 지광국사현묘탑비에서 정겹게 다가서는 운주사 석불두에 이르기까지 우리 손길이 닿는 곳곳의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문화유산답사회(대표 유홍준)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 탁본의 아름다움과 의의를 되새기는 '우리들의 손길이 닿는 문화유산' 탁본전을 22일까지 인사동 학고재화랑에서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되는 작품은 총 52점. 5천년 역사를 거치면서 창조해낸 우리 선조들의 그림, 글씨, 조각, 문양 등을 탁본한 것들이다. 울주 반구대의 선사암각화와 예산 수덕여관 뒤뜰 바위에 새긴 고암 이응로의 20세기 문자추상은 시공을 초월한 탁본의 새로운 멋을 보여준다. 또 아름답기로 유명한 성덕대왕신종의 비천상, 연곡사 동부도의 조각 탁본 등에서는 정교한 조각의 맛을 여실히 살필 수 있으며, 하남 태평2년명 마애불 탁본은 그 자체로 한 폭의 불화라고 할 만한 명품으로 손꼽을 수 있다.

탁본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비문탁본. 봉암사지증대사비, 쌍계사진감국사비 등 최치원의 사산비명은 물론 북한에서 구입해온 묘향산 사적비 등에 새겨진 글자의 한획 한획에 멋과 맛이 살아나 서예감상의 즐거움을 줄 것이다.

유홍준교수(영남대 박물관장)는 "함부로 탁본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화재 훼손이지만 답사길에 무심히 지나쳤던 유물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기석 기자

문화유적총람 CD롬 3집 완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가 전국 문화유적에 대한 총람화 · 전산화 작업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제3집 '강원, 경상남 · 북도편'이 발간됐다.

이로써 제1집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5대광역시', 제2집 '충청남 · 북도, 전라남 · 북도'를 포함 총 3집의 전국문화유적총람 CD롬이 완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제3집에는 강원도 2천1백61건, 경북 6천1백48건, 경남 5천1백93건 등 총 1만3천5백2건의 유적에 대한 해설과 5천6백59장의 유적사진, 6백3장의 분포지도가 실려 있다. 유적명칭 · 종류 · 시대별 검색은 물론 어휘검색이 가능하며, 각 유적의 해설 · 사진 · 지도에 편집, 파일저장, 인쇄기능이 갖춰져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선택,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불심시심 〈116〉

신선을 왜 부러워 해

矗削奇岩霄漢齊 (촉삭기암소한제)	하늘과 가즈런히 뾰죽이 깎인 바위
披襟淸嘯上雲梯 (피금청소상운제)	옷깃풀어 맑은휘파람으로 구름사다리 오르다
天垂列宿頭邊近 (천수열수두변근)	하늘에 드리운 뭇 별 머릿가에 가깝고
風送歸雁脚下低 (풍송귀안각하저)	바람따라 가는 기러기 발 밑에 나즉하다
簇立群巒開繪畵 (족립군만개회화)	늘어선 뭇 뫼는 그림으로 열렸고
倒懸飛瀑散玻瓈 (도현비폭산파려)	거꾸로 달린 폭포는 유리알을 흩날리다
安期羽化何須羨 (안기우화하수선)	신선된 안기생이라도 무엇이 부러우랴
咫尺淸都路不迷 (지척청도로불미)	지척의 거리에 청정한 도시 길도 뚜렷한데.

괄허(括虛 · 1720~1789)대사의 '속리산'이라는 시이다. 대사의 이름은 취여(取如)이고 괄허는 호, 속성이 서씨였다. 13세에 출가했는데 출가전에 이미 유가 경전을 모두 읽었다 한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대성할 것을 예언했다 한다.

대사가 자신의 호에 대해 설명한 글이 문집에 '괄허설'이라 하여 남아 있는데, 대략 시방의 허공을 총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속리산에 올라 산정에서 바라보는 사실경이 잘 나타나 있다. 정상은 하늘과 닿아 있다. 그것도 기기묘묘하게 깎인 봉우리들이다. 올라오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으면 옷깃을 풀어헤치고 휘파람도 절로 불리는 상황이라 했을까.

정상에 올랐으니 머리 위로는 잡힐 듯이 펼쳐져 있는 별들이고 발 아래로는 기러기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다. 이 정상이 이렇듯 상하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으니, 작자가 자신이 허공을 총괄하는 괄허라 했음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수사성이기도 하다. 다시 시선을 산 아래로 돌리면, 발밑에 펼쳐지는 뭇 산은 한폭의 산수화로 열려 있고, 거꾸로 매달린 폭포는 유리알을 하얗게 흩뿌리고 있다.

이 시의 구도는 산정을 중심으로 하여 상하의 공간을 완벽하게 배치하고 있다. 머리 위에는 뭇별이고, 다리 아래는 날새들이다. 높은 산은 그림이고 낮은 폭포는 유리알이다. 상하의 모든 자연이 나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 그러니 여기가 바로 신선이다. 옛날 신선이 되어 갔다는 안기생인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강재기씨 '자비의 전각전'

2월 · 4월 대구서 전시 수익금 무의탁노인 도와



목원(木園) 강재기씨(41)가 16~22일 대구은행 갤러리에서, 4월 1일~10일 동아백화점 수성갤러리에서 각각 전각 개인전을 갖는다.

"단순히 기교가 빼어난 작품보다는 혼이 들어간 진실한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 감정이 없는 차가운 돌과 나무지만 일심으로 작업하면 혼이 들어가고 생명력이 실리지요." 강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무(無)자를 이용한 달마상, 3개월에 걸쳐 완성한 반야심경을 비롯 50여점의 불교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전시회 수익금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돕기위한 지원 기금으로 기탁할 예정이어서 IMF 한파로 썰렁한 요즘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053)784-3669

음성 중동리사지 간패사 "확실하다"

청주대박물관 지표조사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음성 중동리사지가 지표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돼 조선초까지 존재했던 간패사(間塝寺)였음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청주대박물관이 지난해 10월중순부터 11월말까지 지표조사를 한 결과 밝혀졌다.

중동리사지는 사지의 규모로 보아 매우 큰 사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많은 의혹을 샀던 절터. 폐사후 5백여년간 방치 석탑의 사리장치를 비롯 범종, 향로, 불경 등이 일제시대이후 도굴로 훼손이 극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표조사 결과 많은 기와류와 자기 토기 등이 나왔으며, 일부 지역의 지하에서는 아직 인위적으로 파헤쳐지지 않은 건물지와 많은 유물이 남아 있다. 조사된 유물과 유구로 보아 이 사지는 나말여초에 창건돼 조선 초까지 존속했으며, 사찰규모도 현재까지 알려진 1천평보다 훨씬 큰 3천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 중동리사지에서 출토된 명문기와. '간패사'로 공식명명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청주대 지표조사단은 "간패사라고 쓰여진 기와편 발굴로 현재까지 알 수 없었던 중동리사지의 명칭이 간패사지로 공식명명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사지의 정확한 내력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발굴조사와 현재 산재해 있는 유물의 보호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거조암 5백나한 천은사 금동불감 유럽나들이

99년 6월부터 독일 · 스위스 도시순회

영천 거조암 영산전에 봉안돼 있는 5백나한상, 지리산 천은사의 나옹화상원불 및 불감이 99년 유럽나들이를 떠난다. 나한기도도량으로 유명한 거조암 영산전에 안치돼 있는 5백26위의 석조나한상 중 5위를 비롯 우리 문화유산 1백건 3백여점이 99년 6월부터 2년간 독일과 스위스의 도시를 순회하며 유럽에 선보인게 된 것.

이 전시회는 독일의 루어문화재단이 청동기시대부터 19세기에 이르는 한국의 주요 문화재들을 유럽에 알리고자 기획한 '한국의 혼을 찾아서'라는 특별순회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루어문화재단이 전시회를 위한 문화재 대여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지난해 문화재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전시자문위원회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문화재를 선정했다. 출품할 문화재는 공 · 사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 사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중 대여 가능한 것으로 이뤄진다.

이 전시회는 99년 6월3일부터 11월7일까지 독일 에센의 첫전시를 시작으로 2000년 1월중순부터 3개월간 독일 베를린, 5월중순부터 3개월간은 스위스 취리히 등을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이다.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요강

1989년 설립된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에서는
범음 · 범패 요잡 및 작법 등
불교전통의식을 보다 높이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오니
뜻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合掌

1. 모집학과

학 과	교육내용	모집인원	비 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
연 구 과 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2. 응시자격 :
(다음 사항 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각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4) 신심이 돈독한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추천서 4)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기간 주 4회(월~목)

6. 접수일자
1998년 2월 9일 ~ 3월 7일 (개강일 98년 3월 9일)

● 약도
청량 전화국 / 미주 아파트 / 청량리 전철역
흥릉 / 청량리
교육대학 / 제기동 / 롯데 백화점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찾기 현상금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올랐다.

청주시민회 직지찾기운동본부 김현문본부장은 "최근 한 독지가가 올 연말까지 직지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1억원을 내놓겠다고 제의해와 1천만원이던 포상금을 1억원으로 정하게 됐다"면서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의 직지를 갖고 계신분이나 그 소재지를 알고 계신분들이 연락을 해 와서 전국민들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직지찾기 제보자 1억원 드립니다

50대 독지가 포상금 기탁

청주시 사직동에 사는 50대의 이 독지가는 시민회측에 자신의 이름과 직업을 알리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포상금 기증서를 맡겼다고 시민회는 밝혔다.

직지찾기운동본부는 보다 적극적인 직지찾기를 위해 올해부터 서울인쇄문화협회와 공동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재 유네스코와의 협력도 추진중에 있는 등 직지찾기운동을 보다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0431)67-0151~2

팔만사천법문 12권 축역

금강선원 불교정신문화원 '축역 한국 대장경' 펴내 '방등부' 등 1차분 4권 "좀더 쉽게 경전 접할 기회"



◇한정섭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불교금강선원(이사장 한정섭) 부설 불교정신문화원이 팔만대장경을 12권으로 함축한 〈축역 한국대장경〉 가운데 〈방등부〉 〈법화·열반부〉 〈화엄부〉 〈계율부〉등 4권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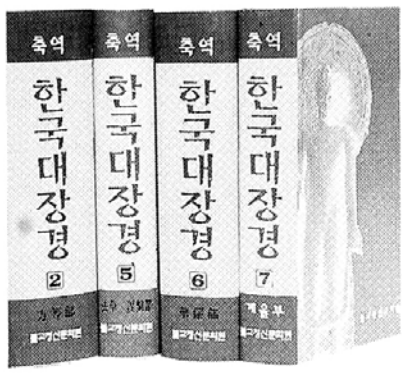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리어와 범어로 풀어낸 인도의 경전들은 중국에 와서는 한문으로 번역되었고, 다시 서장의 티벳대장경과 한국의 고려대장경, 일본의 신수대장경과 국역 일체경 등으로 편찬되었다. 그러나 그 방대함과 난해함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동국역경원본과 일본의 국역일체경을 근간으로 새롭게 축역한 이 〈축역한국대장경〉은 한정섭 이사장이 경전의 대중화를 위해 4년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스님과 법사 전문학자 등이 축역에 참여했다. 대장경 축역에 뜻을 함께하는 백운, 자운스님 등 12명이 각 1천만원씩의 기금을 모아 진행됐는데 부족한 경비는 책판매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경·율·론·선·밀교 등으로 분류된 이 책은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1〉 〈반야부2〉 〈법화·열반부〉 〈화엄부〉등 6권으로 경부를 정리하고, 율부는 〈계율부〉 1권으로 축약했다. 또 논부는 〈논집부1〉과 〈논집부2〉, 선부는 〈조사어록1〉과 〈조사어록2〉, 그리고 〈밀교부〉를 1권으로 집대성하게 된다. 이 책들은 B5형에 권당 평균 1천2백쪽에 달한다. 이같은 구분을 통해 경전을 공부하는 이들이 보다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보살마하살'을 '보살'등으로 표기했으며, 또 각 경전에서 상황전개만 조금씩 다를뿐 비슷한 의미를 담은 이야기들도 대부분 삭제 축소시킨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여러나라에서 체계를 세웠던 대장경의 분류방법에 의해, 반복된 언어와 사건 법문을 빼고 통일시켜, 한국적인 언어와 습성에 맞는 포교전법의 자료로써〈축역 한국대장경〉을 출간하게 됐다"는 한정섭 이사장은 "이 책이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간된 〈축역 한국대장경〉 가운데 초기대승불교의 성전들을 담은 〈방등부〉는 17분 60권의 〈방등대집경(方等大集經)〉을 간추려 정리하고, 현재 널리 읽히고 있는 〈미타정토삼부경〉 〈지장경〉 〈원각경〉 등을 정리 수록했다.

대승불교의 기본성전인 〈법화·열반부〉는 먼저 두 경전의 주요사상과 성립부터 살펴본후 각 품별로 주요내용을 펼치고 있다.



불교철학의 백미인 〈화엄부〉는 3본 〈화엄경〉 가운데 80권 〈화엄경〉을 축소했다.

〈계율부〉는 불교계율의 뼈대에 해당되는 속칭 소승율부 〈사분율〉 〈오분율〉 등과 대승불교의 기본율부로 알려진 〈범망경〉 〈영락경〉등을 비롯, 〈사미율의〉와 〈초발심자경〉 〈치문경훈〉 등 30여종 8백여권에 해당하는 책들을 총망라해 정리했다.

나머지 〈아함부〉 〈반야부1〉 〈반야부2〉 〈논집부1〉 〈논집부2〉 〈조사어록1〉 〈조사어록2〉 〈밀교부〉 등 8권은 올 봄과 겨울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간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불교미술 이해로 신심키워요"

동국미술인회 '알기쉬운 불교미술' 발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불교미술은 그 자체가 예배의 대상으로 깊은 불교적 교리를 내포하고 있다. 불교미술에 대한 바른 이해는 불교신앙의 폭을 한층 넓혀 준다. 동국미술인회(회장 전연호)가 일반인을 위해 펴낸 불교미술해설서 〈알기쉬운 불교미술〉은 우리문화 깊숙히 자리잡은 불교미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현재 활동중인 회원들이 불교미술 저변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힘을 모아 '불교미술개론서'로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동국불교미술인회 전연호회장은 출간동기를 밝혔다.

이책은 사원과 불상·법당과 부처님·탑·석조물·문루와 그 의미·법구·불교의 상징물·단청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모든 분야를 사찰과 법당을 중심으로 전개해 불교미술품들의 교리적 배경과 조형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뒷받침해 준다.

특히 지금까지 출간된 불교미술 관련서들이 지나치게 전문적이었던데 비해 이 책은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의 도판과 사진, 삽화를 곁들여 통상적인 형상과 도상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고 흥미롭게 불교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반냐 9천원〉

'…우리 규방문화' '…작은 박물관이야기'

허동화씨 전통문화책 2권 출간

문화재전문위원이자 현재 사전자수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허동화씨가 우리문화유산자료와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문화〉와 〈세상에서 제일 작은 박물관이야기〉(현암사 刊)를 잇따라 펴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규방문화〉는 생활의 뒷전으로 밀려나 빛을 잃은 각종 규방의 생활용품을 시대별·종류별·지역별로 나눠 그속에 녹아있는 독창성과 미의식을 조목조목 살피고 있다. 특히 깊은 신앙심과 치성으로 빚어낸 '불교자수' 부분에서 색실로 곱게 수놓은 아미타불번, 가사, 부처방석, 〈현우경〉의 표지 등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 〈세상에서 제일 작은 박물관이야기〉는 30여년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수주머니, 수베갯모, 색실첩, 반짇고리, 침장, 흉배, 후수, 자수병풍 등 규방여인의 다양한 전통살림살이를 수집해 사전자수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겪은 체험과 일화, 신념과 소망 등을 진솔하게 담고 있다.

새로나온 책



▲놓고 비우고 버리기=일상생활이 곧 선(禪)임을 강조하며 산본 개원사 선원에서 지도법사로 활동중인 장명화씨가 자신의 구도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카톨릭신자였던 장씨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후 새로운 삶을 살게된 것에서 부터 선(禪)과 기(氣)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펼치고 있다. 〈여래 9천원〉

▲진실만 말하면서 세상을 사는 법=요가와 선불교, 초월명상 등을 수행한 미국의 저명한 심리치료가 브래드 브랜튼이 진정한 삶의 자유를 위한 방법론을 설한 책. 무(無)로 부터 시작된 인간의 마음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지어졌으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물병자리 6천5백원〉

▲사랑코트에 사람이 살고 있었네=불면의 밤을 떨치기 위해 옛날 사진첩을 뒤지듯이, 무심히 방치해 뒀던 보통의 삶속에 잠겨있는 사랑과 화해의 이야기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수필집. 극단 신시의 대표 김상열씨가 지난 6년간 〈월간 구룡〉지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은 것이다. 〈가람기획 7천원〉

▲전통문화산책=민속과 전통문화, 민속과 사회, 전통문화와 사회, 세시풍속, 종교 등 사회인류학적 측면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민속문화를 정리고찰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문화를 엿보기에 충분하다. 〈서울대 출판부 7천원〉

▲건강하게 사세요1=도올한의원 원장 김용옥씨가 지난해 'SBS 명의특강' 방송 강연을 정리한 것이다. 똥과 성을 주제로 한 우리인간의 건강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상식들을 깁씨 특유의 걸쭉한 입담으로 풀어내고 있다. 〈통나무 8천5백원〉

▲신비의 쿤달리니=요가, 명상, 기공, 단전호흡, 기도, 참선 등의 수련자들이 겪는 신체적 영적현상들을 체험사례와 임상경험 등을 통해 과학적·의학적으로 연구 서술한 책이다. 한국표준학연구원 방건웅 책임연구원과 박희순박사가 번역했다. 〈하남출판사 8천5백원〉

욕심일랑 벗어두고… 윤청광 지음

원효스님 행장 소설형식으로 묶어



한국불교사상 가장 걸출한 스님 가운데 한 사람으로, 또 민족의 성사(聖師)로 불리우는 원효대사의 누구보다도 치열했던 삶과 사상을 쉽고 재미나게 소개한 책이 〈욕심일랑 벗어두고 걸림없이 살게나〉이다.

자주정신과 화쟁사상을 토대로 신라의 귀족불교 왕실불교를 민중불교로 이끌며 대중교화에 앞장섰을 물론, 부처님의 말씀을 모든 중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열반경소〉 〈법화경종요〉 〈유마경소〉 등 무려 240권의 저서를 남긴 스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방송작가 윤청광씨의 고승열전 시리즈 제18째권인 이 책은 스님의 행장을 재미있는 일화를 중심으로 소설형식으로 쉽게 엮었다. 〈언어문화 7천원〉

화제의 책

…63통의 편지 간디 지음

편지로 읽는 간디의 무소유 정신



〈위대한 영혼의 스승이 보낸 63통의 편지〉는 용기와 겸손, 두려워 하지않는 마음의 지혜를 담은 책이다. 무소유의 지혜와 사랑의 의미, 노동의 향기와 진리의 달콤함이 위대한 영혼의 소리를 통해 전편에 흘러넘친다.

간디가 썼던 글들을 모아 주제별로 엮은 이 책은 쉽고, 솔직한 그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로 모아져 그의 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각박해지는 시절이지만 싸움보다는 사랑을, 살생이 아니라 생명을,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강조하는 간디의 글은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돌러보고 세상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줄것이다. 〈지식공작소 1만2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생활속의 불교	전 재 성	이 바 지
3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4	부처님이 계신다면	탄 허	교 림
5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 타	대원정사
6	수행으로 가는 길	이 제 열	대원정사
7	금강경 대강좌	이 제 열	여시아문
8	팔만대장경속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	진 현 종	혜 윰
9	선(작은책 2)	석 지 현	민 족 사
10	불교사상의 이해	동국대불교대학원	불 지 사

구입문의:(02)737-0695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祈禱 기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I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법(無碍法)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고려대장경 이체자전' 올내 완간

장경연구소 세계최초…대장경 이체자 4만여자

한문권 장경연구 기초문헌 '세계불교학계 관심'

이체자 正字찾아 자음 · 부수 · 획순별 재분류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 이하 장경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고려(한국) · 한문(중국) · 신수(일본) 대장경 등 한문권 대장경 연구의 기초 문헌이 될 '고려대장경 이체자전'을 만들고 있어 세계불교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려대장경 이체자전(異體字典)'은 지난해 12월 고려대장경 전산본을 1차 교정한 장경연구소가 1차 교정본 자료의 전자사전 기능을 보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이규갑교수(연세대 중문)를 비롯 중문학(中文學)을 전공한 7명의 석 · 박사들은 지난해 장경연구소가 펴낸 〈1차 이체자전〉을 토대로 이체자를 새롭게 색인하고, 해당 이체자의 정자(正字)를 찾아 자음 · 부수 · 획순 등으로 재분류하고 있다.

대장경을 연구하는 불교학자라면 누구나 웬만한 한문사전에서 조차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이체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고려대장경 이체자전'은 한문권 대장경 연구의 기초를 다질 참고 문헌으로서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대장경 학(學)'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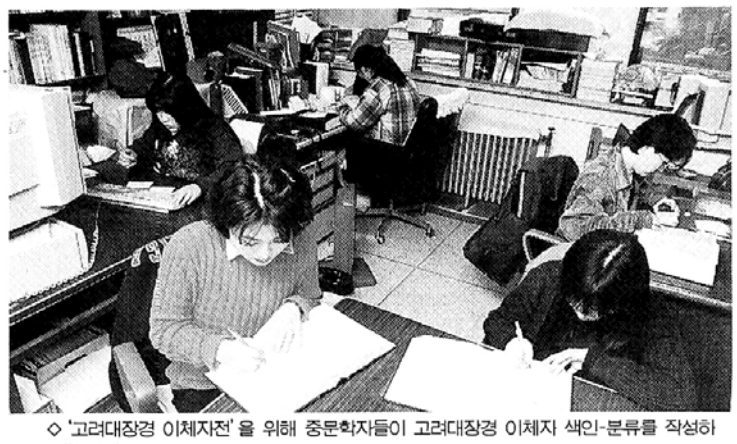


◇이규갑 팀장

이체자란 말 그대로 '몸이 다른 글자', 형(形) · 음(音) · 의(義)로 구성된 한자의 이체자란 음(音) · 의(義) 등이 같은 동음 · 동의어이지만 형(形)이 다른 것. 고려대장경에서 가장 많은 이체자를 가지고 있는 한자는 '발(發)'자. 이 한자는 무려 59종의 이체자로 변형돼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경연구소는 올해말까지 완성될 이체자전을 전산본 고려대장경의 전자사전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대장경에서 사용된 이체자의 정자(正字), 대장경 출처, 용례 등을 추가해 발간한다.

이규갑교수는 "미국 '버클리 등 세계 유수 대학들이 벌써부터 '이체자전'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고려대장경 이체자전〉은 대장경 연구 뿐만 아니라 금석학 · 국문학 · 한문학 등 인접 한문의 연구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장경 이체자전'을 위해 중문학자들이 고려대장경 이체자 색인-분류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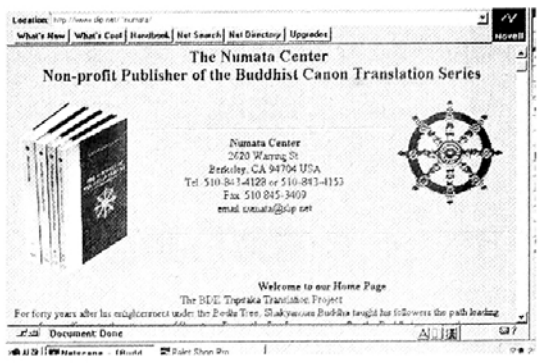
'대장경 통합해제' 전산인덱스 작업도

이와함께 장경연구소는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각종 경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색인한 '고려대장경 통합 해제'를 전산본 고려대장경의 보안 자료로 추가할 계획이다.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경전 수는 총 1천514종. 장경연구소는 이 해제본을 전산본 고려대장경의 목차로 이용할 계획이다. 정승석 · 김호성교수(동국대 인도철학) 등이 마무리하고 있는 '고려대장경 통합 해제'는 고려대장경에 게재된 모든 경전을 색인, 각 경전의 요지(要旨) · 대장경 출처 · 경전 목차 등으로 구성됐다.

또 고려대장경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한자를 표기할 수 있는 4바이트코드 체계의 프로그램 '고려워드'를 올해 안에 개발할 계획이다. 연구소측은 '고려워드'가 개발되면 불교학은 물론 국학 · 한문학 연구와 진흥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日 불교전도협회

신수대장경 영역…인도 · 中등 경전도 번역

불교전도협회(Bukkyo Dendo Kyokai, 이하 BDK)는 일본의 미쯔토요사(社)의 예한 누마타(YehanNumata · 1897~1994)에 의해 1965년 12월 설립된 불교 진흥재단으로 특정 불교 종파에 치우치지 않는 통불교적인 성격의 재단이다.

1984년 BDK의 예한 누마타의 후원 아래 누마타 센터가 설립되어 이 곳에서 중심이 되어 일본 신수대장경을 영역하고 있다. 누마타 센터의 불교경전번역위원회는 번역할 인도 중국 일본 등의 주요 경전 139종을 결정하고 2015년까지 108권의 영역 출판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번역 사업에 참가한 하나야마(Hanayama)교수는 "모든 경전을 전부 번역하는데는 1백년 이상 걸릴지도 모르지만 종국에는 번역 경전이 1천여권으로 쌓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BDK는 불교경전을 영역하는 것 외에도 세계 도처에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불교 학자들이 일본에 있는 동안의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세계 각국에 사찰을 건축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있다.

BDK는 〈The Teaching of Buddha〉라는 영어판 불교경전도 출간했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이 책은 일본 불교학자들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편집된 것으로 방대한 불교 경전 중 불교사상의 정수들만 뽑아서 모아 놓은 것이다.

이 책은 세계 각국의 웬만한 호텔에 가면 있는 성경 크기의 불교경전이 바로 BDK에서 불교를 세계 도처에 전파하기 위해 편찬해서 기증한 것이다.

이 사이트는 ▲팔리어 · 범어 · 영어로 색인된 139종 경전 ▲산스크리트어 전산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경대 종교연구소 등 10여곳의 학술단체와의 연동서비스도 제공한다.

http://www.slip.net/~numata

불교계 신흥종교 7계열 55종단

원광대 '실태보고서'

일본계 불교 교세늘어

국내 신흥종교 332종

한국불교계에서 활동하는 신생종단은 총 55종이며, 대부분 종권다툼과 재산관리문제로 창종된 것으로 분석됐다.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소장 김홍철)가 문화체육부 지원을 받아 최근 펴낸 〈한국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된 1962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생겨난 신생종단은 법화계(13종), 선계(6종), 정토계(8종), 미륵계(8종), 화엄계(4종), 밀교계(5종), 기타계(11종) 등 7계열 55종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이들 신생종단들의 창종 배경은 △전통종단의 분규 △자생종단 △특정교단의 불교화 △외래종단의 한국화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중인 신생종교는 34계열 3백22개 교단. 이중 자생적인 신생종교가 12계열 1백33개 교단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계 12계열 1백26개 교파, 외래계 신종교 3계열 35개 교단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외래계 신생종교로 파악된 총 35개 종교중 SGI한국불교회라는 이름의 창가학회, 일련정종 등 일본계 불교가 상당한 교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교계 신생종단

계열	종단수	주요 종단
법화계	13	관음종, 법화종, 천태종
선계	6	달마종, 조동종, 법륜종
정토계	8	미타종, 정토종
미륵계	8	교화종, 법상종, 미륵종
화엄계	4	원효종, 화엄종, 총화종
밀교계	5	진각종, 진언종, 총지종
기타	11	대각종, 삼론종, 법왕종

●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 창립된 불교계 신생종단

불교를 조사한 양은용교수(원광대 동양종교학과)는 "일본불교의 교세가 늘어나는 이유에는 국내 종교계에서 자생종교의 둔화현상이 두드러지고 건강 · 수련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종교들이 급증하는 추세와 맞물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수련 등을 통해 건강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기업체 경영, 공장운영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현실적인 종교의 출현도 예전과는 달라진 대목. 천존회 대순진리회의 급성장이 이같은 경향을 반영한다.

종교문제연구소 김홍철소장은 "이번 조사는 제도권 밖의 군소교단도 일일이 현지 확인을 거쳐 실태를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학술단신

김지견박사 삼륜학회 공로상

김지견박사(다한전통불교연구원장)는 2일 독립운동가 조소앙이 쓴 원효대사전(傳)을 역주한 '조소앙선 신라국원효대사전 병서'로 삼륜학회(회장 조만제)의 학술공로상을 수상했다.



◇김지견박사(사진 왼쪽)가 2일 삼륜학회 조만제회장에게 학술 공로상을 받고 있다.

김박사는 "소앙의 원효전은 〈속고승전〉〈삼국유사〉 등 기존의 원효전기들이 사료만을 나열하는 평면적 서술인데 반해 원효스님의 마음의 온기(溫氣)와 원융적 사상이 그대로 나타난 전기"라고 평가했다.

삼륜학회는 독립운동가 조소앙이 일제의 불평등을 정치 · 경제 · 교육 등의 균등으로 해쳐나가자고 주장한데서 비롯된 삼균주의를 연구하는 학술단체.

한국불교硏 불교사상 강좌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는 제119회 불교사상강좌를 연다. 동국대 부총장 정병조박사가 맡은 이번 강좌는 근본 · 대승 · 인도 · 중국 · 한국불교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2월10~14일까지 5일간. 또 김상현교수(동국대 사학)가 '원효연구'를 주제로 3월5~21일까지 원효학당에서 불교교양강좌를 갖는다. (02)3411-6167

'종교교육학' 3 · 4집 발간

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는 〈종교교육학〉 3 · 4 합본집을 발간했다. 이번 학보집에는 '일본 · 태국 · 미국 · 한국의 초 · 중학교와 종교교육'(김세곤 외 3명), '한국의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김귀성), '심미교육과 종교 · 불교적 심미교육에 관한 서론'(김대열), '불교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이창숙), '한국 종교의 인간관과 인격 교육의 가치요소'(박선영) 등 논문 14편이 실렸다. (02)260-3385

승가대 '산스크리트어 연구' 강좌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이 98년도 '한역 및 산스크리트어 불전 연구' 강좌를 연다.

월인석보(정진원), 구사론(허경구), 화엄현담(혜남스님), 성유식론(송찬우), 선요 · 절요(종범스님), 산스크리트어 불전연구(김령) 등이 마련된 이번 강좌는 3월20일부터 시작된다. (02)953-2876

"북한 · 베트남등 종교자유 침해"

미국무부 '세계종교자유 보고서' 발간

미국 국무부 부설 해외종교자유자문위원회는 최근 세계의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과 베트남 북한 라오스 등 국가에서 국민의 종교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학계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공산권 국가에서 종교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로 베트남과 중국을 지목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서는 정부에 등록된 종교기관의 회원만이 정부의 규제아래 그들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을 뿐이며, 특히 중국내 티벳의 불교신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감금과 투옥 · 학대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울브라이트 장관은 "미국은 중국 등의 종교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옹호할 수 있는 해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39

풍혈의 자고새

*풍혈화상에게 어느 승이 물었다. "말이나 침묵이 진리(離微)를 건널 때 어떻게 해야 (진리를)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풍혈이 말했다. "늘 강남의 삼월을 기억한다네. 자고새 우는 곳에 흩어지는 온갖 꽃의 향기를."

*나 혜개가 말한다. "풍혈의 솜씨는 번개를 끄는 듯. 길을 확인하면 곧바로 나아간다. 그런데 어째서 앞 사람의 혀를 잡아 끊어버리지 않았을까. 여기서 절실한 깨달음이 있다면 (생사로부터) 몸을 뺄 길이 저절로 열리리니. 자, 언어삼매를 떠나 어디 한 구절을 말해 보라."

*송하여 가로되, "풍골(風骨)의 한 구절을 드러내지 않고도, 말 이전에 이미 부탁은 전하졌다. 만일 나서서 말로 주절거렸다면, 그도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겠지."

離却語言:

風穴和尙因僧問, 語默涉離微, 如何通不犯. 穴云, 長憶江南三月裏, 啼處百花香. 無門曰, 風穴機如電, 得路便行. 爭奈坐前人舌頭不斷. 若向者裏見得親切, 自有出身之路. 且離却語言三昧, 道將一句來. 頌曰, 不露風骨句, 未語先分付. 進步口, 知君大悶措.

풍혈(風穴 896~973)은 그 험하다는 임제(臨濟?~867)의 4세 법손이다. 때는 송대 초입, 당대(唐代) 선장들의 개성적 백화난만이 점차 성숙과 정리로 길을 내주고 있던 시절이었다. 풍혈은 처음 선비로 과거시험을 치른 적이 있다. 낙방한 후 불교에 매력을 느껴 출가한다. 천태와 화엄을 섭렵하다가 남원(南院)을 만나게 된다.



그림 · 이준석

남원이 물었다. "남쪽의 몽둥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쪽의 몽둥이란 남원이 파지하고 있는 진리를 가리킨 것이다. 풍혈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표한 다음 이번에는 풍혈이 물었다. "화상께서는 그 몽둥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역습에 남원은 들고 있던 주장자를 거두며, "몽둥이 아래의 무생인(無生忍)은 절대로 스승에게 양도하지 않는다"고 정색을 했다. 나고 죽음이 없는 진리의 당체는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엇이라는 남원의 견고한 확신에 풍혈의 고개가 깊이 숙여졌다. 그 인연으로 풍혈은 남원 밑에서 배움을 의탁한다. 6년이 지나 성태(聖胎)가 무르익자 하남의 여주(汝州)에 있는 풍혈사에 주석하며 임제의 종풍을 드날린다.

공안은 그 시절 어느 승과 나눈 문답을 적고 있다. 첫 구절은 조금 까다롭다. '진리'라고 번역한 이미(離微)는 승조(僧肇)의 〈보장론(寶藏論)〉에 나오는 용어이다. 승조는 중국에 불교가 활발히 전래되던 4세기말의 인물이다. 왕실의 지원에 힘입어 대규모 번역사업을 벌이고 있던 구마라습을 돕다가 불교와 노장을 결합하는 격의(格義)불교의 리더로서 성장했다. 〈반야무지론(般若無知論)〉을 위시한 〈조론(肇論)〉을 짓고 이름을 날리던 그는 정치적인 격변에 휩싸여 서른 둘의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는다. 일설에 의하면 환속하여 자신의 정무를 도와달라는 전진왕(前秦王) 부견(符堅)의 요청을 거절한 데서 야기된 비극이라 한다. 사형이 임박하자 7일간의 여유를 달라 하여 〈보장론〉을 지어남긴 승조는 망나니의 칼날 앞에서 이런 시를 읊었다. "사대(四大)는 원래 주인이 없고, 오음(五陰) 또한 본래 공(空)인 것. 내 머리 흰 칼날에 내맡기니 흡사 봄바람을 베는 것 같으리." 승조의 〈보장론〉 둘째 편에 〈이미체정품(離微體淨品)〉이 있다. 세부적 논의는 분분하지만, 이(離)와 미(微)는 분별과 자아를 떠난 진여의 안팎을 가리킨다는 정도만 짚어두기로 한다.

인간이 가진 수단은 언어 아니면 침묵이다. 이들 수단이 진리와 어떻게 교섭하고 있는가. '건너는(涉)' 것은 언제나 위험한 살얼음판이다. 언어와 침묵을 어떻게 사용해야 진리의 강에 익사하지 않고 무사히 건널 수 있는가. 이 절실한 질문에 대해 풍혈은 엉뚱한 싯귀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다. "늘 강남의 삼월을 기억한다네. 자고새 우는 곳에 흩어지는 온갖 꽃의 향기를." 이 시는 원래 두보의 것이라고 전한다. 확인해보지는 않았다. 전쟁의 고통이라는 배경 너머에서 보면 참으로 운치있는 서정시다. 여기서 '늘'이라는 부사를 눈여겨 보기 바란다. 진리는 언제나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빗대고 있다. 물론 풍혈은 이 시를 메타포로 인용했다. 진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바라보았듯이 직유가 아닌 은유, 설득이 아닌 암시로 전해지는 그야말로 "흔적도 자취도 없는 이미(離微)"라는 것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혜개는 그러나 이런 은유와 암시도 못마땅해 한다. 풍혈의 번개같은 솜씨(?)에 감탄하면서도 대처가 썩 흡족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그럴는지도 모른다. 증조할아버지 임제였다면, 승조를 들먹이면서 자못 문자속을 자랑하는 질문자의 혓바닥을 가차없이 잘라버려 세상의 평온을 도모했을 것이다.

혜개의 아쉬움 섞인 비난은 풍혈 이후의 선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풍혈을 이어 분양선소(汾陽善昭)에 이르면서 선은 송대의 문치적 기풍 탓인지 현저하게 문학적 기교와 분식의 경향을 띠어갔기 때문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늘 강남의 삼월을 기억 한다네"

풍혈의 선풍 송대의 문학적 기교 보여

法數로 배우는 불교

〈49〉

32길상 80종호

사왓티성에 마음씨도 약하고 용모도 잘생기지 못한 박칼리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나이 스무살때 성내에서 밥을 비시는 부처님을 뵙고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기품에 넘치는 부처님의 상호(相好) 때문이었다.

부처님의 얼굴과 몸매의 모습을 상호라고 하는데 그 상호는 일반 범부 중생들의 모습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서른 두가지의 거룩함과(三十二吉相) 여든 가지 훌륭한 모습(八十種好)을 가리킨다.

발끝부터 정수리까지의 겉모습은 물론 음성과 성품까지도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공경심이 일고 환희심이 생기는 이러한 상호는 세상을 완전한 덕으로 통치하는 전륜성왕이나 삼계의 중생을 제도하시는 대스승 부처님만이 지닐수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

발바닥이 편편하다든가 손바닥에 수레바퀴와 같은 무늬가 있다든가 팔의 길이가 무릎까지 내려온다든가 미간에 흰털이 말려 있다든가 정수리에 살상투가 있다든가 하는 등(그러나 이상하게도 코에 대한 언급은 경전에 나와 있지 않다).

박칼리는 자기자신의 용모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이와같은 모습을 뵙자 '저렇게 성스러우신 분을 내가 곁에서 바라 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침내 가정을 떠나 비구가 되었다. 그런데 비구가 된 박칼리는 비구로써 배워야 될 좌선이라든가 경전을 독송하는 일은 하지않고 거의 모든 시간을 부처님 우러러 보는일에 다 보내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에게 깨우쳐 주기 적당한 인연이 도래하기를 기다리시며 별다른 경책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이제는 박칼리 비구의 지나친 행위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할때가 되었다고 여기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부처님이 갖춘 최상 모습
"법을 보는자 여래를 본다"

"박칼리여, 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여래의 이 몸도 네 몸과 같이 온갖 부패물로 가득 찬 것에 지나지 않느니라. 네가 이 몸을 일심으로 바라본들 무슨 큰 이익이 있겠느냐? 박칼리여, 법을 보는 자가 진실로 여래를 보느니라" 부처님의 이같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박칼리는 부처님의 형상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 박칼리 비구가 큰 충격을 받지 않으면 당신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없으리라 생각하시고 일부러 방편을 지으셨다.

때는 마침 비만 줄곧 내리는 우기였다. 부처님은 박칼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래는 다른 비구들과 조용한 곳에 가서 안거를 할테니 그대 혼자 여기에 남아 안거를 보내도록 하여라." 박칼리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다.

"아아,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그는 비감에 사로잡혔고 마침내 절망적인 마음이 되어 영축산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으리라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산으로 올라갔다. 이때 부처님은 박칼리의 이러한 마음과 행위를 아시고 곧 그에게 광명을 보이시고 마치 그의 앞에 서 계시는 듯한 모습을 나투시었다. 그러자 박칼리는 절망적인 생각에서 홀연히 벗어나 한없는 기쁨이 솟았다. 그런 박칼리에게 부처님께서는 다음 게송을 읊으셨다.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그대여, 여래의 가르침에 완전한 믿음을 지닐지어다. 그리하면 평화로운 피안에 이를지니, 그때 존재는 적멸하여 최상의 행복을 이루리로다." 이와같은 게송에 박칼리는 기쁨이 충만해 몸이 허공처럼 자유로워지면서 큰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불자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흠모하고 존경한다. 살아계신 부처님은 아닐지라도 32길상 80종호의 모습대로 조성된 불상앞에 신심을 바치고 공양을 올리면서 공덕을 기원하고 있다. 32길상과 80종호는 가장 완벽한 육체와 정신을 갖춘 최상의 인격체이다.

그 모습은 비단 석가모니와 같은 부처님만의 것이 아닌 우리 중생들이 온갖 선행과 공덕을 닦아 이루어야 될 미래의 자기 모습이다. 불교는 형상에 대한 집착을 여의는 가르침이다. 그것이 아무리 성스러운 부처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모습 자체에만 집착해 버리면 또 하나의 병을 낳는다.

진정한 여래는 32길상 80종호에 있지않고 법을 체득한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래를 32길상에서 보려하면 그것은 이미 삿된 도에 들어간다고 하셨지 않았는가. 거룩하기 그지 없는 32길상 80종호도 대상으로만 여기고 숭배한다면 부처님의 뜻에 어긋난다.

불상의 모습을 통하여 모습 아닌 무형의 부처님을 친견해 보자.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상호는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보자.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47

불교와 수학

42

아라한과 무한

김 용 운

동양 사상에서는 9(九)라는 수를 좋아한다. 10(十)은 완성과 성장의 상징을 삼았을 때 9는 10에 하나가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마지막의 노력을 다하는 힘이 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 귀하게 생각한다.

'달이 차면 기우나니'라는 속담도 있다. 속담은 속세에 있어서의 처세훈이며 어디까지나 유한 세계의 지혜, 행복감을 말한다. 그러나 무한의 극점에서 완성한 수로 생각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1, 2, 3, …… 계속 수를 늘려가면 끝이 없다. 그러면서도 이들 수는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모두 유한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유한 세계를 뛰어 넘을 때가 있다. 근세 수학은 1, 2, 3 ……을 훌쩍 뛰어 넘어 무한을 받아들이는 의지적인 순수 사유의 요청을 받아 들였다.

무한수 ∞는 무한으로 뻗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그 극점의 수로서 설정한다. 1, 2, 3……과 ∞ 사이에는 이승과 저승만큼이나 엄청난 틈이 있으며, 아무리 계속 같은 방법으로 수를 셈해도 ∞에는 당도할 수 없다.

이 수를 설정하는 일은 수행을 다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대오(大悟)의 경지와 비유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오를 얻은 진인(眞人)일지라도 속세 인간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다. 오히려 중생제도의 사명을 갖고 다시 속의 세계에 들어온다. 노파심절(老婆心切 늙은 할머니가 어린 아이를

아라한 속세 있어도 연꽃처럼 때 안묻어

무한수 더하고 빼도 변함없이 무한

돌보는 마음)이다. 중생에 대한 관심(衆生適度)의 마음이 수시로 발동되어야 할 것이다. 아라한(阿羅漢)의 경지가 있다. 그것은 번뇌를 끊고 그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자기완성에 성공한 경지를 말한다. 그러나 대승적인 입장에서는 그 경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이때 대오를 얻은 진인도 속세의 흙, 먼지에 얼굴을 더럽히는 속인과 같이 어울려 그 처지에서 말하며 같이 고뇌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灰頭土面).

흙탕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물에 몸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花泥帶水). 대오를 얻은 진인이 얼굴에 더러운 흙과 먼지를 뒤집어 썼거나 중생을 구하기 위해 흙탕물에 빠졌을 때는 다시 범인과 같은 경지가 되는 것인가?

이 상황은 '연꽃이 흙탕물에서 피어도 아무런 더러움을 타지 않는다'와 같다. 연잎 위에 튀긴 물방울은 그대로 굴러서 떨어진다는 비유이다.

수학에서는 1, 2, 3 ……에서 한 단계 비약하고 무한수 ∞에 당도한 후 일을 생각한다. 다른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를 생각한다.

∞+1, ∞+2, …… ∞+10,000, ……

또는 ∞-1, ∞-2, …… ∞-10,000……

더 나아가서는 ∞+(1, 2, ……) = ∞+∞+

와 같은 상황이다.

이때 여연화불착수(如蓮花不着水), 연꽃에 물이 묻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 그대로 ∞이며 심지어 ∞라는 식으로 몇 번 더해도 ∞이다. 물론 더했을 때뿐만 아니라 뺐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아라한의 입장은 ∞에 겨우 당도하는 것과 같으며 고정화된 무한이나 다름없는 형국이 된다. 만일 그대로 고정된다면 무한도 유한과 다름없이 융통성이 없는 만수십(滿數十)과 다름없다.

속의 세계에서는 그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경지가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가능한 만족의 상태로 비유된다. 이때 남은 일은 그런 형편에서 떨어지는 일이며 그것이 걱정이다.

10-1=9는 10과 다르기에 다시 9의 처지가 되는 일을 걱정한다. 이때는 내려왔을 때임으로 10으로 오를 때의 9와는 달리 불안이 따른다. 무한은 아무리 유한의 수를 더하거나 빼도 변함이 없음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방편을 중시한다. 때로는 그때그때 중생이 놓인 처지에 따라 속된 말로 그 놓인 처지를 설명하고 구제의 손을 뻗는다.

그 방편의 내용은 무한의 경지에서 유한의 상황(속의 세계)을 설명하는 것과도 같다. 무한에 어떤 수를 더해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대오의 경지에서는 속의 말로 된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무한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서 그 경지에 있었다고 찾각하는 일은 유한 세계에 있으면서 다른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과도 같은 어리석음이 된 것이다. 그런 처지에서는 방편도 한낱 거짓이 되며 함부로 쓸 수 없는 위험을 안는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 중생제도와 구제의 대서원 ·

한방건강 미삼정(彌蔘錠)

보건사회부 허가 제 130 호
창 원 시 허가 제 48 호

본 미삼정은 (彌蔘錠)은 무명대사(無名大師 : 1812~1890)께서 중생의 제도와 구제의 대서원으로 오도하여 성분 제조상의 영험한 비법을 후대에 전수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미삼정은 모든 병의 근원인 기(氣)의 흐름을 원활히하여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할뿐만 아니라 체내의 항체,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생활이 가져온 인체의 각종 부작용과 허약화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보강하여 장기복용하면 수복강령(壽福康寧)을 누릴 수 있는 신비의 건강식품입니다.

특 징
· 오장육부의 기능조절 및 강화
· 혈액순환 내분비기능 활성화
· 시력, 청력, 사고력 촉진
· 신경계통 장애 개선 및 두뇌긴장 완화
· 피로 허약체질 강정·강장 효과
· 병후 회복기 단축
· 노화방지
· 질병 감염에 대한 저항력 강화
· 심신의 조화와 안정
· 세포 신진대사 촉진

● 전국(시,군) 대리점 모집 ●
부처님의 원력으로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신 스님및 불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명성사 주지 합장
경남 창원시 북면 하천리 748-1
■ 연 락 처 : 0551)98-5911
■ 서울사무소 : 02)537-9110, 586-0718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45Cm

◎ 보급가 : ₩300,000⇒₩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걸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갈아놓았던 동관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97년 2월 영암 도갑사에서 출토된 청동문수동자상. 100여개월의 보존처리를 거쳐 천년전의 환한 모습으로 다시금 나투었다.

보존과학, 문화재엔 '약손'

녹슬고 금간유물 보존처리 거치면 원래모습 '환생'

흙과 녹으로 형체식별 어렵던 도갑사출토 청동문수보살상 X선 촬영·녹분석 통해 원형확인 초음파 세척기로 녹제거하고 청동속 흙먼지 현미경통해 제거 좌측 뒷다리 복원 미세균열 보강 10개월 노력끝에 원형복원 국립박물관 19일까지 60여점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한켠. 지혜의 광명으로 추위와 IMF경제난을 타개하고 희망찬 미래를 가져다줄 청동문수동자가 나투셨다. 용맹스럽기보다는 해학적인 모습의 사자를 타고 정갑어린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97년 2월18일 영암 도갑사에서 청동광배, 소조사천왕상 2구 등과 함께 발견된 이 청동문수동자상은 출토당시에는 전체가 흙투성이에 곳곳에 금이 간 상태였다. 문수동자상은 어떤 과정을 거쳐 새롭게 단장한 몸으로 나투신 것일까.

도갑사 청동문수동자상은 출토직후 국립중앙박물관 지하1층에 자리한 보존과학실(실장 이상수)로 옮겨졌다. 안병찬 학예연구관은 문수동자상을 처음 본 순간 천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얼과 혼을 느낄 수 있었다. 손을 대는 순간 느낌이 전해왔다. 문수동자상에 스며있는 느낌을 자신들만의 대화로 감지한 셈이다. 아무리 흙투성이에 금이 간 상태라지만 그것을 처음 대하는 안씨의 마음은 경건하다. 특히 법열이 깃든 성보문화재에 담긴 신비는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확연히 볼 수 없다.

흙과 녹이 뒤섞여 전체를 두껍게 덮고 있는 문수동자상의 정확한 상태를 X선 촬영, 녹분석 등으로 확인한 다음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붓으로 불상을 뒤덮고 있는 흙을 조심스럽게 긁어냈다. 청동녹제거용액과 초음파진동세척기로는 표면의 녹을 제거했다. 그러나 청동속 깊이 숨어있는 흙먼지가 끌칫거리, 자칫 아무렇게나 손댔다가는 원형을 손상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현미경에 올려놓고 메스로 녹을 일일이 긁어내기를 3달. 감춰져 있던 유물의 원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더 이상 녹슬지 않게 부식을 촉진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했다. 또 새로운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표면에 안정화처리를 했고, 유물을 단단히하는 경화처리도 했다.

1차 긴급조치를 끝내고 보니 좌측의 뒷다리가 조금 찰려나가고 전체적으로 미세한 균열이 많았다. 보강조치가 취해졌다. 없어진 부분은 원 유물에 맞는 재료와 형태로 복원했다. 접합 및 복원은 제거 가능한 재료와 방법을 사용, 원형복원에 충실을 기했다.

10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높이 15.5㎝, 사자길이 10㎝의 문수동자상이 새롭게 태어났다. 보존처리를 하면서 잃었던 다리도 되찾았다. 문수동자상이 천년전의 환한 모습 그대로 우리 눈앞에 나투셨다. 그리고는 고려시대 월출산 자락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문수신앙의 흔적을 말없이 전해주고 있다.

청동문수동자상을 만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와 보존과학 '97 특별전'은 2월19일까지 계속된다.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존과학실의 최근 성과가 잘 드러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보존처리를 거쳐 되살아난 문수동자상을 비롯 통도사 청동은입사정병, 청주 사뇌사지에서 출토된 향로·향완·금강령 등의 성보를 통해 고려 장인들의 불심과 기교를 생생히 느낄 수 있다.

93년 청주시 사직동 무심천가의 사뇌사지에서 발굴된 4백여점의 유물 중 2백여점도 보존처리를 거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또 보존처리과정에서 사뇌사(思惱寺), 선원사(禪院寺) 두 곳의 사찰이름과 통화(統和)15년(997)부터 기유명(己酉銘, 1249년경)까지의 연대가 기록된 명문을 발견했다.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과거 사뇌사와 선원사에 있었던 불구(佛具)들이며, 유물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는 천년까지 확인한 것이다. 보존과학이 잠시 역사속에서 사라졌던 유물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려 내는 첨단의술임을 확인한 순간이기도 했다. 통도사소장 청동은입사정병도 보존처리를 거쳐 원형을 회복했다. 기본적인 보존처리와 함께 없어진 귀때(注口部)와 대롱(尖嘴)를 새로 복원한 것. 이런 복원작업은 형태와 크기뿐 아니라 문양까지 원 유물에 맞춰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기획전시실 유리벽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문화재들은 시공을 초월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선조들의 정신과 기술을 이어가려는 이상수실장, 안병찬 학예관 등 보존과학실 식구들의 고뇌와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모든 성보는 발굴에서 일반에 전시될때까지 보존처리를 거쳐야 한다. 발굴당시 유물은 대부분 심하게 훼손돼 있다. 수리·복원 전문가인 보존과학자의 손에 의해 원 상태를 회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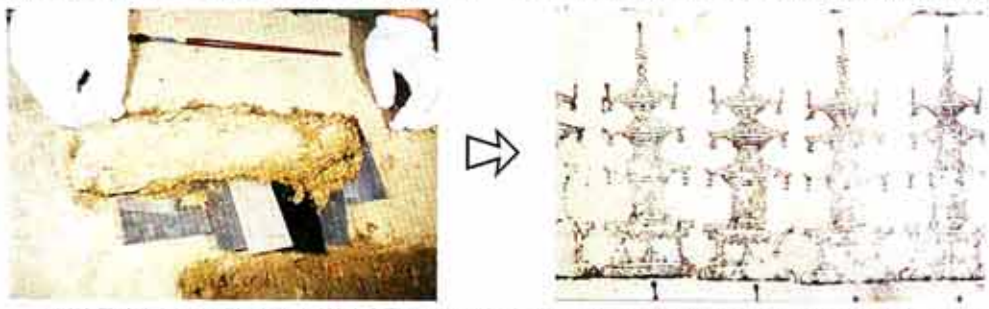
93년 청양에서 출토된 무게 3백㎏의 도제불상대좌(국립부여박물관 소장)의 경우 발견당시 4백여편으로 조각나 있었다. 처음에는 반가사유상의 대좌로 추정하고 복원했으나 보잘 것 없는 파편 하나가 단서가 돼 일반 가부좌대좌로 판명됐다. 대칭이 되도록 다시 맞춰 복원해 놓고 보니 폭 2.5m, 높이 1m의 거대한 백제불상대좌가 됐다. 제작기법 또한 독특했다. 단단히 하기 위해 공기를 빼는 도박질, 직경 5㎝정도로 둥글게 만든 흙을 여러개 쌓아 단을 만드는 윤적법 등 고대 제작기술의 신비가 그대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화엄사 서5층석탑에서 발견된 다라니경 필사본, 감은사지 동3층석탑의 사리함 등 세기의 발견이라 일컬어지는 성보문화재의 뒤에는 오랜기간 정성을 기울여온 보존과학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다. 보존과학은 조상들의 유물을 통해 과거와 현실을 이어가며 미래를 장조하는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윤기석 기자



◇청주 사뇌사지에서 출토된 금강령. 출토지와 시대가 분명해 분석연구를 통해 당시의 주조 및 제작기법을 알수 있다.



◇과연 종이인가 분간조차 하기 어려웠던 흙투성이 유물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다라니경 필사본임이 확인됐다. 사진은 96년 8월 화엄사 서5층석탑에서 발견된 백지묵서경의 보존처리 전(사진 왼쪽)과 후.

"유물 원형보존 문화국가 초석"

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안병찬 학예연구원



"문화재 보존과학은 역사속에 묻혀있던 유물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17년을 오로지 문화재 보존과학에 힘써온 안병찬씨.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했다지만 졸업당시만해도 보존과학은 그에게 생소한 학문이었다. 문화재에 대한 사랑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미술사를 공부하며 우리문화의 우수성만을 보아오던 그에게 보존과학은 새로운 사실을 일깨워줬다. 분명 훌륭한 문화유산이기는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분석 조사하다 보니 문화재를 대하는 시각이 일반미술사가들과 다르더군요. 겉으로 보아선 완벽하지만 끝마감이 세심하지 못한 우리 문화의 특징을 발견한 것입니다."

안씨는 현미경으로 유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장인특유의 멋과 솜씨를 읽어낸다. 그는 91년 자신이 직접 보존처리한 왕궁리 5층석탑 출토 금동불입상을 잊을 수 없다. 발견당시만해도 청동불로만 알았던 불상의 녹을 일일이 제거하다 보니 찬란한 광채의 도금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게다가 콧수염이 짙은 초록색 빛을 띠는 것이었다. 눈썹, 입술 등도 마찬가지였다. 금동불상 위에 채색을 한 최초의 불상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순간 아찔하더군요. 자칫하면 중요한 채색의 흔적까지도 녹과 함께 사라질뻔 한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란게 이런 게 아닐까요."

안병찬씨는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 "과학 못지 않게 예술적 안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문화재복원은 원 유물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되 복원된 부분을 표시나도록 해야합니다. 옛 장인들의 미적감각을 체험적으로 추론해 예술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전문인력 부족…용인대 등 관련학과 잇따라 개설

취재수첩

천여년의 긴 시간속에 잠들었던 유물을 깨워내는 문화재 보존과학. 현대과학기술의 바탕위에 전통기술이 결들여져 병든 문화재의 옛 모습을 오늘에 되살려 놓는 학문이다. 그러나 문화재 관리당국은 물론 일반인들로부터도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은 1976년 단 2명의 직원으로 출범했다. 21년이 지난 지금 보존과학실 식구는 정식직원 4명, 임시직원 8명 총 12명으로 늘어났지만 35만점에 달하는 유물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금속유물팀(이상수, 안병찬), 수침목재유물팀(이용희), 성분분석 및 자료검사팀(유혜선)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중앙박물관 및 지방박물관 소장품은 물론 매장문화재들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애쓰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화재의 진위를 가름하는 감정술에서 출발한 보존과학은 과학적인 문화재관리 지원, 보존처리 및 새로운 재료와 기술개발, 문화재와 환경의 상호작용연구, 성분분석 및 연대측정, 전통제작기법연구 등 전문영역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아직도 보존과학 업무에 관한 독립된 부서조차 없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도 질과 양 두 측면에서 모두 낙후돼 있다. 전문직 12명, 비정규직 18명 등 30명의 인원이 보존과학(물리·화학·생물 등 보존처리기술 연구), 수복(금속·목제·석재유물을 수리복원), 분석(유물의 성분분석 및 연대측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예산지원과 대우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보존과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용인대에 정규학과로는 최초로 보존과학과가 설치됐다. 15명 정원으로 박지선씨(서화류 보존처리), 배진달씨(미술사)가 교수로 있다. 특성상 실습위주의 수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의 유사학과와 달리 1학년때부터 전문적이고 말도 높은 교육을 하고 있다. 학과 개설 첫해인 97년도의 경쟁률은 18.7대1로 상당히 높았다. 졸업후 밝은 전망에 따른 인기를 보여준 것. 올해는 한서대 예술관리학부에 문화재관리전공이, 내년에는 전통문화학교가 개교하면서 보존과학과가 신설된다. 특히 전통문화학교는 예산문제 등이 남아있지만 전통문화 전문가 양성이 목적인 만큼 보존과학 인력양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동국전문대와 대전보건전문대 등에 문화재 관련학과가 설치돼 있다. 동국전문대의 경우는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담당, 문화재보호재단(1천2백점) 및 대학박물관(7백여점) 등으로부터 문화재 보존처리 의뢰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95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모두 38명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취업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아직 보존과학은 선학들이 많지 않은 미개척 분야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적극 나서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유물을 다루는 보존과학자의 손에는 온갖 정성이 깃들어 있다. 사진은 사뇌사지 출토 유물 보존처리 장면.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봉지품(奉持品) ②

所謂智者 소위지자
不必辯言 불필변언
無恐無懼 무공무구
守善爲智 수선위지

이른바 지혜로운 이
반드시 말 잘하지 않더라도
두려움도 불안한 마음도 없이
선을 지켜 지혜로 삼는다

奉持法者 봉지법자
不以多言 불이다언
雖素少聞 수소소문
身依法行 신의법행
守道不忘 수도불기
可謂奉法 가위봉법

법을 받들어 지니는 이
많은 말 하지 않고
비록 들은게 적더라도
법을 따라 몸소 실천하고
도 지키기를 꺼리지 않으면
이를 일러 참으로 법을 받든이라 한다

인색하고 질투하고 헛된 꾸밈새나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 것

謂能捨惡 위능사악
根原已斷 근원이단
慧而無恚 혜이무에
是爲端政 시위단정

이같이 나쁜 일 능히 버리고
그 원인을 이미 끊어서
지혜로워 노여움이 없으면
이를 일러 품행이 바른 이라 한다

所謂沙門 소위사문
非必除髮 비필제발
妄語貪取 망어탐취
有欲如凡 유욕여범

이른바 사문이란
반드시 삭발한 것 뜻하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면서
욕심대로 살면.범부인 것

謂能止惡 위능지악
恢廓弘道 회확홍도
息心滅意 식심멸의

탐욕 부리면서 욕심대로 살면 '범부'
바른 도 넓히며 생멸심 여의면 '사문'

所謂老者 소위노자
不必年耆 불필년기
形熟髮白 형숙발백
意愚而已 준우이이

이른바 장로라 하는 이
반드시 나이 많은 것만 아니다
형색이 늙고 머리 털 흰 것은
다만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것일 뿐

謂懷諦法 위회체법
順調慈仁 순조자인
明遠清潔 명원청결
是爲長老 시위장로

진리의 법을 가슴에 품어
바르게 따르며 자비롭고 어질어
진리에 밝고 심행이 깨끗하면
이를 일러 장로라 한다

所謂端政 소위단정
非色如花 비색여화
慳嫉虛飾 간질허식
言行有違 언행유위

이른바 품행이 바른이란
그 형색이 꽃처럼 고와서가 아니라

是爲沙門 시위사문

이같이 나쁜 일 능히 그치고
바른 도를 더욱 더 넓히며
마음쉬어 생멸심 여의면
이를 일러 사문이라 한다

所謂比丘 소위비구
非時乞食 비시걸식
邪行諛彼 사행음피
稱名而已 칭명이이

이른바 비구란
때맞춰 밥을 비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삿된 행이 저를 빠지게 하면
다만 이름으로 비구일뿐

謂捨罪福 위사죄복
淨修梵行 정수범행
慧能破惡 혜능파악
是爲比丘 시위비구

이른바 죄와 복을 다 버리고
욕심끊는 깨끗한 행을 닦아서
그 지혜 능히 악을 깨뜨리면
이를 일러 비구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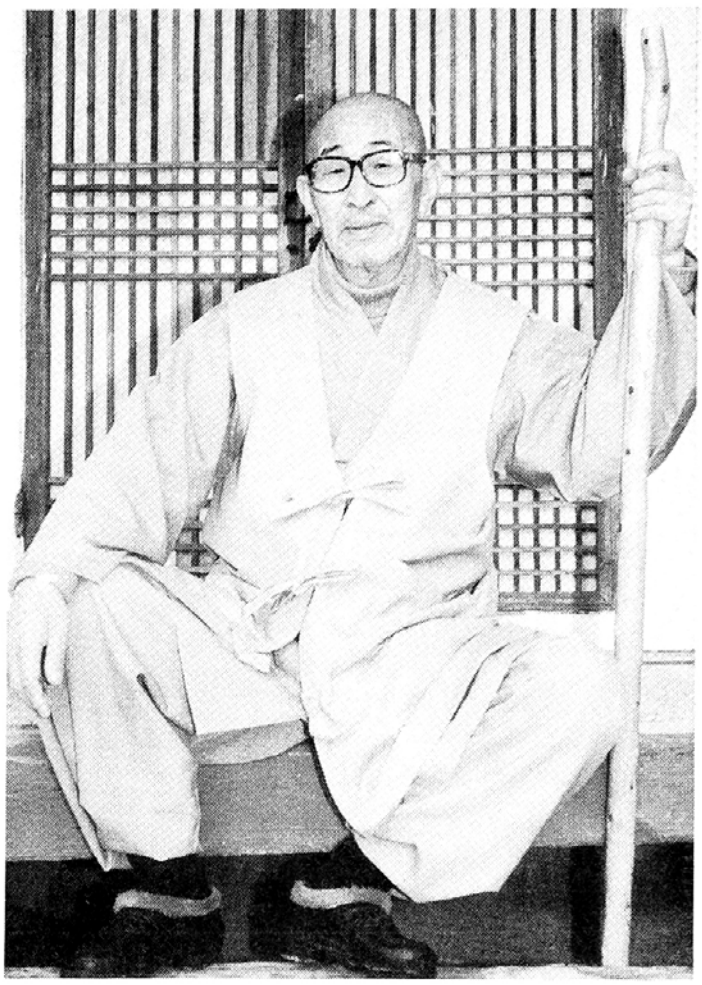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가르침 실천하지 않으면

지종스님 〈영광 불갑사 조실〉

"자기 주인공 찾지 않으면 살아 있다해도 송장 같으니 항상 본성을 참구하세요"



조사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시물혜(不是物兮) 조병무(早騁拇)
허다망상(許多忘想) 복하위(復何爲)
관간첩장(慣看疊障) 연라니(烟蘿裏)
무수호원(無首蝴猿) 도상수(倒上樹)
니라.

이말은 '어찌하여 쓰잘데 없는 손가락이 하나 더 붙어서 번뇌망상을 일으키느냐. 사람은 만물지종의 영장인데 사람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현혹시키고 앉았느냐. 산봉우리에 안개가 가득한 산중 나무를 머리없는 원숭이가 거꾸로 올라가는 격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말과 생각은 하기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천이 없는 것은 울창한 나무에 쓸데없는 칡넝쿨이 감고 올라와서 나무를 천천히 죽여버리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늘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지니는 것 또한 부처님을 속이는 것이지요. 불자라면 실천수행으로 탐진치 3독을 끊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살면 뿌리잘린 나무처럼 허망한 삶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좌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자신의 본지풍광을 돌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본성을 참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세계를 움직이는 주인공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다 해도 씩은 송장과 다를바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송장을 이곳으로 끄집어 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나를 움직이는 이놈이 어떤 놈이냐 하고 유심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도는 항상 가고 오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한 곳에 있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나는 19세때 백양사에서 출가했습니다.

요즘이야 행자들에게 처음부터 공부를 가르치지만 그때는 행동이 먼저였어요. 말이 필요없었죠. 행동 하나 보고 중을 만들 기도하고 만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자생활만 3년도 하고 5년도 했어요. 옛날에는 출가했다고 해서 바로 머리를 깎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수건으로 질끈 동여매고 행자생활을 했습니다.

행자생활 1년만에 묵담스님이 나를 보더니 상좌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것을 미리 아셨는지 만암스님이 계 받으라며 머리를 깎아주셔서 중노릇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고도 만암스님 회상에 가서 다시 행자의 과정을 살아야 했는데 당시는 큰스님 밑에서 불법의 진리를 깨우쳐 간다는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출가의 본지는 무상한 세상의 근본을 찾기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근본뜻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약력
- 1922년 4월 장성 生
- 1938년 백양사에서 법안스님을 은사로 득도
- 백양사 주지 역임
- 광주 정광학원 이사장 역임
- 現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영광 불갑사에 주석

"요즘 점집에 사람이 끓는다죠 그거 다 부질없는 짓 입니다 과보에 이자만 더 붙어요"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고 나무를 하여 노모를 모셨던 육조스님은 저자거리에 나무를 팔러갔다가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읽는중에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이라는 소리를 듣고 단번에 깨우쳤습니다.

우주의 근본을 깨우치는 것은 승속이 다르지 않아요. 육조스님이 홍인스님에게 가서 아직 머리깎은 스님도 아닌 행자로서 5조의 법인을 받는 경지야 말로 불보살의 화신 아니면 전생에 수행을 많이 쌓아 이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조 혜능스님을 본받으려 노력하며 큰스님 시봉을 하는데 만암스님이 어느날 '이뭐꼬'라는 화두를 내려 줬어요. 그리고 항상 물어봐요.

"내가 의심하는 물건이 있는데 이름과 뜻이 없다. 어둡기는 칠통보다도 어두워서 내다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어. '시심마' 그 놈이 무엇이냐? 어떤 놈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다가 금방 대답이 안나오면 "딱 머리에 떠올라야지, 안 떠오르면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호통하시곤 하셨습니다.

이런 호통을 듣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통 머리에 안 떠올랐어요. 밝기는 일월보다도 밝고 맛은 이상하게도 달다. 또 검기는 칠흑보다도 검다니 이것이 무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데, 보는데, 틈난데, 움직이는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데…, 에이 이상하다, 내버려야지, 잊어버려야지, 하면서도 그게 안되는 거예요. 만암스님께 5~6년간 경책을 받으며 공부했어요. 만암 큰스님 회상에서 살았던 그때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만암스님은 항상 겸손하시고 대중과 함께 수행했지요. 요즘도 젊은스님네들을 보면 자상하면서도 엄하게 지도해 주시던 만암스님이 생각납니다.

스님은 올곧으신 분이셨는데 수행은 물론 후세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셨지요. 민족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혜화전문학교 교장을 지내시고 광주에 정광중·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분은 사심이 없고 오직 '불교에 내몸을 바치겠다. 불교만이 살 길이다. 전인류가 불교사상을 가져야지 올바르게 살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教史料!

'97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 간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97년 한해를 총집결한
합본 '97년판을 발간합니다.



'97년 합본집

- 합본집('97년판) : 제109호(1997년. 1.1)-제156호(1997.12.24)
- 가 격 : 60,000원(발송비 별도)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代) 02)737-8881 팩스 : 02)737-0697

앞서가는 불자들의 필독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계간 '불교와 문화' 제4호(통권24호)



칼라화보1 /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불교 꽃문양의 세계

지상대담 / 불교방송 교리강좌 중계
박성배 교수에게 듣는다1
오늘을 사는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

특별기획 / 세계의 사상가
동서 사상의 가교자, **禪僧 토마스 머튼**

불교계 진단 / 사리신앙의 문제점과 대책
잘못된 사리신앙 행태 달라져야 한다

'97 청정운동 동참기
포커스 / 종교다원시대 특정 개인종교의 문제

칼라화보2 / 한국의 美 ❷
서민들의 삶을 해학으로 승화시킨 **장승**의 미학

생태탐사기
백두산의 식물 생태, 울릉도의 자연과 문화

특집/문화사대주의를 진단한다
우리의 모국은 어디인가, 표절과 문화사대주의,
문화사대주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방안

인터넷불교 / 세계불전 전산화의 현주소

인물포커스 / 불교역사인물재발견 시리즈
요승으로 몰린 개혁가, **신돈**

지상논쟁
신라불교계의 거목, **원효와 의상의 화엄관**

세계의 불교
1. 영혼의 땅, 티베트
2. 두 편의 영화로 이룬 불교의 미국화(?)

발굴 / 홍인표 거사의 엄불왕생법
성본 스님의 禪이야기
禪의 풍토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
불교계 주요행사일지

구독신청 및 문의
• 전화 : 02-719-1855, 전송 : 02-719-5052
※ 직접 은행에 입금하시면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송금계좌 : 국민은행 827-25-0006-047 외환은행 189-13-02685-0
우체국 012245-0090499-11 농 협 069-01-197161
지로번호 7630868 예금주 : (재) 대한불교진흥원

불교와 문화 정기구독 신청 Tel. 02 - 719 - 2606, Fax. 02 - 719 - 5052

큰스님 수행한담

뿌리 잘린 나무 같아요"

삼독때문에 '작심삼일' 입니다
마음 잘 닦아 근본정신 갖추면
어떤 결심이든 실행가능해요



◇94년 가을 영광 불갑사에 조계종 원로큰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지종스님.

수 있다' 이러시고는 '서로 남의 부모 내부모같이 받들고 부처님 자비사상으로 무장할 때 온인류가 구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가르치시니 전국각지 각처에서 스님의 가르침에 호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처음 시작과는 달리 잘못되어가고 있는 정화운동과 고답적인 종단의 운영 행태를 지적하시다가 81세에 입적하셨습니다. 만암스님은 열반 사흘전에 대중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고목이 쓰러져 군불을 때면 방이나 따습고, 괴석은 화단에 놓으면 경치나 좋고 하지만 늙은 몸뚱이는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 몸뚱이를 물에 집어넣으면 고기들의 밥이 되고 들에 놓으면 까마귀 밥이나 되련만 그렇게 하라고 해도 너희들이 하지않을 것이니 나죽거든 부고(訃告) 내지말고 사흘안에 간소하게 꼬실라 버려라"고 하셨습니다.

만암스님은 입적하시는 그날까지 흐트러짐없이 정정하셨는데 사흘동안 모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되니 목욕재계하시고 옷갈아 입으시더니 저녁공양을 드신후 저녁10시에 현 백양사 방장이신 서옹스님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의 종단진로가 걱정이다"며 "나 죽더라도 종단일에 관여하지말고 초연하게 수행하라" 이르시고는 차한잔 들고 "지금 몇시냐" 물어보셨어요. "11시 30분입니다" 하니 고개를 좌우로 돌리시더니 주무시려고 해서 스님들이 부축하려하니 이미 열반하신 뒤였어요. 스님은 장례비용에 보태라며 만환짜리 한장과 도장만을 남기셨습니다. 수행을 많이하신 스님들의 열반모습은 이렇습니다. 생사불이(生死不二)를 몸소 보여주시지요. 마치 헌옷을 벗듯 육신의 탈을 자유로이 벗어버리는 대자유인의 모습으로 후학들을 가르치십니다.

백양사 강원 2년 대교과를 마치고 선방으로 갔습니다. 수덕사였는데 만공스님 회상에 가서 동안거를 났어요. 그때 만공스님은 견성암밑 절벽에 움막을 치시고 계셨는데 아침에 문안인사 드리러 가서 법거량을 했습니다. 고암 전강 우화 필용 도광 도천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이 나주 다보선원에서 선방을 차리고 계시다고 해서 거기가서 3년을 보냈습니다.

사찰에 있더라도 절 중수하고 대중 이끄는 것에 연연하면 안됩니다. 그런일에 연연하다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이 주도하려 들거든요. 또 사판승 일은 시절인연을 잘 타고 나야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찰 주지하고 불사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 다 허송세월입니다. 가나 오나 자나 깨나 자기의 본래면목을 잃지 않는 수행이 스님들의 본분사 입니다.

요즘은 과학문명의 발달로 훨씬 살기는 좋아졌으나 정신은 말할 수 없이 퇴락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탄만 했지 퇴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안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뜻과 정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찾아주는 참사람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신령스럽기 그지없지요. 슬픈 것 보고 슬퍼하고 좋은 것 보고 좋아하고 나쁜 것보고 언짢아 하는 것, 남 죽는 것 보면 가슴 아프고 못사는 사람은 건져서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 미물과는 다른점 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살기좋은 이세상에서 근본을 잃고 금수같이 살고 있지나 않는지 우려가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근본마음을 곽잡고 인간답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세상 사람은 선생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본 받아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으로 모든 사람이 니의 선생님 이라는 거죠.

취하고 버릴줄 아는 것이 사람이지요. 항상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아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지요.

행주좌와 모두가 성불 향하는 수행처
개인 깨끗하면 세상은 저절로 청정국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집등 3독에 싸여서 무슨 결심이든 3일 가기가 어렵다는 게지요. 수양이 쌓여 근본정신을 갖추면 어떤 결심이든 실행이 가능합니다.

수양이라 하는 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없어요. 행주좌와 거기에 있는 것이지 테두리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이 정신 하나만 가지면 처처에 안락 뿐이지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 적고 외우더라도 그 정신이 없으면 사기지요. 즉 참행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불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든지 자기마음부터 정화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도 남도 이롭고 세계도 이롭게 하는 정진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야만 올바른 정화가 됩니다. 우선 개개인부터 정화가 되도록 해야 해요. 그러면 자연히 이 세상은 청정불국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극락이나 지옥이나 다 내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 중생도, 역적, 모리배도 마음에서 나오지요.

'자작자수(自作自受)'라. 내가 짓고 내가 받아요. 일체가 유심조이지요. 그것을 항상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아 수양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처처를 수행처로 삼고 정진 해야합니다.

어떤 불자들은 자기는 수행을 제대로 안하면서 스님네들에게만 의지합니다. 스님네들만 바라보지 말고 불교를 바로 보고 부처님을 바로보고 살아야지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자연히 내가 지은대로 받고 갑니다.

요즘 사회가 어수선하니까 점집이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해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래봤자 과보에 이자만 더 붙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일어났다 엎어졌다 하는 것은 다 전생에서 지은대로 받는 과보지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수행정진해 업을 녹여야지 왜 점집에 가서 누구에게 기대는 겁니까. 인간사가 왜 천차만별이냐, 이 근본바닥을 알아지요. 이 도리와 진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나와 경전 40

관음경



김 태 영
聞思修법회 법사

"실상 의심말라" 관음보살 증언 가득
부처님 가르침 믿고 깨닫는 普門

인연의 시작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군복무 시절, 별 생각없이 펼친 〈관음경(觀音經)〉이었다. 부시시한 눈을 찌를 듯이 다가온, "생각생각 의심치 말라(念念勿生疑)!"는 간곡한 말씀은 한껏 부정의 논리에 익숙해 있던 당시의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다. 철책이라는 엄연한 한계상황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모순을 느꼈기에, 솔직히 말해서 샘솟듯이 치미는 의심만 더해 갈 뿐이었다. 게다가 황당(?)하리 만치 엄청난 갖가지 성취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 대하다 보니, 이러다가 자칫 맹신의 길로 들어서면 어쩌나 하는 걱정마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에 대하여 부족하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한, 불만과 이에 따른 불안이 언제나 함께 하기 마련이다. 세상과 대립하고 있는 '나'를 중심에 두고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심치 말라는 절대적인 명제를 대하면서도, 내심에서는 전혀 의심의 자락을 거두지 않은 채로 만났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었다. 얄팍한 문자지식 정도로 어찌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나 있었겠는가? 거듭되는 수지독송(受持讀誦)의 결과는 너무도 엄청났다. 우리네 삶의 실상은 부족이 아닌 만족, 불행이 아닌 행복임을 드러내고 있는 위대한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관음경〉은 굳이 현상의 무의미성을 지적하는 우회적인 표현을 빌리지 않는다. 현세이익을 직설적으로 설한다. 욕망은 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니므로, 각자의 내면 깊숙히 자리하고 있는 욕망을 정면에서 응시하라고 한다. 아낌없이 내어 써야 할 생명력이므로, 참된 삶의 실상을 의심치 말고 누리고 살면 그뿐이라는 희망의 물결만이 넘실댄다.

원래 이 경전의 정식 이름은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으로, 〈묘법연화경〉의 총 28품중 제25품에 해당한다. 관세음보살이 갖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여 자비로써 중생을 구제하고 소원을 이루도록 설한 것으로 구마라집이 번역했다.

비록 하나의 품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지만,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간파한 옛 선지식들은 기꺼이 독립된 경전의 가치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경전의 흐름은 전(全)생명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관세음보살의 엄청난 능력에 대한 적나라한 증언으로 가득차 있다. 때문에 보문(普門)이 뜻하는 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열려 있는 구원의 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세음보살은 아득한 저 하늘 높은 곳에 자리하는 존재가 아니다. 다가 올 미래도 아니다. 괴로움을 싸안고 살아가는 중생들이 사는 바로 지금, 이곳에 항상 한다. 괴로워하는 당사자는 그 괴로움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소리마저 제대로 내지 못하지만, 관세음보살에게는 걸림없이 노니는 놀이터와 다르지 않기에 말이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을 석가모니부처님과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려는 시도는 당상에 불과하다. 부처님이 수행하신 내용 그대로가 관세음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실재하는 인물이 아니므로, 여자인가 남자인가를 따지려는 시도는 더 더욱이나 소용없는 짓이다. 어떤 형상을 갖고 있든 본래부터 관세음보살이 아닌 생명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만약 한량없는 백 천 만억의 중생들이 여러가지 고뇌를 당할 때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그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觀)하고는,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무진의(無盡意)보살에게 하신 다짐이다.

그럼 무진의란 누구인가? 다함이 없는 원대한 뜻을 품고도, 생각의 언저리에서만 맴도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름없다. 나름대로의 뜻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취가 되지 않는다고 관단될 때, 흔히들 괴롭다고 한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명호 즉 그 이름에 담긴 이름값을 자기화할 때, 자신의 괴로움은 온 곳 없이 사라진다. 관세음의 이름을 칭하는 것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수행과 깨달음을 믿는 것이고, 그 가르침에 의해 구원되고 있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 來 健 康 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지계 보살행 닦아 부처 이루오리"

조계종 '대승보살 52계위 포살법'

조계종 포교원은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법〉의 발간과 배포를 통해 기복불교를 수행불교로 전환함과 함께 포살법회의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대승보살 52계위 참회법〉으로 포살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신도들이 보살의 신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존의 〈범망경〉 중심의 포살계본과 포살참회법 순서 등에서 상이한 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승보살 52계위 참회법'에 나타난 52계위와 포살법회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52계위 포살참회법 순서

①정단청사(淨壇請師): 법단을 깨끗이 하고 참회사(아사리)를 청함.
②예경삼보(禮敬三寶): 삼보님께 공경 예배함.
③향화공양(香花供養): 향과 꽃으로써 공양함.
④명청성법(明請聖法): 성스러운 법을 드러내어 청함.
⑤청사참회(請師懺悔): 참회사(아사리)를 청하여 참회함.
⑥교발대원(敎發大願): 대서원을 발심하도록 가르침. 여기서 52계위를 문답함.
⑦계백작증(戒白作證): 제불보살께 증명해 주시길 고함.
⑧대회향(大回向): 일체 중생에게 포살의 공덕을 회향함.



◇출가승의 포살법회는 보름마다 한번씩 행해지는 것이 관례다. 조계종은 신도포살법회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조계종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소임자스님의 포살법회.

포살 참회사가 주장자를 들어 선상을 세 번 친 후, 다음과 같이 문답한다.

1. 불자야! 지금으로부터 미래제(未來際)의 몸이 다할 때까지 항상 청정한 믿음으로써, 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며 즐거움과 서원을 성취하는 보살의 마음(信心)을 지니겠느냐?

◇답: 예 지니겠습니다.(이하 답은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등으로 같음)

2. 항상 부처님을 생각(念佛)하고 가르침을 생각(念法)하고 교단에 화합(念僧)하며 계를 수지하고 항상 보시를 행하며 선업을 수행하는 보살의 마음(念心)을 지니겠느냐?

3. 끊임없는 노력으로 선업을 수행하는 보살의 마음(精進心)을 지니겠느냐?

4. 마음으로 하여금 집착을 놓아버리게 하며 능히 마음으로 고요히 안주하는 보살의 마음(定心)을 지니겠느냐?

5. 일체만상의 본성이 공적함을 깨달아 공의 이치를 아는 보살의 경지(慧心)에 이르겠느냐?

6. 계를 잘 받들어 지켜 6근의 행이 청정하도록 행하는 보살의 마음(戒心)을 지니며, 만약 계를 범하게 될 경우 참회하는 보살의 마음을 지니겠느냐?

7. 일체 선근 선업의 공덕을 일체중생들에게 베풀어 되돌리는 보리의 마음(回向心)을 지니겠느냐?

8.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려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보살의 마음(護法心)을 지니겠느냐?

9. 항시 불법에 의해 행하며 법을 위하여 네 몸과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능히 기쁘게 베풀 수 있는 보살의 마음(捨心)을 지니겠느냐?

10. 중생의 처지에 따라 사홍서원의 행원(行願)을 하는 보살의 마음(願心)을 지니겠느냐?

십신위의 마음으로 발심한 공덕은 거히 다 측량할 수 없나니, 만약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는 이와 같이 먼저 10가지 믿음(十信)의 마음을 내야 한다.

11. 여래의 광대한 불법에 의지하여 일체지를 구하고 보리심을 발하는 발심주(發心住)를 닦겠느냐?

12. 항상 심신이 청정하고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서 이익심 대비심 연민심 안락심 도사심(導師心) 등으로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는 치지주(治地住)를 닦겠느냐?

13. 일체만법의 진여실상을 증득하여 스스로 혜명을 밝히는 수행주(修行住)를 닦겠느냐?

14.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맑은 마음의 깊은 믿음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삼세의 일체법을 수행하며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평등함을 요달하여, 동체대비심을 내는 생귀주(生貴住)를 닦겠느냐?

15. 모든 선근을 닦아 일체중생들로 하여금 요익되게, 안락하게 하며, 또한 중생들로 하여금 정심(淨心)을 발하게 하여 열반을 증득하도록 교화하는 방편주(方便住)를 닦겠느냐?

16. 비록 타인으로부터 부처님에 대해 청찬의 말을 들거나 비방의 소리를 들어도 그 마음이 고요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이 정직함에 안주하는 정심주(正心住)를 닦겠느냐?

17. 항시 마음이 고요하여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불법에 안주하는 불퇴전의 보살 마음(不退住)을 닦겠는냐?

18. 삼업이 청정하여 한 티끌의 오염도 없고 순수하며, 중생계와 현상계에 대해 일체의 집착이 끊어진 청정한 보살의 마음인 동진주(童眞住)를 닦겠느냐?

19. 삼세지(三世智) 불법지(佛法智) 법계무애지(法界無碍智) 법계무변지(法界無邊智) 등등을 증득하는 관정주(灌頂住)를 닦겠느냐?

십주위의 행과 덕을 닦으면 그 공덕이 참다운 법과 마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현위(初賢位)의 문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21. 재시 법시 무애시 등의 대시주자가 되어 중생을 위하여 집착함이 없이 능히 희사를 행하며 명리를 구하지 않고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심과 존경심을 발하게 하는 환희행(歡喜行)을 하겠느냐?

22. 청정 계행으로 오욕에 물들지 않고 능히 마구니들을 조복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무상의 계행에 더불게 하고 요익되게 하는 요익행(饒益行)을 하겠느냐?

23. 인욕을 닦아서 겸허한 마음과 사랑스런 말로써 타인을 해치지 않고, 원수에 대해서도 능히 덕으로써 인욕할 수 있는 무애행(無瞋行)을 하겠느냐?

24.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구법도생(求法度生)의 서원을 끊임없이 행하는 무진행(無盡行)을 하겠느냐?

25. 항상 정념에 머물러 산란함이 없고 세출세간(世出世間)의 모든 법과 생사에 대해서도 일체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치란행(離痴亂行)을 하겠느냐?

26. 일체 유위법의 실상을 이해하고 깨달아 번뇌심을 여의고 삼업이 적멸해서 속박과 집착을 일으키지 않고 또한 일체 중생의 제도를 버리지 않는 선현행(善現行)을 하겠느냐?

27.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법을 구하고 중생들의 등불이 됨을 싫어하지 않고 법을 널리 행하는 무착행(無著行)을 하겠느냐?

28. 얻기 어려운 선근, 지혜 등의 법을 존중해서 모두 다 성취하고 자타이행(自他利行)을 행하는 존중행(尊重行)을 하겠느냐?

29. 사무애(事無碍) 다라니문 등의 선법(善慧法)을 얻어, 갖가지의 방편법으로 중생들을 요익하게 하고 능히 중생들의 감로수가 되며 중생들로 하여금 불법의 대해에 들게 하고 정법을 수호하며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는 선법행(善法行)을 하겠느냐?

30. 삼세제불의 진실어(眞實語)를 배워 언행이 일치하고 말과 행이 부합하며 순리에 삼업이 순응하는 진실행(眞實行)을 하겠느냐?

십행위의 행과 덕의 무량한 공덕은 중현위(中賢位)에 들어가는 문이니라.

31. 육도사섭등으로 대비평등심을 중생 구호의 근본자세로 하고 일체중생을 섭수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고를 여의고 열반락을 얻도록 중생을 구호(救護回向)하는 보살행을 하겠느냐?

32. 삼보에 대해 깊고 견고하고 파괴되지 않는 믿음을 얻어 이 선근을 중생들에게 돌려 선법의 이익을 얻게하는 불괴회향(不壞回向) 보살행을 하겠느냐?

33. 삼세제불의 경지를 배워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보리를 여의지 않으며 삼세제불의 비심(悲心)과 지혜를 구족하여 중생들에게 회향(等請佛回向)하겠느냐?

34. 닦은 바의 모든 선근공덕을 시방일체 삼보전에 공양 올리고 일체 세간의 중생전에 모든 이익이 되게 회향(至一切處回向)하겠느냐?

35. 일체 선근에 대한 과오를 참회하고 일체 선근에 따르는 마장을 멀리하며 모든 여래와 일체중생들의 선근을 모두 알고 기꺼이 따르며 이 선근 공덕을 모두 회향하여, 항상 일체 제불의 청정국토에 장엄과 불사를 하고, 일체 모든 망념을 여의고 무소유를 신념으로 무진공덕을 회향(無盡功德迴向)하겠느냐?

36. 안으로는 목숨과 밖으로는 자신의 의식까지도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아낌없는 대비심으로 모든 공덕을 회향(隨順一切衆生無違回向)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대지혜를 얻고 괴로움을 여의도록 하겠느냐?

37. 일체 모든 선근을 증장(增長)하고 일체 선근을 모두 닦아 모든 악취문(惡趣門)을 막고 모든 행에 있어서 집착하지 않으며,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일체 선근을 모두 회향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선근을 얻게(等心隨順一切衆生回向)하겠느냐?

38. 정혜를 성취하여 부동심에 안주하고 마음이 어느 대상에 의지하는 바가 없고 항상 한결 같이 일체평등법에 위배됨이 없이 국토를 장엄하고 닦은 바의 모든 선근을 진여평등무차별상에 따라서 중생을 제도(眞如相回向)하겠느냐?

39. 모든 탐착(貪著)을 여의고 해탈심을 얻음으로써 보현행을 행하고, 또한 일체법에 집착함도 없고 구속함도 없는 해탈심으로써 모든 중생들을 요익하게 회향(無著無縛解脫心回向)하겠느냐?

40. 더러움의 일체 번뇌를 다 없애 고 요한 마음의 빛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한 대법사로서 몽불수기를 받고 중생들에게 법보시를 베풀며 세간을 청정하게 장엄하고 회향함이 법계(法界無量回向)에 미치게 행하겠느냐?

십회향위의 행과 덕의 무량한 공덕은 상현위(上賢位)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얻어 성지위(聖地位)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41. 대비심(大悲心) 즉, 이익심(利益心) 유연심(柔軟心) 수순심(隨順心) 적정심(寂靜心) 조복심(調伏心) 적멸심(寂滅心) 겸하심(謙下心) 윤택심(潤澤心) 부동심(不動心) 불염심(不染心)을 믿음으로써, 세간사(世間事)의 구세(救世)를 보시바라밀다와 환희심으로, 출세간의 도를 성취한 제1지 보살위(歡喜位)인 환희지(歡喜地)를 행하겠느냐?

42. 청정계를 구족하여 아무리 미세하고 작은 번뇌로 인하여 범할 가벼운 계의 더러움 조차도 능히 멀리 떠나고 지계바라밀다를 원만히 성취한 제2지 보살위인 이구지(離垢地)를 행하겠느냐?

43. 수승한 정혜(定慧)와 수묘한 교법(敎法)을 성취하여 법(法), 의(義), 인(忍)등 총지(總持/dharani)를 얻어, 이로 인하여 법계에 지혜 광명의 빛을 비추는 인욕바라밀다를 성취한 제3지 보살위인 발광지(發光地)를 행하겠느냐?

44. 능히 일체 번뇌를 끊어버리고 최성보리법(最甚菩提法)을 증득하고, 지혜가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과 같도록 정진하여, 정진바라밀다를 성취한 제4지 보살위인 염혜지(焰慧地)를 행하겠느냐?

45. 속제(俗諦)의 분별지와 진제(眞諦)의 무분별지를 동시에 구족하여 진속(眞俗)의 지(智)가 서로 상응하며, 또한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는 자재의 지혜를 얻은 선정바라밀다를 성취한 제5지 보살위인 난승지(難勝地)를 행하겠느냐?

46. 12인연의 깊은 도리를 통달하고 무분별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혜(慧)의 계위로 반야바라밀다를 성취한 제6지 보살위인 현전지(現前地)를 행하겠느냐?

47. 무차별의 경등 무상관에 의해 상이 없는 구경의 도를 성취하고 방편바라밀다를 원만히 성취한 제7지 보살위인 원행지(遠行地)를 행하겠느냐?

48. 무분별지로써 끊임없이 깊고 심원한 정진과 심행(深行)을 하며 불이법에 안주하며 원바라밀다를 원만히 성취한 제8지 보살위인 부동지(不動地)를 행하겠느냐?

49. 승묘지혜(勝妙智慧)를 증득하고 미묘한 사무애해(事無碍解)를 성취하고 대법사로서 시방에 두루 무량선교방편(無量善巧方便)의 설법을 하며 력바라밀다를 성취한 제9지 보살위인 선혜지(善慧地)를 행하겠느냐?

50.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증득하여 실로 육계 색계 무색계 중생계 허공계 열반계 등을 모두 알며, 또한 불가사의해탈, 무장애해탈(無障碍解脫), 여래장해탈(如來藏解脫), 법계장해탈(法界藏解脫), 통달삼세해탈(通達三世解脫) 등등 지혜지를 모두 통달하여 지바라밀다를 성취한 제10지 보살위인 법운지(法雲地)를 행하겠느냐?

십지위의 행과 덕의 한량없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지를 얻어 십성위(十聖位)에 오르며 3지이상의 성위는 6욕천의 천주(天主) 혹은 천왕(天王)이 되느니라.

51. 우주만법 진리를 모두 깨달아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과 같은 깨달음을 얻도록(等覺位) 행하겠느냐?

등각위의 행과 덕의 한량없는 공덕은 대보리를 증득(證得)하여 일생보처보살(一生補處菩薩)이 되느니라.

52.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무상정 등정각(妙覺位)을 얻도록 행하겠느냐?

묘각위의 행과 덕의 무량한 공덕은 불종(佛種)을 얻어 불과위(佛果位)에 들어가는 문(門)이니라.

기복 탈피 자력수행으로 가는 나침반
십신·십행등 佛果位에 이르는길 제시

포살이란

대중앞에서 잘못 참회하는 의식

포살이란 교단 구성원의 생활이 실제로 계율에 입각하여 바르게 행해져서 청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한곳에 모여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참회하는 행사이다.

포살법회는 출가승에게는 보름마다 한번씩 즉 매월 15일과 30일(혹은 29일)에 행해지는 것이 관례이다. 이와는 달리 재가신도의 포살은 한 달에 6일 동안 만이라도 8재계를 지키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포살하는 방법은 동일 지역 내의 스님들이 포살당이나 혹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계율을 잘 아는 스님을 청하여 바라제목차 즉 계본(戒本)을 설하게 하고, 만약 스님 중에서 지난 보름간에 계율로 정해진 것을 범한 이가 있으면 대중 앞에서 고백한 후에 참회하는 것이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인하 하였습니다.



가격 인하 단행!!

● 외환 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연등조립용(8Cm, 10Cm) 조립용위에 연밥을 붙인 상태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0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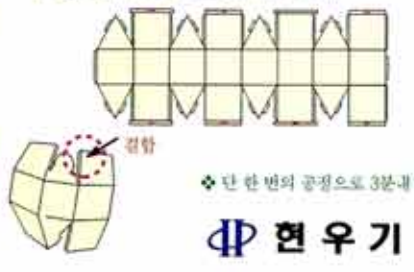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풀조 및 인쇄같지 합지 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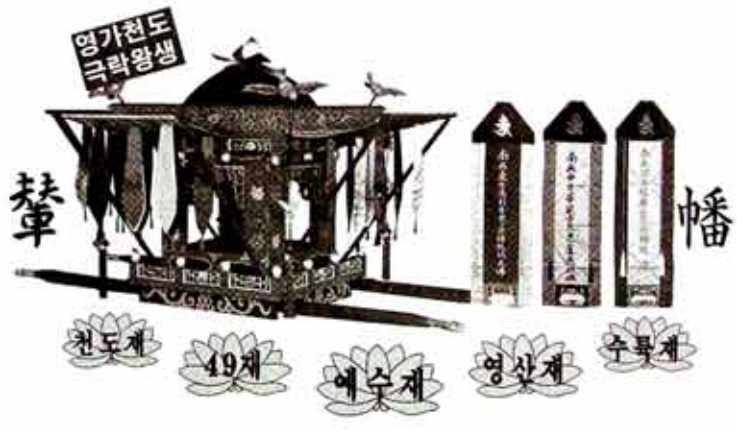


결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價格에도 佛心을 담고 싶습니다



이제는 가격 때문에 망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에도 佛心을 담아 불국정토를 이루고,
장엄 의식구에 혼을 담아 스님과의 인연을 이루어주는일—
저희 예성불미원이 侍奉에 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종합불사조성회사인 예성불미원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종합불사조성회사 暮暉佛美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文培洞 17-1 신화빌딩 3층
TEL:(02)704-5070(代) 704-8850

영업품목 : 고건축·대불·옥불·동불·특수불·석불·탱화·개금·단청·범당내부·사찰 홍보기획 및 출판대행

자녀의 최일선 교육자는 '부모'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16〉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불자로서의 부모

어릴 때 종교경험 성인되서도 영향 절에 갈 땐 꼭 자녀 데리고 가고 가정생활도 불교적 분위기로



그림 · 이준석

인간의 선천적 경향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는 마치 흙으로 그릇을 빚기 이전의 상태와 마찬가지이어서 둥글게 빚어서 구우면 둥근 그릇이 되고 네모지게 빚어서 구우면 네모진 그릇이 되는 것과 같다. 이때 어린이를 흙으로 비유하면 흙을 빚는 사람은 어린이를 둘러싼 인적 환경이다.

이 인적 환경 중 어린이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환경이다. 따라서 부모는 위대한 교육자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누구의 교육자인가? 바로 내 자녀의 교육자이다. 모든 부모들이 부모이면서 동시에 교육자라는 생각을 마음에 지니고 있으면 자녀는 건전하게 자랄 것이다.

따라서 어린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게 되는 '가정'은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교육의 장소이며 부모는 그 누구보다도 어린이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최강의 교육자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어린이를 야단치기에 앞서 부모 스스로가 반성하는 교육 태도가 요망된다.

"너는 왜 그렇게 정돈 할 줄 모르느냐"라고 야단치기에 앞서 부모는 혹시 내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가를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자녀의 교육은 부모 특히 긴 시간을 함께 지내는 어머니가 책임지고 해야 하며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다져야 한다.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것을 학교교사의 책임, 친척들의 책임, 이웃아이들의 책임이라고 전가하지 말아야 하며 바로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어머니들은 가져야 한다. 다음의 해학적인 글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

▲대학 교수 : 이와 같이 배우지 못한 학생이 있음은 창피한 노릇이다. 고등학교 시절의 준비가 부족함을 탓할 수밖에 없지!

▲고등학교 교사: 이 학생의 덜된 모습과 바보에는 두 손 반짝 들었다. 물론 중학교에서의 교육이 잘못된 탓이지!

▲중학교 교사: 내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학생을 위하여 있었는고! 초등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을 덮어 놓고 우리들에게 보냈을 따름이야!

▲초등학교 교사: 가정교육이 이렇게 없는 놈이 어디 있담. 어떤 여성이 이 애의 어머니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어머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이 자식아! 그러나 나는 너를 원망치 않는다. 너의 아버지편 식구들이란 모두 다 똑 같거든!

아이들은 부모행동 모방 가정은 중요한 교육장소

성격틀 6세이전 형성 다양한 경험하도록 배려

지적인 발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넓게 탐색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피아노학원, 속셈학원, 미술학원 등으로 매일 똑같은 환경에서만 생활을 하도록 하는 부모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인간 발달에 필요한 문화적 · 심리적 요인의 결핍으로 문화실조(文化失調)에 걸리기 쉽다. 문화실조에 걸리면 지적인 저하, 언어능력의 결핍, 부정적 사회적 태도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자녀에게 넓은 환경을 탐색하게 하여 각종의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

자녀들 앞에서 부모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동일시(同一視)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들의 모방 대상이 된다.

얼마 전에 이런 광경을 보았다. 건널목에서 있었던 일이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 지나가는 차는 한 대도 없었다. 이때 자녀의 손을 잡은 어머니가 차가 없으니 건너가자고 잡아 다니며 재촉하였다. 그러나 자녀는 막무가내로 빨간불이 켜졌으니 안된다고 버티고 있었다.

또 이런 광경을 목격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가 건널목에서 깃대를 들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친구가 그 어린이에게 물었다. "재미있니? 나도 내주에 당번이야." 이때 교통정리하던 어린이는 "재미없어. 어른들이 말을 안들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때 나는 교육자로서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때 체격이 크고 작음도, 지능이 좋고 나쁨도, 사회성이 많고 적음도, 정서가 풍부하거나 빈약함도 결국은 어릴 때의 가정교육에 의하여 상당부분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간 성격의 기본적인 틀은 6세 이전에 형성된다는 것이 성격심리학자들의 이론이다. 이 시기에 성격의 기초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는 재학습(再學習)에 불과하다고 한다. 물론 그 이후에 있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린시절에 형성된 성격에 변화가 오지만 그 변화도 기본적 성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몇 해전에 있었던 일이다. 필자가 초등학교(이북 소재) 동기 동창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이 때 10여명이 모였다. 이들 중 5~6명은 근 60년만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다. 이름은 물론 얼굴 기억조차 없었다. 저녁식사 때 옛날 학교 시절의 추억담이 벌어진 후 어렴풋이 2~3명을 상기할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까불던 친구는 나이가 70이 된 지금도 까부는(?) 경향이 있으며 말이 의젓하던 친구는 지금도 그와 같은 태도였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의 가정이 과연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들이 과연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치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불자의 대부분이 어릴 때 부모 또는 조부모를 따라서 절에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어릴 때의 종교적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동일 종교를 믿는다는 예언요인(豫言要因)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부모들 신심의 두터운 정도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선 일정한 절을 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부득이하면 이주일에 한 번은 절에 가되 반드시 자녀를 동반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날은 자녀의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한다. 맛이 있는 음식을 사 준다든지,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등으로 '절에 가는 날=즐거운 일이 있는 날'의 연결 고리를 만들도록 한다.

다음은 자녀에게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한다. 스님께 들은 법문을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불교는 어려워서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데 어찌 어린이들이 알 것이냐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어떤 어려운 내용도 어린이들의 개념과 사고 방식에 알맞도록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습원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가정을 불교적인 분위기로 조성하는 일이다. 짧은 시간이나마 하루도 거름 없이 참선, 독경, 염불, 108배 등을 하는 일이다. 그리고 불교와 관련있는 그림이나 글씨로 집안을 장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가정의 불교적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마음에 스며들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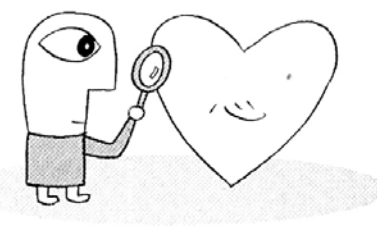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내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이 일에 관심이 깊다" "그건 좋은 관심사인데!"

관심이란 말은 이렇게 "마음을 둔다" "생각을 간직하고 대한다" 등으로 사용된다. 이럴 경우의 관심은 한자로 빗장관(關)자 관심(關心)을 말한다. 반면 관심에는 볼 관(觀)자를 사용한 관심(觀心)이 있다. 문자 그대로 "마음을 관찰하여 본다"를 관심(觀心)이라고 한다.

관심(關心)은 우리들이 생활해 가면서 먹고 잠자는 일만큼 있다가 없어지고 없었다가 생겨난다. 생활한다는 자체가 관심있는 것을 행하는 동작의 연속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관심에 따라 산다. 관심이 있는 일에 하루하루를 지내며 보람있는 생활을 한다고 흡족해하고, 관심도 없는 일에 정신력과 육체적 힘을 쏟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불평한다. 그 많은 관심사들 중에서 우리는 꼭 관심을 두어야 할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지낸다. 그것은 다름아닌 관심(觀心)하는 일이다. 남의 일에는 관심을 두면서 내 마음에 관해서는 관심(觀心)을 게을리 한다. 관심(觀心)은 관심(關心)과 달라서 매운 힘든 작업이다. 마음이란 것 그 자체의 규명도 어렵거니와 마음을 마음이라고 보는 그 마음도 역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觀心과 關心

觀心-내 마음을 관찰하여 본다
關心-생각을 간직하고 대한다

중국 선종(禪宗)의 제 2조인 혜가(慧可)스님이 스승 달마조사에게 관심(觀心)하는 방법을 물었다. 그에 대한 달마조사의 대답은 명료했다.

"마음을 본다는 일, 즉 관심(觀心)하는 것은 모든 것의 전부이고, 모든 행위 모든 변화의 근본이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마음을 알면 만행(萬行)을 다한 것이다.(觀心一法總攝諸行, 心萬法之本, 一切諸法, 唯心所生, 若能了心, 萬行具備)"

이 말대로라면 관심을 할 수 있으면 부처님과 만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감 · 로 · 심 · 장 · 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1600년 한국불교의 신비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비디오 출시
이름모를 산야에 흩어진 기와장 하나 돌뿌리 하나에서도
선조들의 지혜와 혼을 배우고자하는 사명감과
우리문화 바로세우기의 일념으로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고려대장경, 석굴암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선각자의 체취를 느끼시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교를 아는 당신에겐 21세기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삼보사찰
- 불보종찰 통도사
- 법보종찰 해인사
- 승보종찰 송광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고려대장경 Ⅰ, Ⅱ
-불국사·석굴암Ⅰ, Ⅱ
불교전통의식, 의례
- 예불
- 발우공양
불교전통문양
- 한국사찰의 꽃문
▲ 예불
깨달음과 중생구제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불교의식 장엄미의 백미인 예불의 전 과정 최초 공개
▲ 고려대장경 Ⅰ, Ⅱ
세계적인 문화유산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진실과 신앙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낸 본격 다큐멘터리 제1부 '대결집', 제2부 '7백년 보존의 신비'
◀ 석굴암
불교사상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석굴암 조성의 불교적 원형을 추적해 낸 역사추리극 형식의 본격 다큐멘터리
10개 1 SET ※카드결재 가능
대하다큐멘터리
티베트 불교
4년의 제작기간, 신비의 스펙타클
- 전 30부작 15개 (출시판매중)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처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3272-0781~5, 706-3502~5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읍니다.**

함께 나누는

불·자·정·보

◐ 불자정보 참여안내 ◑

홍보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732-1522(直), (02)737-8881(代)
■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건강 ●

한방암정보
02) 700-6366

승가 전통의 손맛…
온돌방 전통메주
(음식조리용 장군죽염)



▶ 재래콩 메주에 음식조리용 죽염으로 담근 죽염 된장 간장은 영양가득 약성이 풍부한 우공해식품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보리가족**
02)3141-1011/011-786-0817
· 온돌방 전통메주 소두1말(斗) 5개 값 39,000원
· 음식조리용 죽염 특별포장 5Kg(1) 값 35,000원

밀교 수행자
연락처 015-8487-3674
당뇨 · 간경화 · 비만관리
※ 3~7일간 치료 지도 ※
能仁 看病會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03-16
011-337-0353
02-809-1831

대보생식
02) 427-9162~3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수맥(水脈)을 바로 알면 건강해지고 집안이 흥해집니다!
● 공부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 매사 의욕이 없고 우환이 찾으시며
● 집안에 중풍이나 치매환자가 있다면… ※ 수맥상담 및 출장 탐사
실로암수맥연구회
02)362-8466/392-8621
FAX 02)392-8621
※ 수맥연구원 악간명 모집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0593)34-1115~6
012)598-1015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선착순 20명 모집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강좌 ●

철학의 길잡이
● 90분 녹음 (166회) ●
교재 4권 1117쪽 녹음
기초부터 격국 · 용신까지
이석영 선생님의 제자 단원 선생님 강의
대구 단원문화생. 단국철학
053)475-2746
012)753-2746 · 011)535-2746
※ 맞문이 트입니다.

삼 재
◑ 들어오는 삼재, 누울삼재, 날삼재, 혼히 말하는 삼재, 삼재, 삼재…
◑ 삼재의 원리와 화(흉)삼재, 복(길)삼재 - 60분짜리 3개
◑ 戊寅년 운세 - 60분짜리 3개
▶ 문의 : 철학의 길잡이 참조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02)583-0041(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자서기 힘든 시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월 4회 실시-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학 생 모 집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종무행정과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포교사, 법사, 유아지도자, 창작놀이사, 불음법회사,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소형버스 통학가능 3. 충북괴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4. 수업기간 2년
02)931-6075~6/0582)535-1987
(교육청 인가 57호)
만대교학대학원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 대 불 교 신 문
강 릉 지 사
0391)43-5599

전 워커힐 신라 피아니스트
PIANO 전문 LESSON
⊙ 찬불가
(찬불가곡 · 찬불가요 · 찬불동요)
⊙ Jazz Piano
⊙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자 3개월 완성(가요 · 팝송 · 가곡)
강남피아노 교습소
02)554-1512

혜주스님 戊寅년 특별상담
오대산 수도암에서 오랜동안 수행을 하면서 얻은 완전한 도력으로 불자님들의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민을 스님이 직접 상담하여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문제, 사업문제, 직장관계, 애정관계, 이사, 조상산소문제, 결혼관계, 이름고민 등 역학을 확실히 배우과고자 하시는 문하생을 모집합니다. ※특수교재와 테이프로 개인지도함.
'잠자는 者 깨어나고 일어난 者 뛰어라.'
문의전화 ▶ 051)441-6773
(부산역앞 국민은행 뒤 한방 빌냉면 건물 4층)
대 원 정 사
주지 혜 주 합장

선 강 좌
밝고 쉽게 가르칩니다.
그름환영, 생활속에서의 선, 삶속에서의 선, 길을 찾아 드립니다.
02)897-7731
016)340-4459(개인상담도 가능)
氣明妻子 地水火風

불교의식 학인 모집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함(초급반 · 중급반 · 고급반)
● 모집대상 : 스님, 법사, 포교사, 일반불자
● 각2개월씩, 매주 토요일 1시
● 각종단 관계없이 많이 참석바랍니다.
대구보광포교원 손 보 광 합장
053)557-1149

● 구인 · 구직 ●

함께 일하실 불자
노력과 성실로 고소득을 원하시는 분
정년퇴임 · 명퇴하신분
◆ 특전 : 교육비 40만원, 초기 1년 활동비 지원,장학 · 경조 · 육아수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화 02)959-8966~7
FAX. 02)959-8968

<u>불심있는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u>
영험기도도량으로서 주지스님과 동반이 되어서 가람불사 수호에 적극도움이 되어 주실분이면 만족합니다. 나이 48세에서 53세까지 신체 건강하시고 자비로움과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불기 2542년 무인년 새해
문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2리 산 50-4
고령산 도솔암
전화 : 0348)942-7703/호출 : 015)345-5158
도솔암 주지 경 성 조 합장

구 직
50대 독신 남자로서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처사겸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 면허이며 지방도 좋습니다.)
0351)41-1152 박 성훈
※ 주간에 전화 안받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오.

참선하는 스님과 함께
절에서 사실 분 또는 부부찾음
※ 경남 · 경북 남부 따뜻한 곳 절터 구함
053)815-7143
015)759-3034

사무장 구함
· 연령 : 30세~50세 미만
· 학력 : 고졸
· 면허 : 운전 1종 보통
0414)42-2057
중화사 주지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숭복 ●

대성승복
02) 739-6287

가람승복
02) 739-0080

● 인쇄 ●

한누리문화사
각종 고급인쇄
특수인쇄
명함, 스티커, 마스타, 옵셋
T. 02)275-2650
F. 02)268-7421

● 장의 ●

대한불교연화회
02) 732-9618

● 불교미술 ●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본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창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웅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貴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옥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옥공예품 일체
불사의전당 **불교조각원**
TEL: (02)738-8447~8

● 필방 ●

대흥당필방
02) 732-7326

대신당필방
02) 732-2830

● 학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기타 ●

도원불교수련원
지암정사(智庵精舍)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 0374-32-7464 FAX: 0374-33-7464

● 사찰안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전국무료전화직통:080)723-4082
광 진 불 사

◆위 치 : 서울특별시 경계지점
◆부 지 : 5,300평
◆건 물 : 전통목조 법당, 사무실(종무소), 요사채, 일주문, 관음전, 산신당, 미륵전, 진신사리탑 용궁, 종각, 북각, 연못
◆창 건 : 500년전 태종대왕 원년
◆가 액 : 25억(시세 절반도 안되는 가액임)
◆시 설 : 시설일체 무상 기증, 천년천 조성된 천신불상

◆특 징 : 전통 고창로서 송분천 천연약수 및 지하암반수, 관리한 교통환경(버스 지하철 현결), 남공당 및 영당금원의 최고요지로 관광사찰로 홍보가 이미 되어있고 대종단장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원하셨던 도량으로 500년 깊은 내력을 지닌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진 전통사찰.

동국불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 : 012)1648-6334
(24시간 호출중)
전국통용무료전화직통:080)512-4447
※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 사정상 다음 사찰을 양도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 연락바랍니다 ◆

◇ 위 치 : 경북 선산군 소재
◇ 법장식 암자, 승용차 진입 가능
◇ 부 지 : 750평(대지 200평 포함)
- 건물 50평, 창고 30평
◇ 가 격 : 1억 9천
◆ 사철 계곡에 물이 흐르고 주변 산세 좋음.

◇ 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소재 토굴
◇ 부지 :
답 2,000평, 가옥 1채
◇ 특기사항 :
기도토굴임.

◇ 위치 : 해인사 가야면 근처 암자
◇ 부지 : 대지 500평, 田 400평
◇ 법당, 요사채 : 2동
◇ 특기사항 :
- 경관수려, 승용차 진입가능.
◇ 양도금액 : 만나서 절충가능

◇ 위치 :
제천시내 유명사찰
◇ 건평 : 약 100평
바로 기도법회 가능
◇ 안내가 : 2억 5천.

◇ 비밀 절대 보장함.
◇ 신속한 상담전문
◇ 상담자 대기중
◇ 전화상담 환영!
좋은인연, 좋은기업
동양투자컨설팅
대표전화
053)755-6498
053)744-1713

◇ 위 치 : 경남 경북 경계선, 해인사 길목임(승용차 15분거리)
◇ 평 수 : 대지 약 800평, 전답 1,800평 합 2,800평
◇ 법 당 : 내부 36평(현 전불 접수중)
◇ 요사채 : 방1칸, 8평×4개 - 합 24평(자연석 돌로 만든 전물)
◇ 양로복지회관 : 건평168평×2층 합 336평(방 30개,샤워실,수세식 화장실,주방,수위실,식당)
◇ 건 물 구 조 : 완전 현대식및 옛전물식 태양열기및 기름보일러 설치
◇ 불사예정지 : 납골당 800평
◇ 매 매 가 액 : 13억 5천만원(일체의 건물은 97년 10월경 준공검사 완료)
◇ 현재 복지회관 입주 모집중
1인당 3천~4천만원 예상(특히 주위의 가야대학 건립 98년 2월부터초기 입학하므로 학생 1인당 월 40만원, 수용인원 65명까지, 수려한 경관, 포장도로 주차장, 연못도 있음, 복지회관과 대법당 사이에 구름다리 설치)
부산 051)331-3084(주지스님) 본찰 0543)955-1379(총무스님)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 3동
◇ 대지 : 시유지 1,200평
- 법당 13평, 방4칸, 입실부엌, 목욕탕, 거실, 창고2, 화장실1, 대형 주차장 · 우물샘 있음.
◇ 가격 : 8천만원
032)422-5739

◆ 암 자 터 ◆
◇ 위 치 : 울산시 울주구 두서면
◇ 평 수 : 1,100평(닦아논 터 2,000평) 하천부지 포함.
◇ 조 경 :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
◆ 사철나무 심어져 있음. 차량진입 가능
◇ 가 격 : 2억 5천만원(급매)
011)834-8557
051)863-0202

◆ 암 자 터 ◆
◇ 위 치 : 울산시 울주구 두서면
◇ 평 수 : 1,100평(닦아논 터 2,000평) 하천부지 포함.
◇ 조 경 :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
◆ 사철나무 심어져 있음. 차량진입 가능
◇ 가 격 : 2억 5천만원(급매)
011)834-8557
051)863-0202

◇ 대구시내 포교원 20평 주택
◇ 사정상 급구함
◇ 법당 시설 완비.
◇ 가 격 : 보증금 500만, 월 20만원
◆ 여스님 환영.
053)653-4896
053)814-9325

◇ 위 치 : 북한산(서울시내)
◇ 임야 사용권 3,000평
-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 주지실, 요사, 석굴
◇ 계곡과 기암괴석, 고목나무들.
◇ 서울시내 조망 가능
◇ 가 격 : 7억원정
주 직 : 02)512-3092

◇ 위 치 : 부산시 금정구 서4동 190-20 시장입구 최고요지- 백담사 포교원
◇ 건 물 : 3층 25평
- 법당, 주방1, 방1, 욕실, 화장실1
◇ 가 격 : 보증금 1,500만원, 월 15만원
◇ 후불평화, 신중평화 무료로 드림
051)524-7224
012)956-7879

◇ 위 치 : 김천(평당 삼만)
◇ 물좋고 산세좋은 사찰 기도원터(현재 농장)
◇ 평 수 : 전 6,000평, 그외 2,000평
◇ 싸게 팝니다.
◇ 가 격 : 분할가능
0547)33-4609

◇ 위치 : 경북 김천시(전설이 있는곳) 제곡좋은 기도처
◇ 대지 : 580평(반듯한 사각형)
◇ 대웅전및 요사채 지을 터 정리되어 있음.
◇ 건물 : 28평(현재 임빙당회 방2개, 부엌1개)
◇ 기타건물 : 삼성각, 화장실, 차고
◇ 가격 : 1억 7천만원
◆ 일반인도 환영함 (가든이나 별장으로 사용하면 적합하며 무속인의 집으로도 더없이 좋은 위치, 담사하실분만 전화바람)
0547)437-4135~6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평수 : 50평
◇ 가격 : 보증금 3천만원(월 50만)
02)242-6187

◇ 위치 : 경남 진해시
◇ 평수 : - 법당 15평
- 방2개 및 다락 1개
- 옥상 30평 사용
◇ 3존불 및 시설 완벽
◇ 부엌, 목욕탕, 주방시설 완벽
◇ 보증금 :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약간(절충요함)
◆ 경남 진해시 중앙시장 내 최고요지.
0551)23-9407~8

◇ 위치 : 마산시
◇ 평수 : - 대지 200평
- 전답 430평 - 합 630평
◇ 법당 : 17평(단층스레이트 건물)
◇ 요사 : 20평(방 3칸)
◇ 삼성각 : 5평(완전목조 단층)
◇ 지하수 200M(전기시설 : 농사용 전기사용)
◆ 사찰마당까지 주차함.
◇ 양도금액 : 2억 2천(가격 절충가능)
011)563-0108(주지 직접)
0551)21-5737

◆ 도심 포교당 하실분
◇ 위치 : 서울 송파구 잠실(석촌호수부근대로변)
◇ 평수 : 4층건물에 4층(옥상사용가)
- 법당 40평
◇ 가격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
◆ 사정상 급매합니다.
011)833-1712
011)301-1711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밖에서 찾으면 '일체개공' 알 수 없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활이 바로 교재이며 공부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라는 것은 생활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 주인공의 줄을 잡고 가고 있는데 그 줄은 근본이기 때문에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산을 타고 바위를 올라가는데 줄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도 본래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을 잡지 않으면 언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줄은 잘 나고 높은 사람에게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줄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잘났든 못났든, 하다 못해 물에서 노는 고기들도 생명이

우리가 공부를 하다보면 몸은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체가 없어서 내 것도 없고 나라고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본래 있는 것을 찾을 것도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이치를 아신다면 체가 없는 나는 물에도 빠지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습니다. 설사 지옥을 간다 하더라도 들이 아닌 까닭에 오히려 건지게 되죠. 이런 것을 살아 생전에 다 알아야만 죽어서도 제 길을 자유롭게 찾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그냥 보살로서 행해 나갈 수도 있고 말입니다. 또는 상세계의 부처님 도량에 한마음으로 합해줄 수도 있구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욕심·집착에 매여 있어요 벗어나 보세요 시원합니다"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불성이 있으니 불교라고 했죠. 그리고 풀 한 포기만 살아있어도 불교이며 지금 살아가는 것, 즉 사람들이 살고 죽고 하는 생활이 전부 그대로 그냥 불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는 내가 공했다는 걸 알고, 내 몸속에 있는 전체 생명들도 다 공해서 한 개체로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개체로 사는 나가 없다면 상대가 전부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바로 자기 뿌리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줄타기에서 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줄을 잡지 않고, 또 잡는 것도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을 잘하라, 믿어라.' 이렇게만 나간다면 언덕 위의 맛을 못보고 항상 심부름꾼 노릇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처를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하고 바깥에서 찾는다면 모든 것이 공하다는 사실도 영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꼭 자기 내면으로 관해서, 모두가 공한 줄 알고, 나조차도 공해서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 많은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했을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부처라고 그러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도리를 모르고 죽는다면 지옥고에는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환상을 보고 무서워하니까요. 자기가 체가 없는 줄도 모르고, 관습과 욕심 착,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첫 단계에 지옥고를 건너지 못하면 두 번째 단계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세 번째 불기둥은 더더욱 건너지 못합니다. 지옥고에서는 거기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무서워서 건너지 못하고, 강에서는 체가 있는 줄 알고 빠져 죽을까봐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가들은 오백생을 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음은 체가 없다는 소리를 한번이라도 들어봤더라면 배를 기다리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서 찰나에 넘을 것을, 그걸 몰라서 없는 배를 기다리니 그 기막힌 노릇을 어찌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불기둥은, 지금 이 허공에도 에너지가 있으니 그 불은 뜨겁지 않은 불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살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이 발동하면 불에 타 죽을까봐 불기둥을 넘지를 못합니다. 이·모든 것을 볼 때 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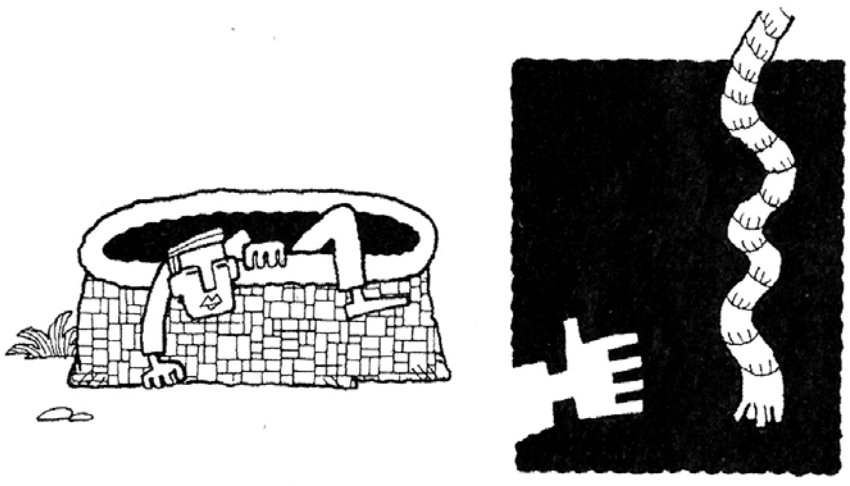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에게 저 언덕도 있고 이 언덕도 있어" "우물에 빠졌으니 자기가 빠져 나와야"

습니까? 다 현재의식으로 마음이 고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빛보다 빠르고 체가 없어 뜨겁고 아프고 걸리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마음에서 먼저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한가.

우리가 흔히 '피안의 언덕' 이란 말을 쓰는데 '저 언덕이다' 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런데 저 언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모르겠다. 이건 내가 못하지. 여기에는 정말 물질세계에서 정신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라고 모른다 할 때 그게 도예요. 모르는 게 진짜 도라니까요. 아는 자리가 끊어진 그 자리요, 저 언덕이 뭐 나를 떠나서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나에게 저 언덕도 있고 이 언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공부할 때는 오로지 내 근본의 줄만 믿고 그 줄을 잡고 가야할텐데 옆에서 무슨 소릴 하면 금방 거기에 솔깃해집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화해서 나툰다 하더라도 둘이 아니게 보고, 거기서만이 에너지를 배출하니 그 자리에서 나오는 작용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았을 때 알아야지 죽은 뒤에 알 수는 없습니다. 살아서는 부딪치니까 부딪치는 아픔을 알고 슬기로운 지혜를 알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죽게 되면 더하고 덜함도 없어요, 체가 없기 때문에. 경험을 쌓고 고쳐나가고 물리가 터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체가 없단 말입니다. 이 몸 떨어지면 공부할 수 없어요. 정신계만 있고 체가 없어도 아니되고 체만 있고 정신계가 없어도 아니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 동안에 마음이 '아, 이젠 가도 넉넉하겠구나! 이젠 내 몸이 옷을 벗어도 괜찮겠구나!' 할 때, 자동적으로 차원과 지위가 주어져요. 자기가 산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으면 가고, 조금 더 있으려면 더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 삶이 보람이 있고 적어도 허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공부를 아니하고 기복으로만 '몸을 닦아라' 한다면 본래 자리가 닦을 것도 없는데 그건 닦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정물과 깨끗한 물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도 없고, 없는 데서

"자신은 자기를 돕게 돼 있어요 그러니 자신을 믿어야죠"

지금 한발 한발 딛고 가고 있으며 그 딛고 가는 것마저도 공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진리가 본래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니 내가 말을 자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자부처이자 제불인데도 말입니다. 자부처를 알면, 제불이라는 것은 모두를 한데 합친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을 하고 가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서 그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뒤에서 철퇴가 들어오니 알겠습니까? 방망이가 들어오니 알겠습니까? 또 인연으로 인해서 원수가 나를 치러 들어오니 알겠습니까? 길을 지나다닐 때도 무명 영가들이 덤비는 것도 알 수 없죠. 이런 것 전부가 절대 '우연히'도 없을뿐더러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데서 오는 그 인연이 자기한테 찰나찰나 질서정연하게 오죠. 그러나 그것이 모두 내 안에서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관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참나의 근본 불성은 바로 벌성입니다. 그 벌성은 '자신'이며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56)

내가 보살이 되면 누구라도 보살이 된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꽃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가지 않는데 상대가 응해서 나를 받아 주겠는가.
내가 지극하게, 사무치도록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상응하는 것은 물과 물을 섞는 것과 같다.

상대가 하찮아 보이고 못나 보이고 밉게 여겨질 때에는 '저것이 바로 내가 몰랐던 시절의, 못났던 시절의 내 모습이지!' 하고 한생각을 돌려 보라. 수억겁 진화의 과정에서 나라고 하여 어찌 고상한 길만 걸어왔겠는가.
온갖 모습을 다 해보았을 것이니 상대가 비록 하찮게 보인다 하여 '너는 아니다' 라고 버릴 수 있겠는가."

물에 물을 섞듯이 상대와 하나가 되려 하거든 먼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문을 열지 않고서는 상대가 내게로 올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다. 이른바 열린 마음이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수용할 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줄때, 상대의 말을 경청할 때 비로소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반대로 내가 내 주장을 고집할 때, 상대방을 꾸짖거나 그에게 강요할 때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다. 거기엔 강요된 순응이나 복종이 있을 뿐 물과 물이 섞이듯이 동조, 공감, 융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수용하는 것은 부화뇌동하는 일도 아니고 비겁한 일도 아니다. 그것은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의 수순일 뿐이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도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격의없는 대화가 가능해지고 대화가 가능해져야 공감대를 넓힐 수 있으며 공감대가 넓여져가 둘이 하나되는 동조(同調)가 이뤄지는 것이다. 고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무주상보시의 첫걸음이 된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 식물이나 동물이라도 같다. 내가 그의 속으로 들어가야 그도 내가 된다.
내 몸 속에 들어온 것은 들어오는 순간에 내 몸의 일부가 되듯이 내가 그의 속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에 나



는 그의 일부가 된다. 고로 그도 나의 한 부분이 된다. 마음과 마음이 섞인다면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가 그이겠는가. 그냥 한마음인 것이다.

내가 보살이면 남도 보살이다. 내가 나의 고정관념, 아상, 아만 따위를 훌훌 털어버리게 된다면 남도 내 앞에서는 절로 그렇게 된다. 내가 상대를 진정으로, 사무치게 사랑한다면 상대도 절로 그렇게 된다. 내 마음이 항상 자비관으로 홀러 넘치면 상대도 절로 자비심을 갖게 된다. 고로 내가 보살이어야 상대도 보살이 된다. 내가 야차(夜叉)같은 마음이면 상대도 내 앞에선 야차로 변한다.

내 탓이다. 내가 사랑 받기를 바라는데 상대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탓이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탓이다. 내가 내 뜻대로 풀려나가기를 바라는데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내 탓이다. 고로 사랑받고 싶으면 받고 싶은 만큼 사랑해야 한다. 고로 대접받고 싶으면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상대를 대접해야 한다.

나는 예외요 남만 그러기를 바란다면 아마 그처럼 지독한 이기심도 없을 것이다.
한편 나는 할만큼 했는데 상대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변명이요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그것은 내 탓이 싫고 남의 탓이 편하다는 자기 도피요 자기위안일 뿐이다. 그것은 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나의 대접이 나를 위한 대접이었다는 반증(反證)에 불과하다. 내가 나를 비우고, 버리고 사랑을 하면 물과 물이 섞이듯이 마음은 상응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마음 법칙이다.

상대가 사랑 받을 짓을 안하고 대접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도 실은 이기적인 생각이다. 상대를 내 고정관념의 틀에 맞추려는 아만일 뿐이다. 고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 얼른 한 생각으로 돌려야 한다. '언젠가는 나도 그와 같을 때가 있었지!', '나 또한 몰랐을 때는 그랬지!' 하고 돌려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내가 보살이면 남도 보살이 된다.

협찬 : 윤태섭 김미숙 윤지선 윤현성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가 부처' 믿으면 불성이 '나' 이끌어

☞ 17면에서 계속

지극 여기있는 것은 '나'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기를 돕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 되죠.

그리고 천도에 대해 얘기하겠는데 '천도는 했는데 왜 또 하라고 그러나?'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차원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 따라 길에서 만나도 금방 천도가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인과성이나 유전성, 혹은 세균성, 업보성 이런 인연으로 매여 있을때는 그게 한고비 한고비 이렇게 풀려 나가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을 다 묵살하고 한번을 해도 '천도가 아주 제대로 됐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되는 것이죠. 삼천 년의 업이 있다 해도 삼천년전을 지금 현재의 찰나로, 현재도 그쪽 찰나로 하나로 묶어주면 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두가 한생각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내가 요즘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 부처님 법을 가르친다고 사성제니 육바라밀이니 뭐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거기에 매달려서 스스로 속박을 해서 그냥 밀치고 들어갈 수가 없이 돼요. 이거는 누구 가르침에 의해서 깨우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쳐서 깨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가 우물에 빠졌다면 우물에 빠진 대로 자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누가 건져주고 거들어 주는 게 없단 말이예요. 이 자성의 근본 자리의 구멍이 우물과 같아서 우물 안에 본래 빠져있으니 우물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본인에게 달려 있다 이 소리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보는 것도 심안으로 보고, 듣는 것도 심안으로 듣고, 가고 오는 것도 심안으로 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제각기 불성이 있어서 여여한 줄 알고,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알고, 만법을 들이고 내도 손색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런 차원이 돼야 강에서 사는 고기들도 건질 수 있고, 그것의 무명을 벗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작은 미생물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부처님 모습과 둘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가는 것이 그대로 조상들과 무명 영가들을 다 건질 수 있는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그것 뿐만은 아니죠. 사람 마음의 차원은 단계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으면 부처라고 하고, 생각을 했으면 법신이라고 하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신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 삼 단계가 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더럽고 깨끗한 것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선하고 악한 것도 한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구요.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죽을 병이라고 진단이 나더라도 '응, 내 참나의 줄이 있잖아.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네가 심부름을 해서 건강하게 해야지' 이러면 통신이 될텐데, 마음이 이미 죽어서 '아이고, 죽었구나! 인제 얼마 살지 못하겠지.' 하고 아주 마음이 흐트러져서 탁 풀어져 버리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내 몸속에 든 생명체들도 확 풀어지죠. 작용해 주는 생명체들도 다 그냥 혼돈을 해서 순식간에 변해 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가 그대로 부처님 말씀이고 그대로 부처님 법이며 그대로 우리들의 법입니다. 부처와 중생도 이 백지장 하나 사이입니다. '깨우쳐야지, 깨우치질 못했으니까 중생이지' 또는, '내가 깨우쳐야 될 텐데 중생이라 깨우치지 못한다.' 는 생각 때문에 한계단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래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성이 곧 자부처니까 자부처도 자기한테 있으며 중생이라는 육체도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육체 하고 정신 하고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둘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진리가 지금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 봤을 때 내가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보는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떤 거는 내가 듣고 어떤 거는 내가 안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곧 불성이니까 나는 그 불성을 믿고 의지하면 그 불성은 나를 리드해가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그냥 내가 부처라는 것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은 고등동물로서 갖추어 가지고 본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갖추어진 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들이고 내면서 여여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더딘가, 깨우치지 못했다, 중생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쓰는 차원이 이미 저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그 자리에 놓고 슬기롭게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한번 보세요.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알면 그대로 부처예요.

지금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깨우쳐서 벌성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가는 사람과 둘째는 깨우치진 못했어도 주인공의 줄을 믿고 열심히 잡고 가는 사람, 셋째는 그것도 못 쥐고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차이도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구정물이 들어오는 것도 그 자리, 새 물이 들어오는 것도 그 자리, 파도가 이는 것도 그 자리, 바람이 자서 물이 자는 것도 그 자리, 죽는 것도 그 자리, 사는 것도 그 자리, 밥먹는 것도 그 자리, 똥누는 것도 그 자리, 잠자는 것도 그 자리. 매사가 그러한데 달리 '내가 잤다' 할 게 없죠? 매일 자는 거니까. 그리고 본 것도 '내가 봤다' 할 수가 없죠? 듣는 것도 '내가 들었다' 할 수가 없죠? 가정에서 항상 만나는 사람도 매일 만나기 때문에 '만났다' 할 수가 없죠. 자연적으로 그냥 넘어가죠. 내가 했다, 내가 만났다, 너가 갔다, 내가 살고 있다 이런 게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할 때마다 생각들을 하고 넘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여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아이구, 이거 얼마만이 야?" 하고 그냥 반가워하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돌이 아니니까 만나야겠다.' 이러고 따져서 만납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이죠. 자동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팔만대장경을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법을 해주시고 역대 조사님들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스스로가 항상 중생이라고 무시하고 팔자 운명에 끄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그 말씀하시는 뜻을 넘을 줄 몰라요.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었더니 가섭이 웃었다고 그랬죠. 혹시 '왜 웃는 것이 꽃이냐?'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꽃도, 사람의 얼굴도, 웃는 것도 마음을 둘 아니게 내면 다 꽃이 되죠.

우리는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형성되고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또는 형제가 되고 이렇게 반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미생물조차 자기 몸 아닌 게 없고 자기 아픔 아닌 게 없고 자기 생명 아닌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거듭거듭 바뀌면서 여기까지 올라 온 이치를 아신다면 부처님께서 둘 아니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신 그 뜻을 아실 겁니다. 그렇게 내가 미생물이었다가 또 짐승도 되고 또 인간으로서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고등동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두에게 다 자부처가 있습니다. 자부처를 알아야 일체제불의 그 마음을 한마음으로써 다 싸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줄을 아주 철저하게 쥐고 가는 사람은, 진리가 돌아가는 이치를 즉 공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진짜 한다면 위로는 조상이요, 아래로는 자녀들이 그만큼 그 한도량 한마음 속에 들어서 모두가 출중하게 되죠. 그 인연으로 인해서 아래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 근기를 받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공부를 할 때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로 보지 말라.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 네가 좀 섭섭하더라도 남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 부부지간도 잘못된 게 있으면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한테 관하라' 이렇게 일러준 말을 한번이라도 잘 관한다면 그 사람이 백 년을 살면서 기복으로 믿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전에 내가 산으로 다닐 때 얘기하나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산소옆에서 옷을 빨아입고 앉았으려니 옷이고 몸이고 막 얼어요. 그런데 멀리 초가집에서 불빛이 보이더라구요. 옛날 같으면 축지법을 써서 갈 수도 있었겠지만 부처님의 정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몸을 감춘다거나 혹은 몸을 붕 뜨게 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따위는 부처님법을 한 데로 떨어지게 할 뿐이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로케트가 올라가는 세상에 축지법이 무슨 소용이랴. 마음은 체가 없으니 네가 가는 게 빠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그 집에 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온기가 생겨서 몸을 녹이고 나왔죠. 이 법이 이렇게 좋은 법이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가 자신을 찾으면 바로 통신이 직결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극락에 가든 안가든, 또 도리천으로 행하는 일이 되든 안되든, 이거는 전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갖지 마세요. 어떤게 닥치더라도 대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굴 믿겠어요?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있나, 대신 아파주는 사람이 있나, 대신 죽어주나, 대신 먹어주나, 대신 배불러주나, 뭐 잠을 자주나, 똥을 눠주나. 한가지도 대신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지 누굴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생각 사이에 우주 삼라대천세계를 찰나에 돌고 있고 특히 사람의 경우는 도는 횟수가 말로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자신'을 찾으면 원심이 되는 겁니다. 내마음 하나에 코드가 촘촘히 끼어져 있어요. 그건 천차만별의 법으로 나가는 길이죠. 그러니 한 코드에서 필요한대로 나투게 되니 아프면 의사가 되어주고 죽으면 지장보살이 되어주고 가난할 때는 관세음보살로 나투게 되죠. 이렇듯이 각각의 소임들이 한코드에 다 연결이 돼있으니 내가 진실로 믿고 끌어다 쓰면 된다 이 소립니다.

몸이 아프면 '주인공,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고 가난하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 살게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고 관하게 되면 그게 바로 코드에 연결하는 거거든요. 자기 앞에 닥치는 모든 일을 용도에 따라 관해주면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듯 모두 나가서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원자로 다시 집중을 하는 겁요. 이 허공에도 생명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 거지 생명이 없다면 무슨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지장보살님이 그러셨다죠. '중생을 다 제도하는 날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하고요. 그리고는 문고리를 잡고서 아무리 끝나기를 기다려도 끝이 나지 않더래요. 먼저 간 사람은 또 돌아서 오고 금방 젖떨어진 사람은 계속 올라오고 이러니 뭐 끝날 사이가 없죠. 그걸 보고서 지장보살님이 '끝없는 진리가 이것이로구나. 우리 사는 진리가 바로 돌고 도는 이것이로구나.' 하고 느끼셨답니다. 어떻습니까? 진리는 끝없이 들고 나며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들고 난다는 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영원하죠.

어떤 분들은 비구니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해? 하시겠지만 모습이야 비구 비구니가 있지만 그 불성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때 여든 살 먹은 비구니는 다섯 살 먹은 사미한테도 절을 하라고 하셨지만 그것도 그 시대에 맞는 방편이었을 뿐 시대가 변천하면 방편도 바뀌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분이 높은 왕족에서 출가한 비구니들이었기에 아만이 높아서 그런 방편을 안 쓸 수가 없었거든요. 작은 미물이라도 불성이야 다 있지만 각자 살아온 마음 차원에 따라 모습만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하는데는 모습이나 말에 걸려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부끼리 괴롭히며 살아요

문 스님,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26년이 되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괴롭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 행동에 대해 의심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도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심할 때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나지 않는다는 걸 이젠 알겠습니다. 서로가 미워하면서도 이상한건 또 옆에 없으면 찾아서라도 싸워야 하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무슨 인연으로 이런 부부인연을 맺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답 아주 간단해요. 사랑은 주는 것이지 끌어 잡아당기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라고 하죠. 자기가 없었다면 남편도 없고 부인도 없고 다 없어요! 모두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하든 못하든 자기 탓으로 돌려놓으세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묶어놔 보세요. 더 끊고 나갈려고 앨 쓰죠. 그냥 확 풀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할텐데 말이죠. 그러니 따뜻하게 그냥 다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집착하고 상상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가 똑같이 그러란 말이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은 '이것도 다 내 탓이야. 주인공, 너만이 저 사람 그렇지 않게 해!' 하고 관하시고, 자유를 주고, 또 부인도 마찬가지로 관하세요. 주인공이 들이 아닌 까닭에 어디를 가서 뭘 행해도 그냥 주인공에서 알아지고 주인공에서 자동적으로 다루어 쥐요. 다스려 준단 말이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가 말로 행동으로 온통 불잡을려고만 하니 불잡아지나요, 그게?

세상살이 모든 게 우연히는 없어요. 이 세상에 금은 금방에 모이고 넝마는 넝마전에 모이고 무쇠는 무쇠전에 모여요. 그거를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누구의 잘못이 더하고 덜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하, 이것도 내 탓이고 저것도 내 탓이로구나!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무엇이 걸림이 있고 무엇이 상대가 있으랴!' 하고 그냥 거기다 놓으라고 지금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는 '미운 것도 이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밉지 않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되돌려서 입력을 하세요. 그래야만 그 입력 들어간 대로 다시 나오죠.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요, 부디 화목하게 잘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세생생을 돌게 되니까요. 열심히 관하시면서 노력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필요한 이치를 얘기했으니까 그대로만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 다음에 돌아가셔도 9대 손주까지도 다 보살필 수 있습니다. 9대라고 해서 그게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지 마세요. 하나가 전체니까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자연적으로 터득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지금 걱정인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정신계가 항상 빠지고 들아가거든요. 정신계가 빠지고 돌아가니까 참선을 해도 '이게 뭣고? 이 몸뚱이가 뭣고?' 하고 몸뚱이가 화두를 한단 말이예요.

몸뚱이가 나로 인해서, 바로 내 자신으로 인해서 형성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현시대를 그저 자꾸 넘어갈 수밖엔 없죠. 걸림이 없이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뭣고?' 한다면 이건 몇천년 전에 '이게 뭣고?' 한 것과 지금 '이게 뭣고?' 한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죠. 발전도 없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줄 잡고 올라가는 거 있죠. 아무리 천야만야 높은데라도 그 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줄이 바로 우리의 자성불 그 줄이예요. 그리고 오늘은 천도에 대해 얘기했는데 천도는 극한 정성으로 특히 이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밝아지면 한 찰나에 다 밝아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여하게 사는 생활 속에서 한 생각 사이에 어떠한 것도 걸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림 · 최주현

"물질과 정신 둘로 보지말고
남 아프게 하지말며
자기 탓으로 돌리고 관하세요"

"마음을 가난하게 갖지마세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속의 생명체들도 풀어지죠"

"아무도 대신해주지 못해…제 뿌리 믿어야"
'자기줄' 철저히 쥐고가면 空도리 알게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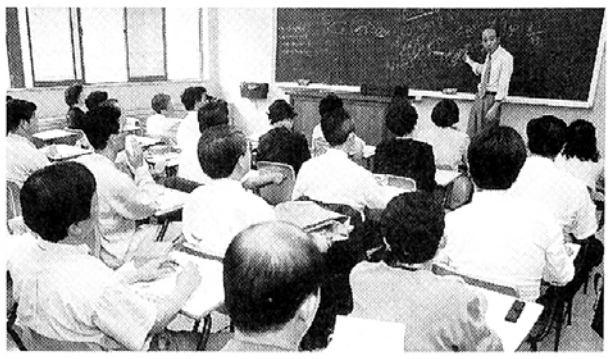
삶은 결코 苦가 아니라는 이 통쾌한 역설 !

삶의 모든 고통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발판임을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大行 스님의 육성 법어집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종로구 견지동 110-33
737-8881(편집), 737-0695(영업), 팩스:(02)737-0696

불교교양대학 거사들이 늘고있다



◇동국대 사회교육원이 마련한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강좌를 들으러 온 남자불자들이 강의실을 메우고 있다.

◇전국 불교대학(2/28 마감)

대학명	전 화
삼화불교대학	(02)511-2026
조계사불교대학	(02)720-1390
동방불교대학	(02)763-0229
한국어산작법학교	(02)921-3425
한국불교법사대학	(02)737-5305
동산불교대학	(02)732-1206
대원불교대학	(02)766-7156
부산불교교육원	(051)466-4080
금정불교대학	(051)866-7277
한국승가대학원	(053)952-8711
영남불교대학	(053)475-3706
대구불교대학	(053)255-4873
불교대구교육원	(053)253-7063
직지불교대학	(053)754-9629
전북불교대학	(0652)226-7878
호남불교대학	(062)222-0819
광주불교대학	(062)375-7603
대전불교대학	(042)627-8600
청주불교대학	(0431)63-2329

IMF 실직자등 입학 정원 70%
불안·상실감 치유…제2인생 설계

98년 신입생 모집이 한창인 불교대학을 찾는 우바새(재가 남성불자)들이 늘고 있다. 남자 수강생에 비해 여학생 수가 많거나 반반 정도의 비율을 보이던 것이 올해는 오히려 남자 수강생이 정원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대해 동산불교대학의 김재일학장은 IMF 한파로 실직자들이 급증하면서 종교귀의 심리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구열이 상승한 데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했다. 또 당분간 점차적 수직곡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GROWING-UP CLINIC(성장발달 클리닉) 원장 김희선씨는 "상실감, 불안감, 초조감 등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종교귀의 심리가 크다"고 말하고 "절박한 심정일수록 맹목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비춰볼 때 남성불자들의 불교대학 입문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4개월 전 명예퇴직을 했다는 박모씨(46·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박씨는 20여년을 몸담아 온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고받고는 며칠 밤을 지샜다고 한다.

"처음엔 근사한 사업을 시작해 이전 생활보다 더 잘 살아 보이겠다는 오기로 동분서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고, 사기까지 당하고보니 정신이 바짝 나더군요. 우선 분하고 초조한 마음부터 다스려야겠다고 마음먹고 불교대학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삼화불교대학 학장 혜인스님은 "고학력 남성불자들을 위한 전문성있는 프로그램과 쉽고 재미있는 수업진행 방식을 모색중에 있다."고 밝혔다.

성씨조차 밝히기를 꺼려했던 채모씨(37·서울시 양천구 목동)는 "불교에 대한 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불교인성상담, 불교복지 등 실용불교적 측면을 고려한 강좌가 개설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은 경기침체와 위축돼 있는 불자들의 유치를 위해 98년 봄학기 접수자들에게 입학금 및 수강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건강 365일 〈12〉 갈대뿌리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태양인 체질 중에는 특히 간이 허약한 체질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병명에 상관없이 무슨 병이든 그 원인은 간에 있다. 위염, 십이지장염, 각종 궤양 등의 병명에도 그 원인은 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위염·각종 궤양 등을 치료하는 근본적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한방에서는 병명은 같아도 체질에 따라 치료방법을 달리하는데 원인치료에 목적을 둔다.

간이 허약해 위염, 십이지장염과 궤양 등을 앓게 되는 환자들은 구역질은 물론 생목오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겐 '갈대뿌리'가 특효약이다.

생목 오르거나 구역질에 특효
노근 삶은물 하루 두번 복용

어느 해변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마을에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인은 구역질을 자주 하는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먹는대로 토하고 구역질을 하는 등 지금으로 치면 위암에 해당되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난한 농부는 비싼 약값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약 한첩 지어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농부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부인을 애처로워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때 동냥을 온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하는 말이 "그런 병에 신효한 약이 있는데 나를 따라 오시겠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농부가 거지를 따라간 곳은 해변가 갈대밭이었다. 구걸한 음식을 먹는 거지들은 상한 음식 때문에 배탈이 자주 나는데 그때마다 갈대뿌리를 삶아 먹는다는 것이다.

농부는 반신반의하면서 뿌리를 캐 부인에게 달여 먹였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부인은 구역질과 토하는 횟수가 줄면서 호전되기 시작했다. 얼마 안가서는 오랫동안 고생하던 위장병이 씻은 듯이 완치되었다. 참으로 신기한 약초였다.

갈대뿌리는 약명으로 노근(蘆根)이라고 하며, 약성은 위열을 식혀 구역질 생목을 없애주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 노근 삶은 물을 하루 두번 복용하면 된다.

우애·불심다진 문화한마당
금강정사 '청소년예술제' 눈길

금강정사(주지 지홍) 제3회 청소년예술제가 학생회 주관으로 지난달31일 금강정사 법당에서 열렸다.

예술제는 연극, 시낭송, 콩트, 인형극, 피아노와 플룻 연주, 사물놀이, 합창 등 단위 사찰이 아닌 포교당에서 그것도 학생회 중·고등학생 30여명이 전적으로 준비하기에는 버거웠을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여 주목 받았다. 곳곳에 솜씨를 부린 무대장치와 의상 또한 눈길을 끌었다.

여장분장으로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게했던 박성주군(학생회 6기, 광명고 3)은 "학생회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마지막 예술제여서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예술제 준비기간 동안 동료와 후배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었고 불교인으로서 긍지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에 볼거리와 들을거리 등 종교시설로써뿐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노후생활은 요양원서" 69%
"부양받을땐 마음맞는 자식과 함께" 52%

도광스님 337명 설문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은 고졸학력의 40대 남자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노부모가 요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요양시설보다 병원과 집(57.1%)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응답자 본인들은 노후에 자식과 별거는 물론 경제적 자립을 희망(52.8%)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원(68.9%) 이용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부모를 부양함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장남부부에게 책임을 전가(29%)하기보다 자식 중 부모와 마음이 맞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51.8%)고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노부모 부양의식과 노후 생활 전망'을 주제로 한 도광스님(불광한의원 원장)의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석사논문에서 밝혀진 것으로 세대별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설문조사는 서울시민 3백37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30대 28.8%, 40대 38%, 50대 33.2%의 분포를 보였다.

만화 백유경(百喩經)

이향원



*이 광고는 일부 후원회원님의 정성과 신문사의 협조로 제작되었습니다.

대부도 둥지청소년의 집을 아십니까?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불황과 IMF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무의탁 청소년들의 보금자리인 **"둥지청소년의 집"**을 아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둥지 가족은 불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은혜에 힘입어 따뜻한 부처님품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리를 방황하던 형제가 또 새식구로 들어와 이제 저희 식구들은 모두 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꾸 늘어만가는 식구에 비해 지금의 비좁은 수용시설로서 다함께 생활하기에 무척 어려운 처지에 이르러 부득이 요사채를 더 증축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45명의 둥지식구와 앞으로 들어올 새식구들이 함께 지낼수 있는 요사채를 새로 지어 따뜻한 부처님도량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불자님께 간절한 도움을 청하오니 정성껏 도와주시길 부처님전에 발원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둥지청소년의 집"**을 아껴주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불자님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둥지마을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농 협 : 053-02-100544 (예금주:김문선)

■지로번호 : 7629390 (둥지청소년의 집)

*매월3,000원 이상 우송하시면 누구나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웃 가족에게도 권유하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현사 주 지 법 현스님

둥지청소년의 집(둥지마을) 후원회

(우)445-330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121번지

전 화 (032) 883-9033(자현사)

(032) 691-7686(후원회)

불자 세상보기

알뜰 생활로 'IMF' 이기자

중고품시장·할인매장 이용자 '북적'
창업교실·정신재무장 강의 '인기'

IMF의 거친 한파가 이웃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일로 닥쳐왔다. 나와 가정, 일터,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도 바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각종 알뜰장터를 활용해 알뜰가계를 꾸려야 한다. 일터에서도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새출발의 각오와 준비도 다잡아야 한다.

가정에서는 각종 매체에서 전해주거나 이웃에게서 들은 알뜰정보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각 지역마다 알뜰장터에 가면 조금의 다리품을 들여 몇 배의 득을 올릴 수 있다.

알뜰결혼식 36만원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 경실련은 5월 31일까지 '알뜰야외결혼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통혼례 (02)766-5390~4, 현대식혼례 (0343)23-0465~6.

중고품시장 서울에서만 중고품시장 등 상설전시장이 10여곳에 이른다. 녹색가게 서초점(591-6060), 은평점(388-6341) 동대문점(246-1281), 경기과천점(500-1357). 모두 월~금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문을 연다. 중소기업연합회 상설전시장(477-6006~7)에서는 의류와 신발 구두 가방 지갑 등을 시중가의 40~50% 할인판매한다. 식생활비 절약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부천시 농촌지도소는 주말농장을 분양한다. 1가구당 6평씩 3만원이다. (032)612-5959. 지방교육청이나 구청별로 교복물려주기 행사도 있다.

쉼터·창업교실 직장인이나 실직자들은 이 기회를 자기개발 또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IMF쉼터와 시민선방〈표〉에도 자주 들러 재충전과 정보획득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서대문구청에서는 매주 창업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02)330-1365~7. 인력은행의 활용도 좋은 방법이다. 서울 (02)874-1350~4, 대구 (053)257-6491~4, 광주 (062)514-4230~7, 부산 (051)817-1991 808-1990, 인천 (032)426-2929 428-0860~2, 경기 (0331)221-8400 8415~8, 대전 (042)487-1919.

성공스쿨 지난 2일부터 'IMF퇴직자 성공인생 설계스쿨'이 열리고 있는 서울역 삼동 퍼스널 석세스 아카데미(PSA, 538-7070) 강의장에는 신청자들이 3일 동안 '단기출가학교'를 계획중이며 춘천 석왕사(주지 백운)는 유치원을 개조한 공간에 침식을 제공하며 단기 수행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지도법사와 자원봉사자를 쉼터에 상주시키는 남양주 불암사(주지 일면)는 신행상담과 기초교리 강의에 촛점을 맞출 방침이다.

쇄도하고 있다. 대부분 실직자들이지만 직장인도 있다.

전문가들은 습관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한가지 우화. 서커스에 가보면 거대한 코끼리가 작은 나무말뚝에 매여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코끼리는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도 도망갈 생각을 않는다. 바로 어렸을 때부터 쇠말뚝에 굵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PSA사 류현열 컨설턴트이사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일생을 만듭니다. 매일 쉽게 할 수 있는 것, 새로운 것,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것, 추가비용이 필요없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권유한다.

정성운 기자

시민선방-쉼터 "실직자들 오세요"

경제한파로 인해 실직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각 사찰에서는 이들을 위한 시민선방 및 쉼터 마련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사찰에서 개설한 쉼터는 대부분 '참선지도' '산행' '3천배정진' 등의 실직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정보도 제공한다.

장성 백양사(주지 지선)는 3월부터 월1회 4박5일 일정으로 50명내외의 '실직자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강·총지종 법장원장)도 사무용 책상, 대형 책장 등을 갖춘 '오뚜기 모임터'를 월~금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개방한다.

또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2박

● 시민선방

군포 개원사	(0343)98-8001
성북동 길상사	(02)3672-5945
우이동 도선사	(02)993-3161
부산 해운정사	(051)746-4816
좋은일하는 사람들의 모임	(0351)848-6114
불교발전연구원	(02)736-6202
선학원중앙선원	(02)734-9654
수선회	(02)732-5960
대구 거사림장법회	(053)423-8626

● IMF 쉼터

종단협 총지사	(02)3452-7485
장성 백양사	(0685)92-7502
부천 석왕사	(032)663-7771
영천 은해사	(0563)35-3318
춘천 석왕사	(0361)52-5040
목동 법안정사	(02)646-4975
남양주 불암사	(0346)65-8345
광주 광륵사	(062)222-7801
대구 동화사	(053)427-1907

청소년 덩치 커졌어도 약골

초중고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등 체격은 커지고 있으나 시력·치아 등 체질과 달리기 턱걸이 등 체력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일 지난해 전국 초중고생 777만명의 체격·체질·체력을 검사해 표가분석한 '97년도 학생신체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체격**=키는 10년전보다 남학생이 평균 3.87cm, 여학생이 2.9cm가 더 커졌다. 고3남학생의 평균키는 172.15cm, 여학생은 160.33cm로 커졌다. 몸무게는 10년전에 비해 남학생이 평균 4.8kg, 여학생이 3.2kg 더 늘었다. 그 결과 고3 남학생의 평균 몸무게는 64.1kg, 여학생은 54.7kg으로 늘었다.

◇**체력**=초중고생 모두 100m달리기·제자리멀리뛰기·턱걸이(여: 팔굽혀매달리기)·윗몸일으키기·던지기·오래달리기 등 6종목의 기록이 나빠져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1년생의 경우 남학생의 100m 달리기 기록이 평균 15초로 10년전보다 0.2초 느려졌고 턱걸이는 평균 6.2회로 2.4회, 던지기는 45.5m로 3.4m가 각각 줄었다.

◇**체질**=전체 학생의 20% 가량인 170만명이 근시 원시 난시 등 굴절이상(시력약화)으로 나타나 10년전의 4.7%(45만명)에 비해 4배나 늘어났다. 시력은 고학년으로 갈 수록 나빠 100명당 초등학생 14명, 중학생 35명, 고교생 39명꼴로 안경을 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의 눈 — 행위따라 바라문되고…

모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행위에 의해 모든 것이 모양지어진다고 가르치신다. "태어남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안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되고,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안되기도 한다.…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상인이 되고, 행위에 의해 고용인이 된다.…슬기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사물의 원인과 그 결과를 이해하여 그 행위와 과보를 사실대로 본다.…행위에 의해 세상은 존재하며, 행위에 의해 사람은 존재한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수레바퀴가 차축에 매여 있듯 그 자신의 행위와 깊이 연관을 맺고 있다."〈숫타니파타〉

이렇게 들었다

빌 클린턴 美 대통령의 성추문(性醜聞)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 백악관 여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이른바 지퍼게이트(Zipper gate)로 지구촌에 뉴스거리를 제공한 클린턴은 이미 카바레 가수, 변호사, 전 백악관 직원 등 5명의 여인과 추문을 뿌린 바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추문을 뿌리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음욕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짐작할 수 있다. 윤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애욕'. 경전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편집자 주〉

애욕 얽매이면 악마의 포로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마음에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애욕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법구경〉

▨모든 애욕을 버리고 떠나 물들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 욕심의 불꽃에 불살리지 않았나니 모든 부처 어머니는 항상 깨끗하니라. 〈대본경〉

▨부처님은 항상 '여섯 가지 감관의 문을 잘 단속하고 여섯 가지 경계에 집착하지 말며, 애욕의 밧줄을 잘 보라'고 훈계하셨다. 그런데 비구들은 부처님의 교훈을 받들지 않고 이양(利養)을 탐하여 구하고, 거짓으로 청렴한 체하며 고요한 곳에 앉아 있다. 그러나 마음은 흐르고 달리며 다섯 가지 쾌락에 탐착한다. 즉 빛깔과 소리와 냄새와 맛에 홀리고 어지럽혀 무명(無明)은 마음을 덮고 애욕의 밧줄을 얽고 묶는다. 그리하여 바른 생각과 깨달음의 뜻인 도품(道品)의 재물을 모두 잃고 마는 것이다. 〈백유경〉

▨부루나야! 여러가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애욕의 성품이 생김을 돕는데 그 애욕을 여읠 수가 없어서 갖가지 업장을 짓게 되나니 그 때문에 나고 죽는 윤회가 계속하게 되나니라. 모든 세간의 부부가 혼인하여 교합해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낳아 끊이지 않나니 이러한 것들은 음욕을 탐냄으로 업장이 된 것이다.…너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거든 나는 너의 얼굴을 어여삐 여기고 내가 너의 마음을 사랑하면 너는 나의 얼굴을 어여삐 여겨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겁이 지나도록 항상 얽매이게 되나니라. 오직 음욕과 살생 그리고 도적질, 이 세 가지가 모든 악의 근본이 된다. 그러한 인연으로 업장과 과보가 서로 연속되나니라. 〈능엄경〉

▨네가 지금 나고 죽는 애욕의 흐름을 거슬러서 그 흐름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나고 죽음이 없는 데에 이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여섯 가지 느껴 작용하는 감각기관이 어느 것이 합하고 어느 것이 떠나며, 깊고 얕으며, 원만하게 통하고 어느 것이 원만하게 통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징험해 알아야 한다. 〈능엄경〉

▨너희들이 단지 정에 어린 생각(情念)을 소제하고 허망한 인연을 단절할 수 있으며 세상 일체의 애욕경계에 대해 마음이 마치 목석과 같아질 수 있다면 설사 도안(道眼)을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자연스레 청정한 몸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치문경훈〉

공대교수들 벤처연합 결성

공대교수들이 주도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대학생과 기업체 및 사업자금을 지원할 투자자를 연결하는 한국형 벤처연합체를 만들었다. 이미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포항공대 부산대 등 29개 대학 및 대학원 벤처동아리 결집체인 한국대학생벤처창업연구회 지도교수와 회원들이 6일 참여를 선언했다.

지구촌스타 북돕기 자선공연

세계적 스타들이 10월 10일 서울에서 북한어린이 돕기 자선행사를 펼친다. 이 행사에는 가수 마이클 잭슨,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등 세계적인 스타 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예상수익금 3억달러는 북한어린이 돕기에 쓰여진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최규선 특보가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이산가족면회소 설치키로

한반도내 적절한 장소에 남북 이산가족면회소와 우편물교환소가 설치되며, 고향방문도 적극 추진된다. 또 이산가족 통합정보센터도 설치, 이산가족 교류관련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새정부 1백대 과제로 선정키로 했다.

환갑잔치 무의탁노인과 함께

환갑잔치를 마다한 어머니의 뜻에 따라 잔치비용 1백50만원으로 무의탁노인 위로잔치를 열어줘 화제가 되고 있다. 이승엽씨 형제들은 4일 서울서 대문구 독립문소공원에서 한길봉사회와 함께 5백여명의 노인들에게 고기국과 떡 과일 등을 대접했다.

재미교포 금괴 7톤 헌납 밝혀

익명을 요구한 한 재미교포가 국내의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금괴 7톤(7천만달러, 1천50억원 상당)을 헌납하겠다고 최근 국민회의측에 밝혔다. 이 교포는 헌납을 결심하게 된 동기에 대해 "모국에서 벌어지는 금모으기 운동에 감명받았기 때문"이라고 국민회의측이 밝혔다.

반도체 산업스파이 16명 적발

삼성과 LG반도체 등 세계적 반도체 기술을 몰래 빼내 대만에 유출한 전자제품 업체 간부와 연구원들이 2일 김모씨 등 16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빼낸 기술은 삼성전자가 6년간 7천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최신 기술로 올해 1백6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음대교수가 고액 불법레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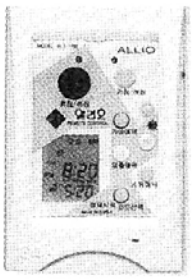
서울시교육청은 1일 음대 지망생들을 상대로 불법 실기과외를 한 이·나모 교수 등 4명을 적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입시생 8명에게 시간당 8~12만원을 받고 바이올린 개인레슨과 수학과외를 했다.

돈선거 축협 조합장 구속

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을 돌리고 향응을 제공한 의성군축협 조합장 당선자 박모씨와 선거운동원 2명이 대구지검에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조합원 60여명에게 10~50만원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생생상품

"다기능 조명등 스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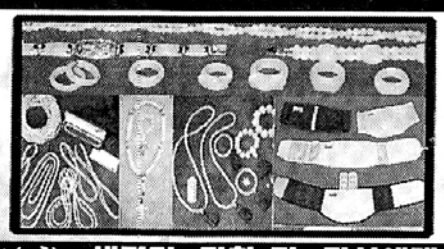


ON-OFF 조작은 물론 도둑 침입 예방, 알람 및 멜로디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조명등 스위치'가 출시됐다. 스위치만 교체하면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TV, Audio, 등의 가전제품 리모콘을 그대로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취침전 소등시간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잠이 들어도 예약된 시간에 소등 된다. (주)알리오. 4만4천원~4만9천원. (02)830-5041

公告

財團法人 韓國佛教法華宗維持財團
理事長 朴本基(惠耕)
理事 朴光熙(慧光)
理事 金在鉉(仙潭)
理事 李英姬(妙喜)
理事 金裕嬅(妙宣)
理事 鄭鎭英(坡南)
理事 金大成(普醒)
監事 宋柱弘(眞諦)
監事 朴春新(法雄)

西紀 一九九八年 一月 三一日
이와 같이 公告함
韓國佛教法華宗
法主 金惠洽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알파파(α) 현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20여종의 뇌내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찾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껴안고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도도자기 도이붐 金賞 수상
이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회위원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가)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2천만의 깨달음을 짊어짐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시 론 IMF 극복의 지혜 ④

경제통념 재검토

경제학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고전적인 공리가 있다. 그러나 최소, 최대의 개념은 단순한 물리적 양은 아니며 또한 최대, 최소에 접근하는 방법, 수단에도 가치적 문제가 개입한다.

천민자본주의 탈피 경제구조 수정 급선무

가령 기업 활동에 있어 최대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째, 종업원의 조직에 대한 귀속의식 둘째, 구성원의 계급의식 셋째, 경영자의 사명감 넷째, 창조에 대한 적극성 다섯째, 근로 윤리 여섯째, 경제적 윤리감… 등 가치적 요소가 크게 영향을 준다. 이들은 사회적 통념, 문화적 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기업 활동은 낱낱이의 조직구성원의 단순한 움직임에 대한 각 요소의 산술적인 총합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대국적이고 차원 높은 움직임이 있다. 조직체에는 집단적 무의식이 작동하고, 이들 가치적 항목은 직·간접적으로 문화적 문제에 귀결된다. 모든 경제적 문제의 밑바탕에는 늘 시대적 변화 요인과 전통적 문화와의 긴장관계를 감지케 한다.



김 용 운

〈한양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최근 우리는 IMF 체제에 편입되어 갖가지 경제 구조의 수정을 강요당하고 있다. IMF의 요구 사항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며 그 밑뿌리는 한국 문화 통념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이나, 근대화의 추진을 위한 시대적 에토스(윤리)도 없었고 기업의 목적은 단순한 세의 확장과 부의 축적에 있었다.

한보청문회에서 정태수 회장이 솔직히 털어놓은 말이 있다.

"그 사람(한보의 재무 담당 이사)은 머슴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대재벌을 양반가문 정도로 여기는 회장 자신의 조직관이 역력히 엿보인다.

〈허생전〉은 한국 전통사회에서 나온 유일한 경제 소설이다. 그 내용에는 돈을 빌려 안성 시장의 상품을 매점함으로써 치부를 하는 대목이 있다. 이는 오늘날의 한국 경제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재벌은 우선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기적인 수단으로 거금을 번 뒤 그것으로 기반을 닦는다. 특히 부동산에 열을 올린 것은 농경사회 때의 전통적 사고 때문이다. 당연한 일로 여기에는 권력이 개입한다. 전통 사회에는 권력, 돈, 명예가 일체화되어 있었다. 서민들도 이에 질세라 부동산 투기, 증권투자 등에 열심이다.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만을 크게 외쳐 왔을 뿐, 경제 행위를 윤리적 토대 위에서 승화시키자는 계몽운동은 한 번도 없었다. 투기와 사치, 타락과 퇴폐가 부의 축적과 동의어처럼 해석되는 천민 자본주의적 풍조를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벼슬, 명예, 돈이 삼위일체가 되는 전통적 사고는 무엇보다 권력을 우선시한다.

5공 시절 '박사 위에 육사가 있고, 육사 위에 여사가 있다'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그러니 기술 기능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다. 97년도 사시 수석 합격이 서울대 문리과 출신이었음은 상징적이며 서울대 학생의 80% 이상이 고시 준비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향은 경제 행위의 목적이 경제 자체가 아닌 세(勢) 확장에 있는, 한국 기업의 특징이다.

'잘 살아보세' 보다 '보람있게 살아보세'

대학도 교사(校舍)의 확장, 동창회관의 거대화, 학생, 학과 수의 증가를 바로 교세(校勢)로 인식하는 것이 한국인의 심리다. 그 결과 많은 부실기업과 부실학원 등 온갖 부실 조직이 양산되고 이다. IMF 충격은 한국의 전통적 사고와 윤리에 대한 서구적 가치관과 문화 의식으로부터의 공격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간 한 번도 진지하게 시도하지 않았던 전근대 이래의 의식을 철저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제는 무조건 '잘살아 보세'라는 표어를 외치기 보다는 '보람있게 살아보세'라는 구호아래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이다.

열린마당

이중과세(二重過歲)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설날연휴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불거진 설날의 이중과세(二重過歲) 문제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음력설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세계화 추세 속에서 이중과세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음력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민족의 전통과 국민정서의 함양에 필수적이라는 근거를 배경으로 하고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공휴일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된 각계인사들 의견과 불교계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음력설 축소 세계화추세

손봉호〈서울대 사범대교수〉

음력설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정서에 위반하기는 하지만 세계화추세에서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다른나라들은 설을 하루 쉬는데 우리는 이중과세로 불과 두달안에 무려 5일의 휴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3일간의 음력설은 세계화에도 역행한다. 음력설로 인해 멋모르고 입국한 외국구매자나 외교관들과의 업무연락과 상담이 두절되어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음력설이 갖는 정서를 양력설로 옮기는 길을 택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현명하다고 본다.

휴일중복은 생산성 저하

신원식〈한국무역협회이사〉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음력설을 고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중과세이므로 양력설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평균적으로 공휴일이 너무 많다.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똑같은 의미의 휴일을 두번 가지는 것은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뿐이다. 산업구조적 측면과 다른나라와의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공휴일 제도 특히 설날의 조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국민 95% 음력설 쇤다

고시재〈공무원노조협의회간사장〉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휴일제도가 거론하는 것은 국론분열만 일으킬뿐 올바르지 않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현재의 제도대로 정착됐다는 것을 뒤집으려는 것은 정책이 일관성을 잃어 국민들을 혼란에 바뜨릴 우려가 있다.

95% 이상의 국민이 음력 설날을 찬성하고 지키고 있는 만큼 예전의 전통을 존중해 나가는 것이 정도이다. 경영자입장에서는 공휴일이 많아서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하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노동자들의 적당한 휴일은 생산성을 늘리는 계기가 된다.

휴일축소 오히려 부작용

노진귀〈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국민들이 설날을 가장 중요시하는 현실에서 음력설이 이중과세라며 철폐나 축소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때 정부가 공적으로 신정만을 인정했을때 국민들이 신정을 쇠고 전통적인 설날을 지키면서 이중과세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다시 신정으로 설날을 한다면 이중과세가 다시 생기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생산성 질감을 위해 공휴일을 줄인다는 것은 노동의 효율성을 떨어드려 부작용이 더욱 크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대통령인수위가 6일 개최한 '공휴일 제도개선 공청회'.

양력설 휴일 줄였으면

이충양〈고려대 중문과교수〉

우리나라는 설날에 세배와 차례, 고향방문등 여러가지 전통적인 미덕이 있는만큼 서양과 비교하여 이중과세라는 지적은 부당하다. 서양인의 경우 25일 크리스마스부터 1일까지 휴가를 가지며 여행을 떠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설날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되레 양력설을 하루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생각한다. 1월1일은 신년시무식의 개념외에는 없는만큼 하루만 휴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요즘의 경우 설날이 자리를 잡아 국민정서상 신년으로 옮기기는 무리이다. 효율적인 구조차원에서도 신년과 전통명절의 구별은 필요하다.

공휴일 탄력적용 검토를

강광식〈정신문화연 연구부장〉

문민정부초에도 총무처 주최로 공휴일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필요성을 갖고 있지만 국민들의 뜻은 그렇지 못해서 실행되지 못한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인 만큼 옛날처럼 정부가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통일시키려 하지말고 공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또 공휴일도 공통적인 공휴일이외의 날에는 해당분야의 사람들만 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해결방안의 하나이기도 하다. 산업효율화도 지금보다 더많은 휴일을 노동자에게 부여하는등 폭넓은 정책을 펴야한다.

휴가제도활용 자율운영

한지현〈광운대 국문과교수〉

주부입장에서 보면 설을 두번 쇠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담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중과세부분은 근본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그렇다고 세계화추세에서 양력설을 지키지 않을 수 없고 음력설 또한 없앨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설을 쇠는 것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고향을 찾는 의미가 큰만큼 신정·설날에 대해 강요할 수는 없다. 차라리 선택권을 부여하여 휴가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용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 의견 보탭니다

요즘 김대중 당선자가 공유일 제도와 관련 '설날'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이중과세를 없애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 한번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음력설이 매도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한마디로 설날은 한해라는 역사의 시작이다. 그를 바탕으로 각종 세시문화가 꽃을 피웠고 농경사회의 기조가 이룩됐다. 또 우리네 가정과 문중및 국가의식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신세의(설빔), 세배돈, 백제호(수정과), 도관희(널뛰기), 소종과(부럼깨기), 제약반(약밥), 총이추(귀밝이 술), 쟁매서(더위팔기), 망원월(달맞이), 답교행, 야광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월의 세시풍속만 보더라도 이를 증명한다.

"설날은 조상 공경하는 한국문화 유산이다"

새해첫날인 설날은 고향을 찾아가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을 찾아가 세배드리고 덕담을 듣는 날이기도하다. 설날은 조상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우리문화의 소중한 유산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문화유산일 수 없다. 그러므로 설날이 갖는 민족문화의 가치는 단순하게 공휴일을 늘이고 줄이는 차원에서 가늠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때 설날을 하루라도 없애서 외국인과보조를 맞추고 경제적 생산성을 늘리자는 것은 공감하는 면도 있으나 미래적으로 볼때 설날이 갖는 문화가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올리는 방법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우리삶의 밑바탕을 흐르는 좋은 명절과 세시풍속을 유지 발전시킴은 오늘의 세계화추세에 조금도 역행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해 월

〈공주 원효정사 주지〉

정권 바뀔 때마다 이중과세 '논란'

설날은 1885년 정부가 태양력을 공식적으로 도입함으로서 이중과세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미 1873년에 양력을 채택한 일본은 한반도를 통치하며 양력설을 쇠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승만 초대정권이래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양력설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일제강압과 강압정권의 시대에도 국민들은 양력설 보다는 음력설을 지켜왔다. 대다수의 국민정서에 부합하여 1985년 전두환정부가 1월1일을 민속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89년 노태우정부는 그동안 '구정'이라는 명칭을 '설날'로 복원했다.

김영삼정부는 정권초기에 정부주최로 국민공청회를 개최하는등 공휴일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설날을 재검토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정부도 IMF체제와 세계화를 내세우며 공휴일제도를 개선하려 하지만 국민정서가 음력설을 선호하고 있어 조정에 있어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음력설을 쇠는 곳은 중국 대만 싱가포르등 중국계 국민들과 몽고, 우리나라가 있다.

"양택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팔상탑주(八相塔呪)책자내용의 요점설명

1)음택풍수측면 :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후손에게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해주는 방법수록

2)양택풍수측면:
①사업이 잘 안될때 이를 개선시키는 방법
②대학입시나 고시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할 때
③노처녀나 노총각이 결혼을 빨리하고자 원할때
④부부간에 불화가 심할경우 부부금실을 좋게 해 주는 방법
⑤자녀가 없어 아이갖기를 간절히 원할 때
⑥불치병등을 완치시키고자할 때 풍수적인 조치방법
⑦부동산등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할때
⑧식당, 레스토랑, 다방, 술집, 가게, 상점, 슈퍼마켓, 약국, 여관, 호텔, 사우나, 목욕탕, 학원등 영업장소에 고객들이 증가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12품팔상탑주를 적용시켜 풍수적으로 그 개선방법과 해결책 제시!!

"스님들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발휘되는 팔상탑주 처방비법"

◎본 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암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의 신도들에게 풍수적으로 불가사의한 효험력을 나타내는 팔상탑주를 적용하여 신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 불자님들께는
본 책지를 요약한 카다로그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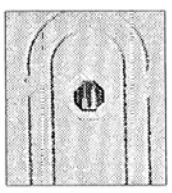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판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이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불자님들께서는 다음의설명드리는 2종류의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상탑주는 이 두품을 먼저 적용하고나서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시어 단계적으로 적용방법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품만 먼저 적용하셔도 자신의 약한 운세가 변화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1) 대문용 팔상탑주를 대문앞에 부착해 주십시오.





·소재:금속위에 순도99.9% 순금도금
·규격:8cm×8cm ·가격:60,000원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누구나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용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이 풍수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대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입니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못들어오게 하고, 상서로운 기만 흡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주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알집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풍수상으로 적살방이라 하여 어느시점이든 기가 약해졌을때 집안의 생기를 알집에 모두 빼앗겨 갑자기 한 집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에 점점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대문용 팔상탑주는 그자체가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는 "불자의 집"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가 생활풍수원리에 맞도록 조성되어 있어 강력하고 좋은 기(氣)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에 부착하면 일단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며 이 운기가 알집이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압하여 집안의 상서러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맛이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 및 목걸이용 팔상탑주를 차안에 걸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소재 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도금
·규격 5cm×5cm ·가격 60,000원

각 집마다 차량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의 현실에서 차량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사업번창도 좋고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차량은 필수품이 되어 메어 놓으려해도 놓을 수 없는 실정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팔상탑주는 차안에 필히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성된 차량용 팔상탑주는 알면에 총괄팔상탑주, 뒷면에는 팔괘만다라를 새겨넣어 차안에 걸게 되면 차량 내부 전체에 강력한 우주에너지를 흡합시키고 발생시켜 차안에 생기가 충만케 해주고 그로인해 운전자나 탑승자의 운기를 강하게 향상시켜 주므로써, 외부로부터의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예견해주는 작용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차량자체도 생기가 뻗어나와 돌발적인 사고가 저절로 피해가도록 조절해 줍니다.

● 차량이 없는 분이나 혼자서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은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등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몸전체에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닥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뻗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체결이나 시험보러갈때, 관재가 있거나 삼재가 온 사람은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은 필히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팔상탑주란?

"사람에게는 인상(人相), 관상(觀相)이 있고 집에는 가상(家相)이 있다. 이 가상(家相)안의 여덟방위에는 주역의 팔괘에서 말하는 길상(吉相)인 팔상(八相)이 존재하고 있으며 팔상(八相)은 여덟가지의 인생사(人生事) (1)결혼 (2)명성 (3)부 (4)가정 (5)지식 (6)직로 (7)조력자 (8)자식을 뜻한다. 이 8방위의 발전을 각방위별로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수단으로서 팔괘의 팔각형안에 음양의 불탑다라니 신주(神呪)와 오행상의 길(吉)한 색상과 상징물, 숫자, 주술(呪術)등을 도입하여 조성한결과 이곳에서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위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름하여 팔상탑주(八相塔呪)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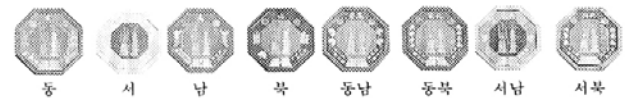
3)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



(1)적용방법 및 효능 등 자세한 설명은 책자 참조
(2)소재 : 특수 주물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으로 도금
(3)규격 : : 30cm×30cm
(4)수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은 풍수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불자님들 집안의 고급스러운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의장특허등록 : 제211260호

4) 8방위 영역발전을 성취시켜주는 방위별 팔상탑주



◎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팔괘와 음양의 조화, 십이지·오행상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택 생활풍수원리와 불탑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一)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옥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 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인들에게 닥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혼·재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토록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 화 : (0335)34-9490, 34-9491 야 간 : (0342)706-3060

종단소식

조계종

조계사 대장경 정대불사

조계사(주지 현근)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또 12일 경기 양수리에서 방생 및 영산대제를 실시한다.

은해사교구 올 업무보고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21일 승가대학원 강당에서 교구종회를 연다. 이번 교구종회에서는 97년 결산보고, 98년 교구주요업무보고를 비롯 각종 종무현안들을 논의한다.

또 이날 종회에서는 포교·불사에 공헌한 공로로 거조암을 비롯 4개사찰에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태고종

경제회복기원 수륙대재

총무원(원장 인곡)은 1월20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종무회의를 열고 오는 4월1일 국가경제회복을 기원하는 수륙영산대법회를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봉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승교화종단의 이념정립사업, 대승계수지법회, 승려연수교육 등 올해 추진할 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위해 종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전북교구 호국법회 확정

전북교구지방종회(의장 성담)는 1월23일 종무원사인 보문사에서 정기지방종회를 개최하고 종무원 조직정비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중점사업은 조직정비를 비롯해 경제살리기운동 지속적 추진, 분담금 제도 확립, 호국불사 대법회 봉행 등이다.

천태종

금강불교대학 졸업식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은 14일 오전 10시 관문사에서 98학년도 졸업식을 거행한다. 졸업생은 천태학과 12명, 교법사과 48명, 불교학과 95명 등 모두 1백55명이다.

이문수 중앙청년회장 유임



이문수 중앙청년회장이 13대에 이어 14대 회장에 유임됐다. 이회장은 2일 종정 도용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이회장은 "지역청년회 지원 강화 등 청년회의 조직을 종단차원에서 체계화하고 정비할 방침이며, 대내외적 활동 강화를 통한 종단위상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청년회 방향을 제시했다.

진각종

밀교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서울교구와 대구교구 밀교문화대학은 28일과 3월14일까지 각각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울밀교문화대학은 진각종학, 불교학 등을 교과목으로 한 기초과정과 반야심경, 밀교학 등의 중급과정을, 대구밀교문화대학은 기초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다. 서울밀교대학(02)913-0133, 대구밀교대학(053)255-1450

관음종

임원회의 올 사업 검토

총무원(원장 홍파)은 17일 오전 11시 논산 관음사에서 종단 임원회의를 갖는다. 이번 임원회의에서는 올 사업계획 검토 및 신임 종단간부 상견례가 있을 예정이다.

보문종

나라안정·통일기원 방생

보문사(주지 법준)는 8일 임진강 두포나루터에서 나라의 안정과 통일을 기원하는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법준스님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불자들이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총화종

수진사 백일기도 회향

남양주 수진사(주지 남정)는 9일 경기 가평에서 신도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일기도 회향 및 정월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남정스님은 "백일기도에 참가할때의 초발심대로 생활한다면 가정에 평화가 깃들 것"이라며 "국가경제위기 극복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남방불교 비구니계맥 잇는다

대만 불광회, 인도서 15일부터
광우·석가산스님등 존증사
美·유럽등 141명 수계

남전불교의 비구니 맥을 잇기 위한 '국제 삼단대계 계회(三壇大戒戒會)'가 15일부터 23일까지 인도의 대만사찰인 대각사에서 대만의 국제불광회세계총회(총재 성운스님) 주최로 열린다. 인도 스리랑카 등 남전불교는 11세기경 국내 정치의 탄압과 외침으로 비구니 맥이 끊긴 이래 지금까지 여성의 출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스리랑카와 태국의 승왕을 비롯 각국의 고승 30여명을 장로아사리와 존증사르인도 스리랑카와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의 나라에서 141명이 참가, 사미니계와 비구니계 보살계를 수계한다. 재가불자 1천여명도 참가해 5계를 수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석가산스님(한·대만불교회장)과 광우스님(전국비구니회장)이 존증사로 참가하며, 4명의 사미니가 비구니계를 수지한다.

포교원 사무국장 법성스님과 대만 불광산사 국제담당 의은스님에 따르면, 이번 수계법회는 제4차 국제승가연습회(國際僧家研習會)에서 남전비구니계의 전수를 위한 국제계단을 실시한다는 결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국제승가연습회는 지난해 5월 대만불광산사에서 각국의 고승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의은스님은 이번 법회의 종지(宗旨)를 △부처님시대의 불교로 환원 △여성교단을 부처님시대로 회복 △국경을 초월한 3귀5계의 전수 등이라고 밝혔다.

비구니교단 불교역사상의 비구니교단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법을 시작한 지 5년 후 마하파자파티의 출가를 허락하며 성립됐다. 기원전 3세기에는 아쇼카왕이 그의 아들과 딸을 스리랑카에 파견하여 불법과 비구니계맥을 전승시킴으로써 비구니교단이 완전하게 성립됐다. 그러나 11세기경부터 남전불교국가의 정치적 탄압과 외침으로 계맥이 끊겼으며, 비구교단만이 중국 미얀마 등으로부터 법을 이어 재건됐으나 비구니교단만은 맥을 잇지 못했다. 현재 비구니가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다섯 나라뿐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사가 공인회계사 건물을 매입 새로단장한 문화교육관. 조계종 포교원, 조계사 불교대학,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최근 입주했다.

조계사 교육·포교 새도량 마련

포교원등 3개기관 입주

조계사(주지 현근)가 종로구 수송동 46-22번지 구공인회계사 건물을 매입 문화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 단장한 문화교육관에는 조계종 포교원, 조계사 불교대학,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입주해 업무를 시작했다. 불교대학은 60명 수용규모의 강의실 2개와 1백명 수용규모의 강의실 2개, 도서관 교학처 등으로 확대되어 교육여건을 극대화 했다.

윤필암 목조아미타불 등
경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경상북도는 문경 대승사 윤필암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김용사 괘불을 경북도 유형문화재로, 윤필암 후불탱화 등 3점의 유물을 문화재자료로 각각 지정했다.

룸비니동산에 '만등불사'

대성석가사 5월10일 법요식…법당건립 순조

부처님이 태어나신 성지 네팔 룸비니동산에 부처님 오신날 1만등이 밝혀진다.

네팔 룸비니 대성석가사(조실 도문)는 오는 5월10일 연건평 2천5백69평 규모의 법당건립을 위해 국내외 사부대중 3만여명이 참석하는 법요식과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대성석가사는 현재 7백83평의 제1요사가 완공단계에 있으며, 1만여평 부지에 지상3층 규모의 대법당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동산에 한국사찰 대성석가사 건립불사를 추진중인 도문스님은 "2천년까지 국제회의장, 승려교육기관 등을 갖춘 세계 최대규모의 사원으로 조성해 한국불교를 대내외에 알리겠다"며 "4억5천여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법당건립을 위한 '1인1등 1만원 만등불사'에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765-0972

동국대 2백명에 'IMF 학비'

올 2억원 대여키로

동국대학교는 최근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했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2일 실직한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대여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 재학생 2백명에게 올 한해동안 각 1백만원씩 모두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IMF극복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문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여장학금'제도는 학부장의 추천에 의해 대상학생을 선발하고, 졸업후 2년이내에 2회분할의 상환조건으로 운영된다.

인각사 일주문 보수

반용사등 문화재 25건도

군위 인각사 일주문, 반용사 대웅전 등 성보문화재가 보수·정비된다. 군위군은 총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각사 일주문(3억1천만원), 압곡사 영정각, 지보사 대웅전 등 11건의 문화재를 보수할 계획이다.

또 경산시는 9억4천만원을 들여 반용사 대웅전 및 요사채(1억9천만원)를 복원하는 등 15개 문화재정비사업을 펴기로 했다.

"장기이식관리본부 전문단체가 맡아야"

생명나눔 공청회

'장기이식관리본부는 민간 전문단체에 맡겨져야 한다'

장기기증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5일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목사)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국양교수(가천의과대학)는 '장기이식관리본부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식의 현장은 역동적이며 인간적인 요소가 훨씬크게 작용하는 만큼 현실에 바탕한 장기기증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분배기구는 사명감, 경험,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맡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종현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일본의 장기이식현황'에서 "일본처럼 장기이식 기증자와 환자의 주선을 전담하는 코디네이터의 양성과 장기은행등 각종뱅크의 설립등이 정책적으로 해결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12년째 보살행펴는 산골스님

진주 토왕암 불산스님

서화전시 수익금 모아
소년가장 재소자 돌봐
가톨릭·기독교도 후원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불우이웃을 위해 12년동안 묵묵히 자비행을 펼치고 있는 산골스님이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토왕암 주지 불산스님(49). 스님이 불우이웃을 위해 산사에서 저자거리로 발길을 옮기게 된 것은 '남을 편하게 하는 것이 성불하는 길'이라는 지론 때문. 그러나 산문을 처음 나왔을 때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마음만으로는 그들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그후부터 불산스님은 기금마련을 위해 서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매년 연말 토왕암에서 '불우이웃돕기 전시회'를 개최한다. 스님의 따뜻한 원력이 알려지면서 지역내 화가들이 기증하는 작품도 하나둘씩 늘어났고, 전시회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으로 불산스님은 소년소녀가장, 불우재소자, 독거노인 등 그늘진 곳을 찾아 회향한다. 때론 속마음을 훌훌 털어놓을 수 있는 자상한 아빠가 되고, 때론 밥짓고, 빨래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과출부가 되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보살행까지도 펼쳐 주위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진주교도소 불자모임인 정불회(회장 한윤갑)와 함께 하대동 성프란시스코 무의탁노인들과 평거등 기독육아원등을 방문해 간식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처럼 불산스님의 자비행으로 이제는 관내 구석구석 따뜻한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진주시내를 한바퀴 휙 둘러보고 산문을 들어설 때면 스님은 늘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한곳을 더 방문할 수 있었는데…"라고 되뇌인다.

김중근 기자

마/음/의/쉼/터

화 엄 동 산

사는 일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현실 속의 좌절감, 미래에 대한 불안, 파산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인간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옥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살아있는 시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마음 속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풀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새로운 서원을 세워가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분은 우담바라의 저자이신 소설가 남지심 선생님이십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은 암담한 마음에서 벗어나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감동에 젖게 될 것입니다. 연락기다립니다.

이달의 주제 : 좌절을 승화할 수 있는 힘...서원(誓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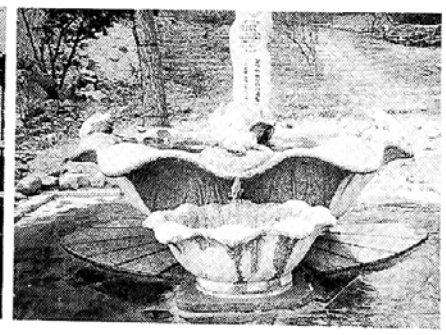
- 지도 : 남지심 선생님(우담바라의 저자)
- 소그룹 참여를 환영합니다.
-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전공부, 기도도 병행합니다.
- 회비는 월 2만원입니다.
- 문의 전화 : 607-2453 · 697-7778 · 692-4817
- FAX : 607-2453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법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 표 김 옥 수 합장

불교초전지 성역화

신라 - 도리사 일대
백제 - 영광 법성면
가야 - 김해시 일원

유적정비 · 성지순례코스 개발 · 학술조명

한국불교의 첫 전래지들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성역화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신라불교의 발상지인 구미시 도개면 도개2리와 도리사, 백제불교의 초전지인 영광 법성면 진내리일대. 가야불교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김해시 일원. 그동안 학계의 논란이 돼 왔던 이 지역들이 최근 학계의 고증을 받아 불교성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한국교원대 박물관(관장 정영호)에 모례정(井), 도리사 등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는 도개면 일대에 대한 학술조사를 의뢰, 신라불교의 초전지임을 재확인했다. 눌지왕때 고구려로부터 온 아도화상이 모례네 집에서 숨어 살며 불법을 폈다는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등의 문헌기록을 토대로 현지조사를 실시, 모례네 집과 우물이 신라불교발생의 중심지이며, 도리사가 신라 최초의 사찰임을 고증한 것. 또 주변에 산재해 있는 주륵사지·죽림사지·보천사지 등 큰 절터와 낙산동 3층석탑·죽장사 5층석탑 등의 거대한 석탑, 해평동 석불입상·진평동 마애삼존불 등 통일신라시대의 우수한 불교유적은 당시 사람들이 이곳을 순례하면서 일으킨 불사의 증거로 추정했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도개2리 일대를 사적지로 지정·보존하는 한편 불교성지로 개발해 신도들의 순례지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99년까지 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법성면 진내리 일대 2만여㎡를 관광명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법성면 진내리 일대는 침류왕1년(384) 인도승려 마라난타가 백제에 처음 불교를 전한 곳. 이를 위해 영광군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에 기본조사 및 설계 용역을 의뢰, 2월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높이 11m, 좌대 5m 규모의 마라난타상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인근의 불갑사지구, 원불교 성지 등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코스로도 개발한다.

김해시도 오는 5월 국립김해박물관 개관에 맞춰 가야문화관광벨트를 조성키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11만9천1백㎡ 규모의 유적정비 및 문화시설 조성은 200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해시는 허황후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가져왔다는 파사석탑, 초선대 마애불 및 부처님 발자국 등 가야불교를 부각시키는 프로그램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석 기자〉

모조석굴암 황룡사지전시관 건립 반대여론

불교학계 · 문화재관계자등 "재고해야"

경주 불국사가 추진중인 석굴암 경내 모조 석굴암 건립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학계와 문화재 관계자들은 기존 석굴암(국보24호)의 보존보수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조 석굴암 건립은 재고되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불국사는 오는 4월부터 2003년까지 1백59억5천만원을 들여 석굴암 남쪽 요사채 아래에 모조 석굴암과 자료관을 조성키로 하고 2월2일 문화재관리국에 현상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즉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위해 형질변경과 신축허가 등을 요청한 것.

불국사부주지 성천스님은 "20여년전 석굴암전실에 유리보호벽이 설치되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차단되고 결로현상이 진행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모조석굴암을 건립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 국보를 온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작년부터 문화재전문가들과 팀을 구성하여 은밀히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재관계자들은 결로현상과 외부 콘크리트돔의 균열현상 등으로 해체보수가 논의되는 現석굴암을 둔채 모조품을 건립하는 것은 낭비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본지 149호 21면 참조>

또 경북도와 경주시가 황룡사지 인근에 추진중인 황룡사9층목탑형 전시관에 대해서도 지역불교계에서는 원형복원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즉 황룡사지 인근에 역사적 고증이 되지 않은 황룡사9층목탑의 추정모형으로 전시관을 건립하게 되면 원형복원은 물건너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문화재관리국은 황룡사의 원형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IMF한파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출국하고 있는 가운데 1월25일 네팔불자모임회원들은 '새해맞이 한마당'을 갖고 환수를 달랬다.

외국인불자 속속 'IMF 출국'

환율상승 · 불법체류자 방출여파

네팔불자모임 회원 50% '고향으로'

최근 IMF 관리체제로 국내 산업현장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들의 정신적 쉼터가 되어온 교계 사찰과 단체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업과 환율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평소보다 두배로 증가했기 때문. 자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하는 외국인들을 이해시켜야 할 뿐만아니라 간혹 기대감으로 귀국을 망설이는 외국인들의 생계대책까지 상담을 해야한다.

현재 교계에서 외국인 노동자모임을 운영하는 곳은 자비의집 '네팔불자모임'을 비롯 부천 석왕사의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모두 세 곳.

네팔불자모임은 회원 3백여명 가운데 1월까지 절반 이상이 귀국을 한 상태다. 그나마 남은 회원의 대부분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

석왕사 외국인노동자의 집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얀마, 스리랑카 등 동남아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해결에 앞장서온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특히 귀국을 주저하는 외국인들에게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경제상황을 설명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체류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1일 외국인 연수생제도 폐지와 함께 불법체류자 15만명을 연내 강제출국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 〈정〉

경주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교통영향평가 '부실'

감사원, 재평가 지시

경주시가 황성공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소홀히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황성공원 일대 31만여평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경북도의 지시를 어기고 실내체육관이 들어서는 1만3천여평에 대한 평가만 실시한 것.

이는 감사원이 작년 11월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실내체육관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밝혀졌다.

경주시는 2백38억원을 들여 황성공원내에 실내체육관 야구장 레포츠시설 등이 들어서는 종합체육공원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1월부터 공사에 착공했으나 동국대 경주캠퍼스교수회 경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부지가 부적절하다며 거세게 항의해 왔었다.

감사원은 담당공무원 3명의 징계와 재평가를 경주시에 지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체육공원 건립계획이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실내체육공사는 52% 정도 공정이 진행된 상태다.

조계종 행자교육원 송광사서 개원

3월5~27일

조계종 제14기 행자교육원이 오는 3월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송광사에서 개원한다.

교육원(원장 암도)은 97년 10월5일 입산행자로 10월20일까지 교육원에 행자등록을 필한 자 등 교육대상자격 등을 포함한 행자교육원 일정을 2일 공고했다. 이에따라 교육원은 4일부터 12일까지 입방신청서를 각 교구 본사별로 접수받는다.

특히 이번 행자교육부터는 교육후 시험을 실시하던 종전과는 달리 입제하기전 시험을 실시해 기준 미달자는 입방을 허용치 않으며, 지난해 확정된 사미·사미니복도 착용해야 한다.

선학원 행자 17명 신청 조계종 불허통보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달 선학원이 제출한 행자교육원 입방신청서 17건을 일괄 반려했다.

조계종의 이번 조치는 종단과 선학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학원에 대한 각종 규제(종헌 9조4항)를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이와관련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선학원과 종단간의 실무협의회의에서 아무런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선학원측은 "대화를 통한 종단과의 문제해결 여지는 아직 충분히 있음에도 종단이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 못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기초선원등에 대한 입방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조계종 선학원 문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올 운영지침 설명

조계종 17일 본사주지회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가 17일 오전10시 총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성금모금법회 일정을 비롯 금년 종단운영지침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또 나라경제살리기 금모으기운동을 각 본사가 적극적으로 전개해 줄 것도 당부할 예정이다.

뉴스 & 뉴스

11일 동안거 해제

정축년 동안거가 11일 해제된다. 이에따라 전국 65개 선원과 기초선원에서 제히 해제법회를 봉행한다.

교불련 새회장 28일 선출

한국교수불자연합회(교불련, 회장 류종민)는 28일 정기총회 열어 새 회장을 선출하고 새해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새 회장에는 수석부회장인 조희영교수(동국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불련 회장 임기는 2년이나 지난해 류종민교수(중앙대)가 회장을 맡으며 1년 임기를 조건으로 수락, 이번에 새로 선출하는 것이다.

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20, 21일 화성 신흥사에서 제2회 불교사회복지 종사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1박2일 출가교육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회는 '불교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가져야할 자세' '불교기초교리'에 대한 강연과 '반야심경' 사경, 참선등이 실시된다.

자원지도 간사단 발족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지난 7일 현성정사에서 자원지도 간사단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1박2일에 걸친 워크샵을 개최했다.

간사단은 청교련 출신 청소년지도자 중 12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됐다. 이날 워크샵에서 프로그램의 실제와 회의지도기법, 자원봉사활동 사례 등에 대한 강의와 논의를 가졌다.

청소년에 노래방 무료개방

인천 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선일스님)은 최근 부루나포교원 법명사 교육회관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 1주일에 한번 인천관내 청소년들에게 무료개방하고 있다.

인천유해환경감시단은 노래방 기기를 필요로 하는 학교, 사회복지관, 청소년시설에 무료 대여할 방침이다. (032)577-0266

"진관스님 석방하라"

세계고문방지기구 촉구

세계고문방지기구(The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스님의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촉구문'을 1월29일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 인권단체와 네티즌들에게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고문방지기구는 긴급행동촉구문을 통해 진관스님의 구속을 '인권활동가에 대한 억압행위'라고 전제하고 스님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를 청와대와 법무부로 쓸 것을 호소했다.

목탁소리

경승 대 경목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지난 1월21일 경기지방경찰청 강당에서는 경기지방경찰청 경승연합회(회장 우담) 창립법회와 경승실 개원법회가 봉행됐다. 특히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한 관서에서 3~5명 이상의 경승이 위촉되지 못하던 관례와는 달리 23명의 스님이 경기경찰청 경승으로 대거 위촉돼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상당기간 창고로 쓰이던 경승실이 새롭게 단장되어 경기지역 경승활동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뜻깊은 법회였다.

그러나 경승단 창설 12년만에 23명의 경승이 한꺼번에 위촉되어 경승활동에 새로운 전기가 될 뜻깊은 행사가 갑자기 축소됐다. 교계신문·방송사의 보도의뢰를 취소하고 봉축등을 달지 않는 등 널리 홍포되어야 할 창립법회가 소리없이 치뤄졌다.

이유는 경기지청 소속 경목(48명)들의 반발과 경무과 소속 기독교인과의 갈등, 신임 이근명청장이 천주교인이란 사실 등이 복합되어 스님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기경승연합회 창립을 적극 후원한 김덕순 前청장과 천사령 前차장이 창립법회 불과 10일 전에 각각 탈옥수 신창원 검거 실패의 책임을 지고 충주경찰대학교 교장으로 좌천 또는 보직해임된 것이 주효했다.

이는 종교간의 갈등을 미리 막고자 한 자비문중의 제자 다운 처세로서 납득이 가지만 지나치게 몸을 사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간 경기경찰청에는 3명의 경승이 위촉되어 있었으나 활동이 없었으며, 48명의 경목이 매달 2회정도 정신교육을 실시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기 광주경찰서 경승실장 경봉스님(청명사)등 뜻있는 경승들이 불자인 김덕순 전 청장을 설득해 경승 23명을 한꺼번에 위촉하는 결과를 보게 된 것. 결국 어렵게 얻어낸 성과를 창립법회를 통해 널리 알리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관계된 스님들이 앞으로는 더욱 당당하게 포교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경찰청 경승실장인 우담스님(금륜사 주지)은 "경목과 같은 숫자(48명)의 경승을 위촉하기 위해 계속 정진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퀸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킨것입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맥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때 빛깔이 짙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누구나 보는 불교영화로…"



■ 영화 「성철」 제작 안국선 사장

"촬영 50% 마쳐…4월 개봉 베를린·칸영화제등 출품"

"불자로서 불교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인연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작품은 제 처녀작이라 더욱 설레고 기쁩니다. 현재 '성철'의 촬영은 50%정도 진행된 상태인데 누구나 보고 감동할 훌륭한 불교영화로 만들겠습니다."

4월25일 개봉할 '성철'의 제작사 월드 시네택의 안국선사장(42)은 이번 '성철' 제작으로 더 깊은 불심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촬영현장에 갈 때마다 108배를 하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상영시간만도 3시간인 '성철'은 올해 베니스 영화제와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세계적으로 명망과 권위를 자랑하는 베를린 영화제와 칸영화제에도 출품 계획이다.

"사실 감독이야 작품성을 주로 보겠지만 제작자는 당연히 흥행성을 보고 투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제 출품은 중요한 흥행요소가 되지요. 앞서 성철스님을 담은 영화를 기획했던 분들도 꽤 있었지만 모두 제작비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중도하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25억원으로 책정했는데 IMF 한파가 여기까지 미치더군요. 최대한 제작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삭감은 피해야죠."

월드 시네택은 '성철' 영화 제작을 위해 97년 7월에 설립된 회사로 현재 3~4편의 영화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사장은 "앞으로도 또다시 좋은 소재가 있으면 불교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영화 '성철'이 성공한다면 충분히 이어갈만한 분야 아니겠습니까"며 의욕을 보인다.

김지연 기자

BBS·btn 봄개편 'IMF式'

"제작비 줄이고 방송질은 강화하자"

불교방송과 불교TV가 봄을 맞아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한다. 불교방송은 9일자로 '안녕하십니까 홍승기입니다' '소리여행' '음악세상' '사찰순례' '라디오 독경'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등 소폭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프로그램인 '백팔가요'는 '김흥국의 가요쇼'로 이름과 포맷을 보완해 새 모습으로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현각스님


◇홍승기교수


◇최봉수교수

불교방송

△'안녕하십니까 홍승기입니다 1·2부'(월~토, 07:10)=경제전문가 홍승기박사와 함께 경제칼럼·짜투리경제학보따리·절약시대의 건강비결·돈안드는 문화생활정보·자동차정보·교통/기상정보 등으로 꾸며진다.

△'김흥국의 가요쇼 1·2부'(월~일, 12:25)='전화연결' '얘기해 볼까요' 등 청취자와 호흡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마음의 등불이 되어줄 경전의 가르침도 접할 수 있게 된다.

△'음악세상'(월~일, 21:05)=음악을 통해 생활에 지친 어른들과 학업에 찌든 청소년들에게 편안한 마음의 쉼터를 제공한다.

△'사찰순례'(일, 08:25)=한국의 고찰·전통사찰 등을 심층 취재해 그 역사적 배경 전설 보유문화재 등과 현재의 포교활동등을 다각적으로 청취자들에게 전달한다.

△'소리여행'(월~일, 24:00)=매일 10분동안 지나간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함께한 다양하고 정겨운 소리들을 담아 각박한 현대생활의 활력소를 만든다.

BBS 라디오 독경 등 5개프로 신설
불교TV 암도스님 강좌·TV법회 확대 눈길

△'라디오 독경'(일, 07:05)=(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주옥같은 경전들을 독경하며 편안함과 청정한 기운을 얻고, 성인이 가르치는 맑은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체득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지방국 부산 광주 대구 청주 등 불교방송 4개 지방국들 역시 9일 일제히 개편을 단행했다. IMF의 영향으로 인한 전반적인 광고시장의 침체와 제반 제작환경의 악화에 따른 비용축소항 개편이다. 이번 개편은 기존 보유자원의 총체적 활용, 제작비 사용의 최소화, 방송 효율의 극대화 등을 원칙으로 했다.

♦불교부산방송: 'BBS 생활상담실'(월~토, 11:10)을 신설하고 '피안을 향하여'(월~일) '3시의 가요 희망곡' '일요법문' 등은 포맷과 구성을 변경했다. 특히 동명불원의 제작협찬을 받는 '일요법문'은 주지 장산스님의 법문을 전달한다.

♦불교광주방송: '행복한 노래마을'(월~일, 16:10)을 신설하고 뉴스를 대폭확대해 하루 4번 호남권 뉴스를 방송한다. '빛고을 저녁'은 시사 생활정보에 중점을 두고 1·2부를 합쳤으며 '오늘의 법문' '일요경전강좌' 등은 시간대와 이름을 변경했다.

♦불교대구방송: '5분 명상' 'BBS 생활상담실' '오늘의 자방소식' '오늘의 영남불교' '살며 생각하며' 등을 신설하고 '불국토의 아침' '시사매거진' 등은 폐지했다.

♦불교청주방송: '살며 생각하며'를 자체 제작하며 '오후교계뉴스'(월~일, 16:35)를 신설했다. '우양산 전망대'는 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포교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다듬었다.

불교TV

불교TV는 불교교육 프로그램, 법회, 종단 사찰소개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는등 "가장 불교적인 방송"을 목적으로 16일부터 봄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불교음악의 세계'(토, 09:10), '종단순례'(토, 10:15), '암도스님의 기초교리강좌'(월~토, 10:45) 등 3편의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TV법회'는 주1회에서 3회로 확대해 화(11:05)·금(09:10)·일(09:40)에 방송된다. '날마다 좋은날' '구도드라마' '특선 다큐멘터리' 등의 프로그램은 시간대가 축소되고 '우리도 부처님같이' '자비의 천수천안' 등은 폐지된다.

BBS 임금협상 결렬

상여금전액·급여10% 삭감안

상여금 전액과 급여의 10%삭감을 두고 벌인 불교방송(사장 성낙승) 노사협상이 결렬됐다.

1월23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가진 노사협상은 양측의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채 끝났다.

이와 관련 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신창현)은 31일 성명을 내고 회사측의 임금체불과 부분적인 급여 삭감에 대해 단체협약을 위배했다며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회사측이 1월 상여금을 아무런 공지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일부 간부직원은 임금의 일부를 삭감한채 지급했다고 밝히고 회사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신행수기 당선작

〈본사 사장상〉

어머니, 불교를 다시 믿읍시다 ①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 생각 돌려놓고 보니 이토록 세상이 즐겁고 아름다운 것을….

나는 가난한 집 5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외도를 일삼았고 사업까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 온 가족을 고생시켰다. 때문에 어머니는 우리 남매를 외할머니께 맡겨 놓고 돈을 벌러 나가야 했다.

가정형편이 그렇다보니 나는 항상 부모님 사랑이 그리웠고, 자연히 내성적인 아이가 되어 있었다.

다행히도 할머니는 그런 나를 포근히 감싸주셨다. 언제나 인자하신 모습을 잃지 않으셨는데 그 당시 나는 할머니의 미소가 절에서 본 부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곤 했다.

어릴 적엔 할머니를 따라 절에 가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아마도 절에 가 얻어먹는 떡이며 과자, 흰쌀밥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할머니는 35세에 불교와 인연을 맺어 노환(93세)으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언제나 양보와 미덕으로 보살행을 실천하셨던 분이다. 항상 부처님께 절 하도록 가르쳐 주셨고, 자식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생한 추억으로 떠오른다. 덕분에 나는 성장해서도 심정적 불자로나마 있을 수 있었다.

할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난 나는 두말없이

외항선원과 결혼 빈틈없는 시어머니 고부갈등 깊어가고…

할머니 말씀을 따랐고, 첫 선을 본 그날 바로 결혼을 허락했다. 할머니의 눈은 정확하셨다. 남편은 더할 나위없이 자상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종교 또한 같아 만족스러웠다.

남편이 외항선 선원이었던 탓에 신혼 초부터 남편과 떨어져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시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혼자돼 어렵게 살아오신 분이셨다. 그 당시 시어머니는 외손녀(시누이의 딸)를 키우고 계셨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시집 와 시어머니와 한집에서 살아야 했던 나는 5살난 조카 아이가 오히려 서먹서먹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오였다.

어머니의 성격은 정확하고 빈 틈이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해를 보고 달이라고 해도 며느리인 내가 그대로 믿고 따라주길 바라셨다. 어머니는 명령하시고 나는 복종하는 그런 관계이길 원하셨던 것이다.

또 시어머니는 구두쇠라는 말을 들을 만큼 모을 줄만 알고 결코 쓰지 않는 생활을 하셨다. 시어머니로서는 철없는 며느리를 잘 가르쳐 내 집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갓 시집 온 나에게는 지겨운 잔소리요, 간섭으로만 느껴졌고, 마침내 고부간의 갈등이 커져갔다.

생활비와 용돈을 미리 주지 않아 끼니 때마다 두부 한모값, 콩나물값을 타 써야 했고, 아이가 생기고도 연탄값을 아껴야 한다는 명목아래 7년이라는 세월을, 각자의 방을 두고도 어머니, 조카와 함께 한 방을 써야 했다. 그렇다고 불편함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의 오해만 커져 갈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사건건 간섭을 해대며 나를 불편하게 하시던 어머니도 건강한 편은 아니어서 겨울이면 천식때문에 길고 긴 기침으로 괴로워 하셨고, 내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그렇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집안의 힘든 일은 어머니가 도맡아 하셨고, 잠시도 쉴 틈없이 부지런히 일을 하셨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머니가 나를 못마땅해 하셨던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몸집도 작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솜씨도 형편없었으니까 말이다.



그림 · 이준석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늘 어머니께 꾸중듣기 일쑤였고, 그럴수록 나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되었다.

1년에 한번씩 귀국하는 남편이 결국 고부간의 갈등을 눈치채게 되었고,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어쩌할 바를 몰라 괴로워했다. 남편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사를 해 보려고 애썼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그렇게 7년동안 마음 고생을 하다 문을 연 것이 세탁소였다. 처음엔 세탁소 운영 또한 미숙하기 그지없고 어려웠지만 차츰 자리를 잡아 가면서 수입도 괜찮아졌다.

세탁소 운영이 원활해지면서 경제권도 가지게 되었고 결혼 후 줄곧 떨어져 살았던 남편과 아침 저녁밥을 함께 먹으며 살게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듯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심기가 불편할 대로 불편해져 계셨다. 두부 한모값까지 일일이 챙겨 주시던 어머니로서는 경제권은 물론이고 아들마저 빼앗긴 것처럼 여기셨다. 갑작스런 변화에 상심이 크실까봐 용돈도 풍족하게 드리고 세세한 일에까지 신경쓰는 일을 잊지 않았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런 탓인지 어머니와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남편은 계속되는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짜증스러워하기 시작했다.

박윤희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1가〉

특보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
우환과 액운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 출세를안겨주는
신비로운 민간요법

명당자리 氣 요법

· 제조원 : 이명무 오링테스트 연구회
· 판매원 : 기원정사 천도원(세정개발 주식회사)
· 주 문 : ☎ 223-0491~2 ☎ 249-8751

♦우울증, 치매, 정신병, 간질, 근무력증, 만성피로, 원인불명질환, 중풍, 언어장애, 난청이명, 불면증, 불임증, 당뇨병, 축농증등 현대의학으로 치료 안되는 환자, 사업실패, 불운, 가정불화, 비행청소년, 기타 우환과 액운이 따르는 사람에게 권합니다.

명당자리 요법이란?

▶ 묘지요법 (영혼천도 및 묘지 명당 만드는 법)
▶ 유해전자파 중화요법 ▶ 핌질 및 목욕요법 등

현대 의학과 민간요법을 조화시켜 종합적으로 대처함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킨 합리적인 요법이다.

특히,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만성병, 불치의병, 원인 불명의 질환이 거의 대부분 조상의 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명무 약사가 오링 테스트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확인하여 임상적으로 증명하였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종합적인 명당자리 요법을 통하여 정신병 환자가 호전 반응을 일으키고 치매, 신근 경색증 환자가 양호한 상태로 변화되는 등 실제 임상을 통하여 입증시킨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의학계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상표등록출원 2000-1호

도자기



▲ 조상을 편히 모셔드리는 명당도자기

자매품



★ 명당컵
① 명당컵을 TV위에 올려 놓거나 전자렌지, 냉장고 안에 넣어 두면 신비로운 氣의 작용에 의해서 유해전자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 명당컵에 물을 담으면 건강수가 되고, 그 물을 이용하여 핌질 및 목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되어 피로회복은 물론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 묘지 요법

통수지리설을 근거로 하여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명무 약사가 세계 최초로 연구하여 조상의 묘가 잘못되면 실제로 그 후손이 나쁜 기를 받아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사업실패, 영업부진, 불운과 가정불화, 비행청소년 기타 예고없는 사고등 액운이 따르므로 이런 사람은 지체없이 고인의 묘지에 명당 도자기를 묻어 주거나 유골을 모시면 고통받는 영혼이 완전히 편안한 영혼으로 변화되어 후손들의 질병도 치료되고 당대 발복하여 행운이 따라와서 출세를 누릴 수 있는 불가사의한 치료법이다.(특히, 객사죽음, 화장한 영혼은 한이 많은 영혼이라서 천도가 잘 안되지만 명당도자기 요법으로 100% 천도가 됨)
유해 전자파 중화요법, 핌질 및 목욕요법, 건강 식품 요법 등은 위 상품란에 참고 하시고 상세한 것은 전화 문의나 시중 서점에서 이명무 지음 「신비의 오링테스트와 명당자리 기요법」을 구입해 참조 하시기 바람

전국 시·군·사찰지사 모집

◐ 「남여 불문 선착순 계약」

주변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신도가 없는지?
갖은 노력을 해도 실패만 거듭하는 신도는 없습니까?
스님들을 통해서 그 효력이 100% 발휘되는
명당자기 기요법" 놀랍고 불가사의한 비전!
신비로운 작용, 그 전부 입니다.

● 「불황에도 투자액의 배액이 보장된다.」
● 독점 품목이다.
● 투자에 대한 위험이 없다.
● 신도들의 서원을 100% 충족시킨다.
● 간편한 방법으로 영가 천도는 반드시 된다.

명당자리 기요법 세미나 안내

100%조상 천도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일시 : 1998년 2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태화사」 불교회관
● 동참회비 : 무료
※ 참가 희망자는 2월 14일까지 전화 신청바람.
(052) 223-0491~2 (동알스님)